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 사 학 위 논 문

기동전 수행의 원리에 관한 연구

2011년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국 제 안 보 전 공

전 의 식

HANSUNG UNIVERSITY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구형회

기동전 수행의 원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 of the Conducting Maneuver Warfare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국 제 안 보 전 공
전 의 식

HANSUNG UNIVERSITY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구형회

기동전 수행의 원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 of the Conducting Maneuver Warfare

위 논문을 국제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국 제 안 보 전 공
전 의 식

HANSUNG UNIVERSITY

전의식의 국제안보전략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HANSUNG UNIVERSITY

국 문 초 록

기동전 수행의 원리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전 의 식

본 논문의 목적은 열세군(劣勢軍)이 우세군(優勢軍)을 상대로 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기 위하여 기동전 수행의 원리를 연구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승리하는 전쟁이론이 무엇인가? 둘째, 기동전이 어떠한 것인가? 셋째, 그 기동전수행의 원리가 무엇인가?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먼저 기동전에 관하여 주요 전략사상가와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핵심요소와 원리를 고찰하였다. 또한 세계의 전쟁사 가운데 몇 개의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전승에 필요한 공통적인 요소를 발췌하였다. 그리고, 기동전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요소별로 그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과학적 이론과 법칙으로 입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사례연구 결과를 기존의 철학적, 심리학적, 과학적 이론 및 법칙과 대조하여 증명하도록 하였다.

문제에 관한 분석의 전개과정은 우선 주요 전략사상가와 선행 연구자들이 주장한 기동전 이론을 고찰하여, 그들이 제시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를 발췌하였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史例)를 연구한 결과 기동전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핵심요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핵심요소를 종합 및 통합하여 기동전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핵심요소별로 철학적, 심리학적, 물리학적 및 사회과학적 이론과 법칙으로 그 원리를 입증하였다. 그리하여 각 핵심요소별 기동전수행의 원리를 종합하

여 전체적으로 기동전수행을 지배하는 원리를 발견해 내도록 하였다.

본 논문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주요 전략사상가의 이론 즉「손자」의 병법,「풀러(J.F.C. Fuller)」의 마비이론, 「구데리안(H. Guderian)」의 전격전이론, 「리델.하트(B.H. Liddel Hart)」의 간접접근 전략이론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선행 연구자들의 이론 즉,「심킨(Richard E. Simpkin)」,「레오나드(Richard R. Leonhard)」,「보이드(John. Boyd)」,「후커(Richard D. Hooker)」와 노양규 등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기동전은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하여 적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마비시킴으로써 정신적으로 굴복시켜 최소의 희생으로 단기간 내에 승리하고자 하는 정규 전쟁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기동전 수행의 핵심요소로 주도권 장악, 속도, 우세(집중), 기습, 기세(氣勢), 조직체계 마비 및 조직심리 마비의 7개 요소를 발췌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5 개의 기동전 사례를 연구한 결과 앞선 7개 핵심요소 외에 정신전력과 정보능력의 2개 요소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그 다음에 이 핵심요소들을 종합하고 통합하여, 기동성을 수단으로 적을 마비시키는 방법에 맞는 5개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5개 핵심요소는 주도권 장악, 속도, 우세획득 및 기습달성, 조직체계 마비 그리고 조직심리 마비이다.

주도권 장악은 자주적인 의사결정과 이를 실행하는 작전행동이 적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즉, 선제적인 의사결정과 작전행동으로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의도대로 끌려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는 적보다 우수한 정보능력이 기초가 되며, 기동전 수행간 전략적·작전적 정보가 적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속도는 전장에서 시간의 개념으로 전환된다. 고속으로 진행되는 작전행동으로 적에게 동시다발적인 상황과 사태의 변화를 일으키면, 적의 최고사령부가 부정확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태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적이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개로 말미암아 적의 인식이 따라오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적의 최고사령관의 심리가 교란되는 것이다. 적의 후방으로 종심깊게 진격하는 전략

적·작전적 기동부대의 속도에 아군의 충천하는 사기가 승수효과를 발휘하여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氣勢)를 형성하고, 이어서 이러한 기세가 적에게 공포와 공황을 일으켜 마침내 적의 사기가 붕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장에서 발휘되는 기동속도는 적의 심리적 중심(重心)으로 지향되어 적의 사기를 붕괴시키고, 적의 최고사령관의 의지를 굴복시키게 된다.

속도를 이용하여 적의 결정적인 약점에 시간적인 집중을 하여 상대적인 우세를 획득하고, 기습을 달성함으로써 전력비를 역전시킬 수 있다. 기습은 적의 정서에 충격을 주어서 적의 이성과 지각을 마비시킴으로써 어떠한 대응행동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전력의 균형을 전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체공학의 과학처럼 고속기동과 경제적인 화력의 운용으로 적의 지휘통제체계와 군수지원 체계 등 각 종 조직체계를 마비시키면, 적의 명령과 보고체계가 마비되어 비록 수적으로 우세한 적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전장에서 군대는 최고조직의 군중이다. 군중심리는 본능과 무의식과 암시에 따라 집단행동으로 표출되며, 이성보다 감성에 의해 지배된다. 전장에서 아군이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적의 심리적 중심을 향해 속도를 발휘하고, 적의 조직체계를 마비시키고 기습을 달성하면, 적의 장병들은 생존본능이 발동하여 군중심리에 휩싸이게 되어 불안과 공포 및 공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적의 심리적 중심을 지향하는 아군의 고도의 심리전이 병행된다면 적의 조직심리는 마비되어 사기가 붕괴되고, 적의 군대조직이 붕괴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앞 장의 각 핵심요소별 원리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기동전 수행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원리를 발견하였다. 즉, 시간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적의 조직심리에 변화를 일으키는 속도 있는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적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이 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동전 승리의 원리는 시간과 조직심리의 함수관계로 풀어야 할 마비전의 원리인 것이다. 이 연구 결과 군은 앞으로 기동전이론을 기반으로 자주적인 전략수립은 물론 군사교리 정립과 이를 수행할 군사력을 건설하도록 추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어】 기동전, 전략사상, 군사전략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 3

제 2 장 기동전 수행의 원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제 1 절 기동전의 개념 ····· 5
제 2 절 주요 전략사상가의 이론 ····· 12
제 3 절 선행 연구자의 연구내용 ····· 33
제 4 절 연구방법의 전개과정 ····· 46

제 3 장 기동전 수행의 핵심요소 분석 ····· 48

제 1 절 선행 연구된 기동전 수행의 핵심요소 ····· 48
제 2 절 대표적인 기동전 전쟁 사례 분석 ····· 52
제 3 절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 도출 ····· 89

제 4 장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별 원리 연구 ····· 101

제 1 절 기동전은 주도권을 장악하여 마비 ····· 102
제 2 절 기동전은 속도로 마비 ····· 111
제 3 절 기동전은 우세와 기습으로 마비 ····· 123
제 4 절 기동전은 조직체계를 마비 ····· 128
제 5 절 기동전은 조직심리를 마비 ····· 130

HANSUNG UNIVERSITY

제 5 장 기동전수행의 원리 ····· 137

제 1 절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별 원리의 종합 ····· 137
제 2 절 기동전수행의 원리 발견 ····· 140

제 6 장 결 론 ····· 143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143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 144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 145

【참고문헌】 ····· 147

ABSTRACT ····· 151

HANSUNG UNIVERSITY

【 표 목 차 】

[표 3-1] 주요 전략사상가가 제시한 기동전 수행의 핵심요소 ····· 51
[표 3-2] 주요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기동전 수행의 핵심요소 ····· 51
[표 4-1] 속도에 관한 공식 ····· 112
[표 4-2] 힘과 가속도의 관계에 관한 공식 ····· 117
[표 5-1] 기동전 승리의 원리 공식 ····· 142

【 그 림 목 차 】

[그림 2-1] 결정적 공격목표로서의 전략적 마비 : PLAN 1919 ····· 23
[그림 2-2] 분석의 틀 ····· 46
[그림 3-1] 「칭기스칸」군의 대『호레즘』전쟁시 기동약도 ····· 54
[그림 3-2] 「누르하치」군의 대『명(明)』<샤르흐> 전역약도 ····· 59
[그림 3-3] 〈독·불 전쟁〉 시『독일』군의 기동계획 요도 ····· 66
[그림 3-4] 이스라엘의 대『에짚트 』<6일전쟁> 약도 ····· 73
[그림 3-5] 이스라엘의 <수에즈 운하> 역도하 공격 약도 ····· 86
[그림 3-6] 기동전 수행의 핵심 요소간 관계 ····· 99
[그림 4-1] 운동에너지와 합벡터에 관한 공식 및 법칙 ····· 121
[그림 4-2] 기습과 인간 정신요소와의 관계 ····· 127
[그림 5-1] 기동전 수행의 핵심요소별 원리의 종합 ····· 139
[그림 5-2] 전쟁이론과 전투의 3 요소간 관계 ····· 1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세계사는 전쟁사라고 할 만큼 수많은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고대의 부족국가 시대에서는 인간의 체력에 바탕을 둔 살육전(殺戮戰)의 모습을 띄고 단 한번의 결정적인 전투로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되기도 하였다. 이후 부족국가가 서로 연합하거나 통일된 제국이 형성된 시대로부터는 군대의 규모가 커지고 전쟁지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단 한 번의 전투보다 일련의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쟁취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이 구분되어 발전되었다. 내연기관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군이 육·해·공·유도탄군 등으로 더욱 대규모화하고, 전쟁수행 공간이 지역·해역·공역 뿐만 아니라 우주공간까지 확대되면서 이제는 전쟁이론이 국가전략, 군사전략, 작전(전략)술 및 전술적 수준으로 구분되어 발전하였고, 핵전과 우주전까지 발전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고 하면서 "전쟁이란 적으로 하여금 이쪽 의지에 굴복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인 것……물리적 폭력은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적에게 이쪽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 목적"[1]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은 적국의 의지를 굴복시켜 아국의 의지를 강요함으로써 아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목적은 같더라도, 적국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시대의 상황과 군대의 규모와 전쟁공간의 광역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전쟁이론이 발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전쟁에 관해서는 소모전이론과 기동전이론으로 대분되어, 전략의 발전과 선택에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군사이론가인「심킨」[2]은 "소모이론, 기동이론 및 혁명전쟁 교리라는 3가지 전

1) 강창구 譯(1991),『전쟁론』, 서울 : 병학사, p.28.
2) Richard.E.Simpkin, 영국의 군사이론가로서 기동전 이론 중 특히 소련의 기동전에 대한

쟁이론이 존재"[3]한다고 하여 비정규전인 혁명전쟁의 이론을 제외하면 정규전에 두 가지 이론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전쟁에서 열세군(劣勢軍)이 우세군(優勢軍)을 상대로 승리하는 비결을 알기위해 기동전을 수행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데 두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승리하는 전쟁이론이 무엇인가? 둘째, 기동전이 어떠한 것인가? 셋째, 기동전수행의 원리가 무엇인가?

한반도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은 주변의 러시아, 중국, 일본에 비하여 약소국일 뿐만 아니라 군대 또한 열세군이므로 국가주권의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는 소국이 대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945년 8월 해방 이후 미국의 군정과 한국전쟁 후 한·미연합 방위체제하에서 한국군은 미국군의 교리와 편제 및 무기·장비를 추종 또는 모방하여 군사력 건설을 하여온 바, 이는 한반도의 전략환경에 미부합되므로 자주적인 전쟁수행 방법과 군사력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군이 2015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군 단독의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자주적인 전쟁이론에 바탕을 둔 군사교리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군사력 건설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수단과 방법 면에서 소모전 이론과 기동전 이론의 두 가지 이론 중에서 소모전 이론은 적국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전투를 통하여 적국의 자원과 재화를 지속적으로 소모시키고 영토를 탈취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누적된 소모와 빼앗긴 영토로 인하여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기타 자원과 자본이 많은 대국이 채택하는 경향이므로, 한반도의 전략환경에 부합되지 못하는 이론이다.

독일은 주변의 대국들에 의해 둘러 싸여 있으며, 양면 전쟁을 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찍이 프레데릭 대왕 시절부터 전쟁을 조직적으로

전문가임. 영국참모대학 교수와 왕립 군사과학대학의 교수 및 군사연구부장, 국방성 육군 담당 운용부장 역임.

3) 연제욱 譯(1999), 『기동전』, 서울 : 책세상, pp.552-553.

연구하여, 그 해결책으로 기동전 이론을 발전시켜 제 1, 2차 세계대전에 임하였다. 이스라엘도 독일과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생존을 위해 기동전 이론을 수용하여 4차에 걸친 아랍연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통일 이후 우리나라도 독일 및 이스라엘과 유사한 전략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생존과 번영을 위해 기동전 이론을 철저히 연구하여 전략과 군사교리의 발전 및 군사력 건설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군은 미국군의 영향으로 소모전 이론이 전략과 군사교리에 지배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장교들이 기동전 이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동전의 진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심하므로 일반적으로 공감된 이론이 미흡한 실태이다. 그래서 기동전 이론에 관한 명확한 지각(知覺)과 공감의 확산을 위하여 기동전수행에 필수적인 핵심요소와 그 원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논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동전 이론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군사사상과 전략사상에 관한 논의는 제외하였고, 또한 기동전 수행을 위한 소규모 정예군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며, 군사작전 수준별 기동전의 형태와 수행개념에 대해서도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논문의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먼저 주요 전략사상가들이 제시한 기동전 이론과 선행 연구자들이 연구한 기동전의 핵심요소와 그 원리에 관한 연구내용을 고찰하였다.

둘째, 세계의 전쟁사상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기동전으로 승리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고 분석하여 기동전의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기동전의 핵심요소별로 철학적, 심리학적, 물리학적, 사회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기동전 수행의 원리를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이 논문은 논제의 특성상 실험이나 설문을 통하여 해결하기가 어렵고, 소모전 전략사상에 바탕을 둔 미국군의 군사교리 또는 이를 모방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군의 교리를 바탕으로 연구하기도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주요 기동전 전략사상가들의 저서와 선행 연구서 및 논문을 수집하여 참조하고,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를 정선하여 연구하며, 기동전의 핵심요소별 원리를 논증하기 위해 철학적, 심리학적,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이론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총 6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1장의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기동전의 핵심요소와 그 원리에 관한 주요 전략사상가들과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과 연구내용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제 3장에서는 제 2장에서 제시된 기동전 이론을 바탕으로 기동전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를 발췌한 토대위에서, 세계전쟁사 가운데 정선된 몇 개의 기동전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기동전수행의 통합된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기동전이 기동성을 수단으로 어떻게 적군의 조직심리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철학적, 심리학적, 과학적 이론으로 입증하여 제시하였고, 제 5장에서는 제 4장에서 제시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별 원리를 종합하여 기동전수행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지배적인 원리를 연구하였다. 이어서 제 6장에서는 연구내용의 요약과 함께 결론을 맺으면서 한국군이 왜 기동전이론에 기반한 군사교리를 채택하고 전략개념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분야를 포함하였다.

제 2 장 기동전수행의 원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기동전의 개념

1. 기동전(機動戰, Maneuver Warfare)의 개념

전쟁에 관한 두 가지 이론에서 소모전 이론과 상반되는 기동전 이론은 국가별 상황과 전략사상가의 이론에 따라 몇 가지 유사한 명칭으로 정의되어 오고 있다. 즉 기동전(機動戰), 마비전(痲痺戰), 전격전(電擊戰), 간접접근 전략이론(間接接近 戰略理論) 및 속도전(速度戰)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각의 이론들이 추구하는 핵심요소와 원리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각 이론의 정의와 개념을 고찰해 보겠다.

군사학 사전에는 "기동전은 적의 군사력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보다는 기동을 통하여 심리적 마비를 추구함으로써 최소의 전투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게 하는 전쟁수행 방식"[4]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기동전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찾기 어렵지만, "기동전이란 말속의 기동의 의미는 단순히 적보다 양호한 위치상의 이점을 확보하기 위한 이동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보다 우세한 템포로써 보다 빨리 움직여 적을 격파하는 모든 전쟁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5]라고 하여, 전쟁이 위치보다는 '시간에 대하여 적과 경쟁하는 것'[6]이라고 이론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약 30년 전부터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이론의 발전보다 먼저 독일군이 20세기에 들어 템포에 근거한 전쟁을 수행한 것이 '기동전'이라 부르는 전쟁형태라고 한다.

위의 기동전의 정의를 검토해 보면, 기동전은 적보다 우세한 기동성[7]을

---

4) 공군본부(2009), 『작전용어사전』, 대전 : 공군본부, p.66.
5) 이승호 譯(1999),『기동전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열린교육사, p.3.
6) 예비역 미 공군 대령 John. Boyd의 연구결과임.
7) 기동성(mobility) : 군부대가 고유의 임무를 완수할 능력을 보유한 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능력 또는 특성을 말함. [김광석 編(1993),『용병술어연구』, 서울 : 병학사, p.457.]

수단으로 사용하여,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보다는 심리적 마비를 통하여 적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전쟁의 형태라는 것이다. 이 기동전이 소모전과 다른 점은, 적보다 우세한 자원을 사용하여 유혈전투를 수단으로 하는 소모전에 비하여 기동전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과, 적의 자원을 계속적으로 소모시켜 누적된 소모로 인하여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적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소모전의 방법에 비하여 기동전은 기동성을 이용하여 적을 심리적으로 마비시킴으로써 적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원리는 기동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속도를 이용하여 시간경쟁에서 이기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 「손자」의 부전승(不戰勝) 병법(兵法)

「손자」는 중국의 고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하여 국가의 흥망과 백성들의 생사와 고난을 보면서 무의미한 살상과 파괴를 자행하는 소모적인 전쟁보다는 전쟁에서의 인간의 도덕(道德)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수행방법을 제시하였다.

1) 부전승(不戰勝)의 병법 제시

그는 전쟁에서 살육과 파괴 및 소모를 일삼는 전투(戰鬪)를 피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수단과 방법을 전례 없이 제시하고 있다.

"적국을 온전하게 둔 채로 이기는 것이 상책이요 적국을 격파함은 차선이며, 적의 야전군을 온전히 둔 채로 이기는 것이 상책이요 적의 야전군을 섬멸함은 차선이며, 적의 여단을 온전히 둔 채로 이기는 것이 상책이요 적의 여단을 섬멸함은 차선이며……이런 연유로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잘 싸우는 것이다(凡用兵之法, 全國爲上 破國次之, 全軍爲上 破軍次之, 全旅爲上 破旅次之……是故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8] 라고 하였다. 그리고 적의 저항력을 분쇄하는 방법 면에서 "최상의

용병법은 모략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은 외교로 적을 고립시키는 것이며, 또 그 다음은 무력으로 적의 군대를 격멸하는 것…(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9]라고 하여 모략과 적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직접 군사력으로 적국의 군대를 격멸하거나, 적의 성(城)을 공격하는 방법은 지혜있는 장군이 취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손자」는 전략적·작전적·전술적수준의 모든 제대의 지휘관은 직접적인 충돌에 의한 유혈전투를 피하고, 꾀와 기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기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살육과 파괴로 얼룩진 참혹한 전쟁을 피하여 전쟁의 도덕적, 윤리적인 면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단기전(短期戰) 수행 주장

「손자」는 전쟁이 오래 끌 경우 나라가 피폐해지고 백성이 가난해져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여 "전쟁을 오래 끌어서 나라에 이로운 일은 보지 못했다(夫兵久而國利者 未之有也)"[10]라고 하며,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하였다. 전쟁을 하더라도 단기간에 종결되면 경제적인 전쟁이 되며, 전쟁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3) 열세군(劣勢軍)이 우세군(優勢軍)을 이길 전법(戰法) 제시

「손자」는 그의 병법의 전편(全篇)에 걸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는 자원(병력, 무기 및 장비, 물자 등)의 수보다 뛰어난 용병술이 더욱 지배적인 요소임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허실편(虛實篇)'에서는 "월나라의 병력이 비록 많아도 어찌 승패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적의 병력수가 많더라도 실제 전투에는 참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以吾度之, 越人之兵雖多, 奚益於勝敗哉?, 故曰勝可爲也, 敵雖衆, 可使無鬪)"[11]라고 하여 용병술의 기묘한 방책을 사용하면 적의 많은 병력도 분산되어 상호지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각개

---

8) 손무・국방부 編(1956),『兵法新講』, 서울 : 국방부, pp.64-67.
9) 상게서, pp.69-72.
10) 상게서, p.49.
11) 상게서, p.153.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모략과 외교전 그리고 심리전 등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을 때에는 얼마든지 열세군으로도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마비전(痲痺戰, Paralysis Warfare)의 개념

마비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영국의 전략사상가인 「풀러」가 "조직을 파괴하는 방법에는 적 전투력을 '닳아 없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후자인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마비시키는 방법으로서 마비전(痲痺戰)"[12]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방법은

> "머리를 관통하는 한 발의 총알과 비유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기습적으로 광대한 독일군 전선으로부터 이 두뇌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또 단지 가벼운 충격만을 가하더라도 그들이 통제하고 있는 병력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것이다. 현재 이론이 인원(personnel)'을 격파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새로운 이론은 '지휘(command)'를 격파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적이 혼란된 후가 아니라 공격받기 전이어야 한다. 그래서 공격받았을 때 완전한 무질서의 상태가 형성되어야만 한다."[13]

라고 하여 마치 총알이 사람의 두뇌를 관통하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듯이, 적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군대조직의 주요 사령부를 강타하여 적의 지휘조직 체계를 마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비전이란 창이나 칼로 재빠르게 적의 중추신경을 찔러 적의 조직을 와해(disorganization)시키고, 저항력을 박탈하여 무력화(demoralization)된 적의 병력을 최종적으로 포획하는 것과 같은 전쟁 양식[14]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풀러」는 "이 숙명적인 교리[15]에 대한 이유는 보다 완전한 평화를 수립 하자는 참다운 전쟁목적을 도외시했

12) 노양규(1989), "마비전 전략사상의 현대적 고찰(Ⅰ)", 『군사평론 제 277호』, 대전 : 육군대학, pp.38-39.
13) 상게논문, p.39.
14) 상게논문, p.43.
15) 여기서 이 교리는 소모전 이론을 말함.

기 때문이다. 파괴의 유행은 정신적인 혼미(昏迷) 때문이었다"[16]라고 하여 제 1차 세계대전의 소모전 형태의 전쟁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기동전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풀러」는 "전략의 목적은 말 대신 힘에 의하여 정치적 논쟁을 매듭짓자는 데 있다. 이것은 통례적으로 전투에 의하여 달성된다. 그러나 전투의 참된 목적은 물질적 파괴가 아니라 적측의 정신적 굴복인 것이다"[17]라고 하여 기동전은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보다는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방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에서 기동이 상실되면 소모전이 된다고 하면서 기계화된 군이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전쟁은 단기간에 종결될 수 있다고 역설하여 단기전 이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4. 전격전(電擊戰, Blitzkrieg)의 개념

기동전의 또 다른 독일의 명칭은《전격전》[18]이다. 전격전 교리의 존재 여부를 떠나 독일군의 빛나는 승리의 주역이었던 「구데리안」장군이 이 론을 발전시키고, 이에 따라 기갑부대(Panzer)를 창설하였으며,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전격전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발간된 독일의 군사평론들을 살펴보면, 전격전의 개념은 순전히 군사적이고 작전술-전술적 관점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전격전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전격전'이란 기갑부대와 공중 전력을 집중 운용하여 적의 예상을 깨고 신속하게 적진 깊숙히 치고 들어가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포위하는 작전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작전으로 조기에 적을 격멸하는 것이다."[19]

16) 강창구 譯(1995), 『전격전의 기초이론』, 서울 : 병학사, p.96.
17) 상게서, p.95.
18)「전격전」의 용어가 독일군 교리의 명칭이 아니라 나치 선전가들이 서부전선의 승리를 과대 선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였다고 한다.(진중근 譯(2007), 『전격전의 전설』, 서울 : 일조각, p.36.)
19) 진중근 譯(2007),『전격전의 전설』, 서울 : 일조각, p.39.

위에서 제시한 전격전의 개념은 이미 제 1차 세계대전 때 발전된 '후티어(Hutier) 전술'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군은 '돌파부대 전술'을 통해 '진지전'의 교착상태를 극복해 전쟁양상을 다시금 '기동전'으로 바꾸어 놓으려 했다. 이 때 유명한 「후티어(Oscar von Hutier)」 장군이 시행한 성공적인 돌파전술이 각광을 받았으나, 기동성 있는 예비대의 부족과 전방추진 화력의 부족으로 끝내 실패하였다. 독일군은 이 전술의 실패원인을 교훈으로 분석하고, 이를 당시에 새롭게 개발된 항공기와 전차를 결합하여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제 전격전의 수행과정을 알아보자.

① 적의 후방에서 5열활동을 전개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민심을 교란하여 적 국민의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킨다.

② 공군은 기습적 일격으로…제공권을 장악하고, 아울러 적 후방의 도시, 부대 집결지, 지휘소, 그리고 통신시설 및 교통시설 등을 폭격하여 지휘조직과 예비력 동원체제를 마비시키고, 동시에 심리적 충격을 가한다.

③ 한편 전차, 자주포, 차량화된 보병, 공병 및 병참지원부대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적의 방어가 약한 전선의 좁은 정면에 대해 기습적으로 집중 공격함으로써 돌파구를 형성한다. 이 때 돌파를 담당하는 것은 보병…이다.

④ 기갑부대가 이 돌파구로 신속하고도 깊숙히 침투하여 적의 주력을 차단·포위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재편성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 이 때 급강하 폭격기가 화력증원을 담당한다.

⑤ 보병이 기갑부대에 접속 전진하여 차단·포위된 적을 소탕한다."[20]

이러한 전격전이론은 전략적수준의 전쟁수행개념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작전술과 전술적수준의 작전수행개념으로 정립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이 전격전이론의 발전에 영국의 전략사상가인 「풀러」와 「리델 하트」의 이론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2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전략환경에 맞는 전쟁수행방식을 연구한 결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원칙을 그 당시의

20) 육군사관학교(1982), 『세계전쟁사』, 서울 : 일신사, pp.306-307.

21) 「리델 하트」가 2차 대전 중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론이 독일군의 장군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묘하게 조작하였다고 증명하고 있음. (주은식 譯(1998), 『리델 하트 사상이 현대사에 미친 영향』, 서울 : 홍문당, p.18.)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22]

5. 간접접근(間接接近, Indirect Approach) 전략이론

영국의 전략사상가인「리델하트」는 간접접근 전략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명칭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기동전 이론이다. 그는 초기에「풀러」의 마비전 및 기계화전 이론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략의 목적이 저항의 가능성을 소멸하는 것이며,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수행하게 하고, 또한 전투를 감소시켜 최소한에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수단은 기동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동으로 저항의 가능성을 소멸하고 전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을 교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교란(攪亂:dislocation)이 전략의 목적이다. 교란의 결과로써 적이 붕괴되거나 또는 전투에서 적의 파쇄가 용이해질 것이다"[23]라고 하면서 전략적 수준에서 물리적 교란과 심리적 교란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리적 교란은 적으로 하여금 급히 정면변경을 하도록 배비(配備)를 혼란시키고, 적 병력을 분리하며, 적의 보급을 위기에 빠뜨리고, 적을 철수하게 하거나 적의 본국 내 전략기지와의 작전선에 위협을 가하는 전략적 기동을 감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심리적 교란은 물리적 교란의 효과가 적의 사령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서 발생한다고 한다. 즉 심리적 교란은 기본적으로 적의 사령관이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항할 수단과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할 때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심리적 교란은 적의 배후에 대한 물리적 행동을 가한 후에 자주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적 전선의 측면을 우회하여 배후로 향하는 기동은 '최소저항선'을 취하는 것이다. 심리분야에 있어서 이와 동등한 것은 '최소예기선'이다…양자를 결합시킨 경우에서만, 전략은 적의 균형을 교란시키기 위하

---

22) 진중근(2007), 전게서, p.521.
23) 강창구 譯(1978),『전략론』, 서울 : 병학사, p.357.

여 계산된 진정한 〈간접적 접근(Indirect Approach)〉 이 되는 것"[24]이라고 하여 물리적 측면의 최소저항선과 심리적 측면의 최소예기선을 병행하는 작전선을 따라 전략적 기동을 실시함으로써 적을 교란하여 저항의 가능성을 소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력운용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 새로운 방식이란 어떤 선까지 진출한다기 보다도 오히려 어떤 지역에 침투하여 그것을 지배하는 것을 노리는 방식이며, 또 적의 병력을 파쇄한다는 공론적 목적보다도 오히려 적의 행동을 마비시키려는 실행 가능한 목적을 노리는 방식이다[25]"라고 하여 「풀러」와 같은 마비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리델하트」는 최소저항선과 최소예기선을 지향하는 작전선을 따라 전략적 기동을 실시하여 적의 사령관의 심리를 교란하고, 적 장병들의 사기를 붕괴시킴으로써 적을 마비시켜 승리하고자 하는〈간접접근 전략〉을 제시하여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각 나라의 전략환경에 따라 그 명칭은 다르지만 개념과 원리가 기동전과 유사한 전쟁수행방식은 위의 5 가지 외에도 소련의 「투하체프스키」와「트리안다필로프」에 의해 개발된 소련식 기동전인〈종심공격 이론〉과 북한에서 주장하는〈속도전 이론〉이 있으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제 2 절 주요 전략사상가의 이론

이 절에서는 기동전의 핵심요소와 원리에 관하여「손자」,「풀러」,「구데리안」,「리델하트」가 제시한 이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손자」의 병법

---

24) 강창구(1978), 전게서, p.359.
25) 상게서, p.365.

앞의 제 1절에서와 같이「손자」는〈부전승(不戰勝) 병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 모략과 장수의 용병술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고, 유혈전투를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서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선정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용병법을 잘 아는 장수는 백성들의 목숨을 맡은 사람이며, 국가의 안위를 책임 진 사람이다(故知兵之將 民之司命 國家安危之主也)"[26]라고 하여 국가전략 수준에서 적국을 상대로 모략과 함께 외교를 단절시켜 고립시키는 외에 장군이 용병법을 교묘하게 펼쳐 유혈전투 없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렇게 국가전략, 군사전략, 작전술, 전술의 모든 수준에서 조차 유혈전투로 적을 살상하고 파괴하기 보다는, 꾀와 기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기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손자」가 제시하는 기동전의 핵심요소와 그 원리가 무엇인가?

1)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손자」는 "용병의 대가는 적을 조종하지 적에게 조종당하지 않는다.(故善戰者 致人而不致於人)"[27]라고 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장악하고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력에 대하여는 "현명한 군주와 훌륭한 장수가 전쟁에서 적을 이기고 남들보다 뛰어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적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 알기 때문이다.(故明君賢將 所以動而 勝人 成功出於衆者 先知也)"[28]라고 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는 국가의 정보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보능력은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에 그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에 위태롭지 않으며, 천시를 알고 지리를 알면 항상 승리할 수 있다(故曰 知彼知己 勝乃不殆, 知天知地 勝乃可全)"[29]고 하면서『손자병법』에 '지형편(地形篇)'과 '용간편(用

26) 손무・국방부 編(1956), 전게서, p.62.
27) 상게서, p.139.
28) 상게서, p.315.
29) 상게서, p.252.

間篇)'을 두어 적과 작전지역에 대한 첩보수집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적군의 약점과 실수, 적의 의도, 아군의 기동로, 작전지역의 지형과 지세 등을 먼저 알고 이를 이용하게 한다. 이 우수한 정보능력은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싸워 이기게 되는 기반을 제공한다.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용병은 기만술이다(兵者 詭道也)"[30]라고 하여 적이 아국의 전쟁기도를 전혀 모르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의 모든 수준에서도 적을 기만하는 것은 용병의 기본이라고 보고 그의 병법의 서두인 시계편(始計篇)에서부터 기만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완벽한 계획수립 후 늦게 행동하기보다 불완전한 계획이라도 먼저 행동하는 쪽이 유리하다(兵聞拙速 未覩巧之久矣)"[31]고 하여 선제(先制)를 유지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손자」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보아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주도권을 장악하여 항상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한다(勢者因利而制權也)"[32]라고 하는 내용을 그의 병법 가운데 제일 서두부분에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2) 집중(集中)과 우세(優勢)의 달성이 핵심이다.

「손자」는 "적은 의도가 드러나게 하고, 아군의 형체는 노출되지 않으면, 아군은 집중하고 적은 분산되어 마침내 아군은 적의 10배가 되는 병력으로 공격하는 셈이 되므로 아군은 많고 적이 적은 형세가 된다(故形人而我無形, 則我專而敵分, 我專爲一敵分爲十, 是以十攻其一也, 則我衆而敵寡)"[33]고 병법에 적고 있다. 이는 가용한 전력을 집중 운용하여 상대적으로 우세를 획득하는 효과를 거두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군이 분산하면 적도 방비를 위하여 분산하게 되는데, 이 때에 아군은 신속히 집중하여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아군이

30) 손무・국방부 編(1956), 전게서, p.22.
31) 상게서, p.48.
32) 상게서, p.20.
33) 상게서, pp.149-150.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적이 비록 수적으로는 우세 하지만 방비해야 할 곳이 많으면 분산 배치하여 지킬 수밖에 없다. 아군은 비록 열세하지만 분산된 적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전격적으로 집중하면 상대적인 우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무릇 잘 싸우는 장수는 정병술로 대적하고, 기병술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전세는 정병술과 기병술에 불과하지만, 정병술과 기병술의 변화는 무궁무진하다(凡戰者 以正合 以奇勝…戰勢不過奇正 奇正之變不可勝窮也)"[34]고 하면서 정병술로 적을 고착 및 견제하여 아군의 전력은 절약하고, 기병술로 집중 공격하여 군사작전을 주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손자」는 아군이 비록 열세한 전력이라 하더라도, 신속한 기동력으로 시간적으로 집중하고, 절약을 통하여 집중함으로써, 적보다 상대적인 우세를 획득하여 전세를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기동(機動)과 기세(氣勢)로 적을 압도하여야 한다.

(1) 군의 기동은 물의 흐름과 같이 하고 속도가 생명이다.

「손자」는 단기간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으로 기동과 기세에 의한 전쟁수행방법을 강구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그는

"무릇 용병은 물의 흐름과 같이 하는 바…기동은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공격하여야 하며…전쟁은 적에 따라 이기기 어려우므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과히 신의 경지라 할 만하다(夫兵形象水...兵之形避實而擊虛...兵因敵而制勝...能因敵變化而取勝者,謂之神)"[35]

라고 하여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지형에 따라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군의 작전도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따라 기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의 성질은 매우 부드럽고 연하므로, 정지하여 고여 있으면 맑은 거울

34) 손무・국방부 編(1956), 전게서, pp.121-124.
35) 상게서, pp.158-159.

같이 그 바닥까지 훤하게 보이고, 땅속을 스며들어 젖게 하며, 시냇물처럼 흐를 때에는 참으로 맑고 시원하며, 강물처럼 세력이 커져 흐를 때에는 도도히 흘러가고, 폭포수처럼 터질 때에는 제 성질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며, 해일처럼 밀어닥칠 때에는 아무 것도 거칠 것이 없는 무서운 기세가 되는 것이다. 전쟁에 임하여 군의 기동도 적진에 침투하여 젖게 만들고, 조그만 틈새라도 발견되면 압력이 집중되어 팽창하는 분류처럼 적의 후방으로 맹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손자」가 병형상수(兵形象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다. 또한 그는

"천리를 기동하면서도 피로하지 않는 것은 적이 없는 곳을 따라 기동하기 때문이고, 공격하여 반드시 탈취하는 것은 적이 지키지 않는 곳을 치기 때문이며, 진격함에 적이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적의 허점을 충격하기 때문이다 (行千里而不勞者 行於無人之地也. 攻而必取者 攻其所不守也 進而不可禦者 衝其虛也)"[36]

라고 하여 군의 기동은 적이 없거나, 적이 미약하게 방비하고 있거나, 또는 적의 약점과 허점을 공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손자」는 또 적의 약점과 허점을 지향하는 진격은 "먼저 우회기동으로 승리하는 것이 작전의 원칙이다.(先知迂直之計者勝, 此軍爭之法也)"[37]라고 하여 정면에서 적을 유인하고 원거리 우회기동으로 적의 배후에 먼저 진출함으로써 유혈전투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오늘날의 군사교리에서도 기동의 생명은 속도라고 하고 있다. 그는 "용병의 핵심은 작전의 속도이므로 적이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적이 고려하지 못한 길을 따라 적의 경계가 소홀한 곳을 공격해야 한다 (兵之情主速, 乘人之不及, 由不虞之道, 攻其所不戒也)"[38]라고 하여 작전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손자」는 적을 굴복시키기 위해 저항력을 분쇄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유혈전투를 회피하고 기동속도를 발휘하여 적의 배후로 나아가 고립시키고, 병참선을 차단하며, 적의 요충지를 먼저 점령함으로써 더 이상 싸울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방법을 선호하였던 것이다. 즉 그는

36) 손무・국방부 編(1956), 전게서, pp.142-146.
37) 상게서, p.176.
38) 상게서, p.264.

적의 저항력을 분쇄하는 수단으로써, 유혈전투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 즉 기동속도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2) 기세로 적을 무너뜨려 저항할 수 없게 한다.

「손자」는 기동속도와 함께 기세로써 작전의 속도를 가속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급히 흐르는 물이 큰 바위도 떠내려 보내는 힘이 기세인데…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그 기세를 맹렬하게 한다…따라서 천길 낭떠러지에서 둥근 바위가 구르는 것과 같은 기세로 작전을 하여야 한다(激水之疾 至於漂石者 勢也…是故善戰者 其勢險…故善戰人之勢, 如轉圓石於千仞之山者, 勢也)"[39]라고 하여, 대부대의 기세는 마치 댐이 붕괴되어 엄청난 물이 마을과 들판을 쓸고 가듯이, 또한 해일이 도시를 쓸어버리듯이 무서운 기세로 작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렇게 기동과 기세에 의한 전쟁수행 방법으로 유혈이 낭자한 전투를 통해 무모하고도 잔인한 살륙과 파괴를 하지 않고도 적국을 굴복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단기간에 전쟁을 종결하여 피·아 백성들의 희생과 고통을 덜어주고, 또 재화가 덜 소모되는 경제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던 것이다.

(3) 기습(奇襲)으로 전력의 균형을 전복시켜야 한다.

「손자」는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기습을 달성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켜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그는 "적이 방비가 없을 때에 공격하고, 적이 예상하지 못한 때와 장소에 나아가는 기습이 승리의 비결이다 (攻其無備, 出其不意, 此兵家之勝)"[40]라고 하여 기습을 달성함으로써 전세의 균형을 일시에 깨뜨려 주도권을 장악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습은 앞의 "2)", "3)"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속한 기동으로 적의 약점에 전력을 집중하여 상대적인 우세를 획득하고 충격함으로써 달성된다. 그리고 이 기습은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不意)를 충격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크고, 적의 방비가 소홀한 바(無備)를 타격하기 때

39) 손무 · 국방부 編(1956), 전게서, pp.126-137.
40) 상게서, pp.37-39.

문에 적이 알았다 하더라도 어찌할 방도가 없으므로 더욱 무력해지는 것이다. 「손자」는 바로 이 기습으로 인하여 적의 수적 우세가 일시에 전복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 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4) 전쟁에서 피·아 군대의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손자」는 전쟁에 관한 과학적 법칙을 찾는 가운데, 전쟁에서 심리적 요소가 피·아 군대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한 전략사상가로 인식된다. 그는 전장에서 군대 조직의 심리의 변화에 관하여

"전군의 사기가 꺾일 수 있으며, 적 사령관의 결심이 흔들릴 수 있다…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적의 사기가 왕성할 때를 피하고 적의 사기가 저하될 때에 공격하니 이것이 전쟁에서의 사기를 장악하는 방법이며, 아군의 질서로 적의 혼란함과 대결하고, 아군의 고요함과 적의 소란과 대결하니 이것이 전장에서의 심리를 지배하는 방법이다 (三軍可奪氣 將軍可奪心…故善用兵者 避其銳氣 擊其 惰氣 此治氣者也, 以治待亂 以靜待譁 此治心者也)"[41]

라고 하여 전장상황에 따라 군대의 사기(士氣)의 변화와 장병들의 전장심리(戰場心理)의 변화에 관한 가장 시초적인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모든 용병에 관한 이치를 전쟁터에서의 인간심리를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오늘날처럼 심리학의 세부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전쟁의 물리학적인 분야를 초월하여 심리학적인 분야까지 연계시켜 전장을 지배하는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한 그의 이론은 전략사상사 중에 처음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적군의 사기를 빼앗음으로 인하여 적군의 사령관의 마음 즉 저항의지를 박탈할 수 있다고 설파한 점이다. 또한 깊이 고려해야할 사항은 앞에서 설명한 물리적인 부대 규모와 속도에 의한 세(勢)에 심리적인 사기(士氣)가 부가되었을 경우에 함께 발휘되는 기세(氣勢)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물리적인 파괴력보다는 심리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전장에서의 군

41) 손무·국방부 編(1956), 전게서, pp.180-183.

대조직의 심리에 관심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의 병법의 '구지편(九地篇)' 에 위험한 처지에 빠진 병사들의 심리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풀러(J.F.C.Fuller)」의 〈마비전(痲痺戰)〉 이론

영국의 전략사상가인「풀러」는「손자」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그 스스로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 기계화부대에 의한 기동전교리를 창안하여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세계대전[42]의 정지적 성질은 보병기지로부터 지속적인 기동성을 전개할 수 없었다는 사실 때문…포병안정(artillery stability)으로부터 보병기동성을 전개할 수 없었으므로 참호전(塹壕戰) 혹은 요새전(要塞戰)이 지배적"[43]이라고 하여 전쟁에서 기동성이 상실되면 소모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략의 참된 목적은 물질적 파괴가 아니라 적측의 정신적 굴복인 것이다…통수(generalship)를 복귀시키기 위하여…정신적 공격(moral attack)에 의하여…수단은 고도로 기동적이어야 한다"[44]고 하면서 전략의 목적이 적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하여 그 수단은 전투에 의한 물리적 파괴보다도 기동성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도권을 개발해야 한다.

「풀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도권을 장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획은 통제의 상실이 없이 가장 높은 주도권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둘 것"[45]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동전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인데, "전쟁 개시에서 공군력의 유리점은…정찰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첩보의 우위는 선제권의 획득을 의미하며, 그 선제권을 얻을 때까지는 명백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46]이라고 하여 정

42) 여기서「풀러」가 말하는 세계대전은 그가 참전한 제1차 세계대전을 말함.
43) 강창구(1995), 전게서, p.191.
44) 상게서, pp.95-97.
45) 상게서, p.56.
46) 상게서, p.90.

보능력이 주도권장악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기계화부대의 기동형태가 적의 강점은 우회하고 적의 약점을 따라서 침투식 기동을 하기 때문에 적 후방 종심지역의 약점을 찾는 원거리 정찰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기계화 기병(騎兵)은 고립된 초소, 교량, 철도역, 비행장 및 사령부를 공격하기 위한 원거리 정찰활동에 필요"[47]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계화군의 작전속도가 빠르므로 정보의 획득 및 전파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기동속도로 적을 마비시켜야 한다.

「풀러」는 적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전략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전쟁에서 적의 조직을 와해 또는 붕괴시키기 위해 기동을 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기동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기동속도에 대하여

"기동성은 하나의 심리적 무기이다. 적을 죽이지 말고 단지 기동만 하라. 적을 죽이기 위해서 기동하는 것이 아니고, 적을 공포에 몰아넣고, 적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적을 미치게 하고, 적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기동하라. 기동으로 적의 후방을 의심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어라. 기동의 목적은 적의 지휘부 뿐만 아니라 적의 정부기능을 마비시키는데 있다. 마비상태는 직접 속도에 비례한다. 속도를 내어라, 속도를! 언제나 속도가 승리의 비결이었다!"[48]

라고 하여 적의 후방을 향하여 맹렬한 기동속도를 발휘함으로써 적의 정부기능과 적군을 마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그의 기동전 이론의 결정판인 〈마비전(Paralysis Warfare)〉 이론이 태동한 것이다. 그리하여,

"「캄브레(Cambrai)」에서, 전차의 유력한 가치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사기상의 효과였다. 파괴가 아닌 공포가 무장군의 진정한 목표이며 목적이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

47) 강창구(1995), 전게서, p.66.
48) 노양규(1989), "마비전 전략사상의 현대적 고찰(Ⅱ)",『군사평론 제 278호』, 대전 : 육군대학, pp.48-49.

다. 다시 말하면 군의 신경을 공격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신경을 통하여 지휘관의 의지를 공격하는 것이, 그의 병사들의 신체를 가루로 만드는 것보다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다. 항공기도…군의 의지를 공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의지와 국가의 의지를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49]

라고 하여 기계화군의 기동속도로써 적으로 하여금 공포를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시켜 군의 최고사령부와 정부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적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것은 압도적 타격이다.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목표는 분명히 지상과 공중에 있어서 동시적으로 그와 같은 타격을 가하는 일일 것" [50]이라고 하여 공군과 지상 기계화군의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전쟁에서의 "마비는 대치하고 있는 적대국 등 어느 일방의 전략적 행위로 인하여 상대 국가의 사고 또는 행동의 자유가 상실된 상태" [51]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풀러」는 공군과 기계화군의 합동작전으로 적 후방 종심으로 맹렬한 기동속도를 발휘하여 적의 사령관과 정부의 의지를 압도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적을 마비시키고 조직을 와해 또는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동속도는 시간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전시에 있어서는 시간이 인명보다도 더욱 귀중하다"[52], "적이 기동함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계획에 있어서 예비적인 행동방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많은 시간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군사행동에 있어서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이 모든 계획의 정신"[53]이 될 것이라고 하여 시간을 지배하는 군사작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3) 적의 전쟁수행 체계를 마비시켜야 한다.

전쟁에서 군대는 조직으로 싸우지 개인별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따라

---

49) 강창구(1995), 전게서, p.51.
50) 상게서, p.90.
51) 공군본부, 전게서, p.93. 한국어사전 편찬회에서 발행한 『한국어 사전』에 "마비는 어떤 사물의 기능이 정지되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일, 또한 그러한 현상의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음.
52) 강창구(1995), 전게서, p.263.
53) 상게서, pp.54-55.

서, 적의 조직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한다면 그 군대도 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풀러」는 공군과 전차를 중심으로 하는 기계화군이 발전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이러한 조직체계를 마비시킴으로써 적의 군대를 와해 또는 붕괴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그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착안한「후티어」전술경험을 다음과 같이 그의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다

"우리 병사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지휘부가 강타당하자 죽자 살자 뒤로 도망 쳤다. 나는 군사령부가 퇴각함으로써 그 다음 군단, 그 다음은 사단, 그리고 마지 막으로 여단이 퇴각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의지와 행동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았다. 그리고 의지없는 행동은 모든 협조를 상실함도 보았다. 즉 적극적으로 지휘하는 두뇌가 없으면 군(Army)은 오합지졸로 전락한다. 만약 이러한 아이디어를 혼 돈의 영역에서 꺼집어 낼 수 있거나, 학술상으로 소화함으로써 합리화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전술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전차군(戰車群)으로〈이수스(Issus)〉[54]와〈알베라(Arbela)〉[55]와 같은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적용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적의 야전 주력을 고착견제…알렉산더의 기병대는 적의 의지를 강타…신체로 집중시킨다. 한번 이 의지가 마비되면 신체는 관절이 없는 것처럼 허우적거리게 된다. 그것은 전투부대를 적의 지휘로부터 차단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힘의 근원을 국가의지(national will) 에 두고 있는 것처럼 군대는 그의 힘을 그의 지휘관과 참모의 의지(will)에 의존 한다. 따라서 그 의지가 차단되면 그 군대는 마비될 것이다."[56]

「풀러」는 이 아이디어를 개발 중인 중형전차와 결부하여 1918년 5월 "결정적 공격목표로서의 전략적 마비"[57]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채택되었고, 이를 근거로 영국군에서는 "PLAN 1919"를 수립하여 하달하였으나, 세계대전이 종전되었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PLAN 1919"의 수행개념을 도표로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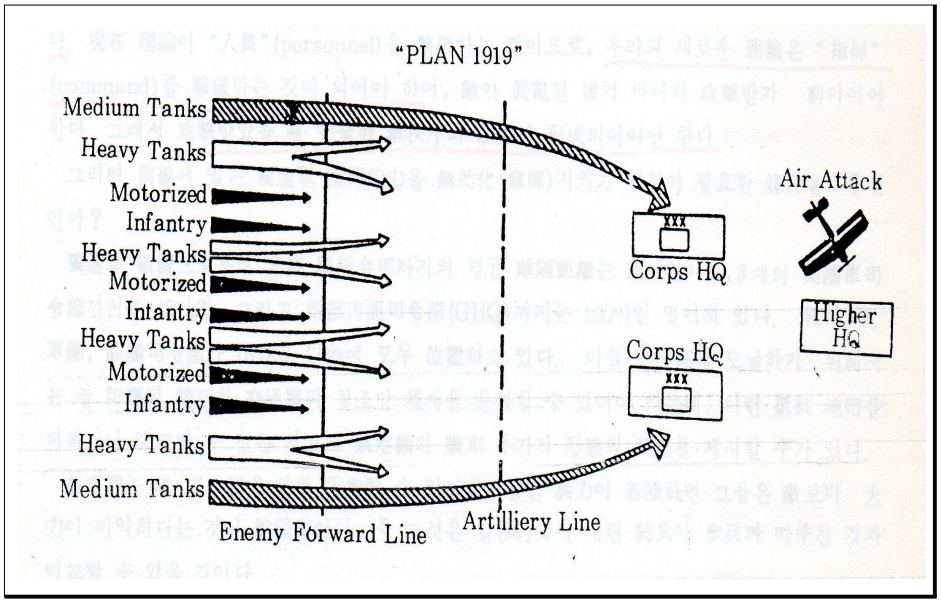
54) 〈이수스(Issus)〉 전투: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샤의 다리우스 간에 있었던 전투로서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우측면을 강타하여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였음.

55) 〈알베라(Arbela)〉 전투 : B.C 331년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샤의 다리우스 간에 있었던 전투로서 알렉산더는 기병으로 다리우스의 좌중앙을 돌파하고, 적의 우측익을 포위하여 후방에서 타격함으로써 결정적 승리를 달성함.

56) 노양규(1989), "마비전 전략사상의 현대적 고찰(Ⅰ)",『군사평론 제277호』, 대전 : 육군대학, pp.36-37.

57) 상게논문, p.37.

[그림 2-1] 결정적 공격목표로서의 전략적 마비: PLAN 1919



* 출처 : 노양규(1989), 전게논문, p.38.

위의 그림을 보면 중형 전차부대가 고속으로 침투 기동하여 적의 군단 및 군급 사령부를 강타하고 그 이상의 제대 사령부는 항공기가 타격하여 적의 신경중추인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풀러」는 적의 지휘체계 외에도 적의 군수지원체계를 마비시키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그는 전차가 야지횡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을 기아로 굴복시킬 수만 있다면 그의 목적은 더욱 확실하고, 수단은 훨씬 적은 희생으로 될 것이다. 기아는 식량의 결핍보다 개솔린(gasolin)의 결핍을 의미한다. 적의 병참지역에 대하여 동력게릴라가 행하는 문식공격(蚊式攻擊, mosquito attack)이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될 것이다."[58]

라고 하여 기계화부대의 적 후방 종심기동으로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동력화 게릴라가 적의 보급을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군수지원체제를 마비시켜 적 장비의 기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8) 강창구(1995), 전게서, pp.171-172.

4) 기습으로 적을 마비시켜야 한다.

「풀러」는 시대가 변하여도 항구적인 것은 전쟁의 원칙인데, 동력화와 기계화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쟁의 원칙을 변화된 조건에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였다. 이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주요한 조건 기동과 방호 즉, 속도와 장갑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쟁원칙 적용 경우에 관하여

"양측이 부분적으로 기계화되었을 때…기계화병력은 적의 측면 혹은 후방에 대하여 기습을 시도해야 한다. 양측이 충분히 기계화되었을 때에는 목표물에 대한 기습, 기동성 그리고 집중 등이 지배적인 원칙이 되며…기습이 매우 중요하게 되며, 따라서 제공권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59]

라고 하여 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습을 통하여 그는 적의 의지를 공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군사이론가인「심킨」은「풀러」가 정신적인 기습과 물리적인 기습을 강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손자」가 기습에서 주장한 '불의(不意)'와 '무비(無備)'의 내용과 동일한 개념이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5) 적의 조직심리를 마비시켜라.

「풀러」는 기계화군의 물리적인 공격이 적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도록 적의 조직심리를 마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일반시민의 의지를 공격하기 위한 항공기의 힘, 군의 의지를 공격하기 위한 기계화군의 힘, 그리고 동요와 혼란을 확대시키기 위한 동력화 게릴라의 힘 등을 생각할 때, 일차 세계대전 중에 절정에 달했던 물질적 파괴력은 여러 가지 형태 로 적의 의지를 약화시키며, 따라서 적군을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적의 국민을 무력하게 하는 시도와 점점 크게 대치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60]

고 하여 미래의 전쟁이 물질적 파괴보다는 적의 의지를 목표로 적의 군대

59) 강창구(1995), 전게서, p.59.
60) 상게서, pp.51-52.

조직의 심리를 지향할 것임을 예견하였다.

또한 그는 "정신적 공격은 그 주요성이 높아지며, 그 목적은 파괴를 통하기 보다도 사기저하를 통하여, 혼란 (disorganization)을 가져오게 하는데 있을 것"[61]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전쟁은 사기를 목표로 하여 적의 의지를 굴복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전차의 야간공격은 심리적인 효과가 더욱 크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풀러」의〈마비전〉이론은 주도권을 장악하고, 기동속도와 기습 그리고 조직체계의 마비를 통하여 적의 군대조직의 심리를 마비시켜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적군의 조직을 와해 또는 붕괴시키고 적의 사령관과 정부의 의지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전쟁수행방법인 것이다.

결과적으로「풀러」는 적에 대하여 유혈전투를 통한 물리적 파괴와 소모를 회피하고 정신적으로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손자」의 '부전승(不戰勝)' 병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주도권 장악, 정보능력, 기동속도와 전장심리의 상호관계, 단기전을 주장하는 면에서도「손자」와 거의 같은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의 주장은 기동성이라는 수단과 내연기관의 발달에 따라 전차와 항공기 등 새로운 무기가 발전됨으로써, 이들을 장비한 동력화 게릴라와 기계화된 군이 가공할 기동속도를 발휘함으로써 적을 혼란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군대조직의 심리를 마비시켜 적의 사령관과 정부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구데리안(Heinz Guderian)」의 〈전격전(Blitzkrieg)〉이론

독일의〈전격전〉이론에서 승리로 이끄는 요소는 주도권 장악, 기습, 속도, 우세의 4가지이다. 〈전격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헌에는 3S로 표현하여 기습(Surprise), 속도(Speed), 우세(Superiority)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전통적인 임무형 지휘의 핵심요소가 지휘의 분권화를 통하여 지휘관의 창의적인 작전개념을 적보다 먼저 실행에 옮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61) 강창구(1995), 전게서, p.99.

있으므로, 주도권의 장악은 독일군이 전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요소이다.

1) 주도권 장악은 독일군의 전통적인 특성이다.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은 독일군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독일은 주변의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자국이 항상 열세군이라는 입장에서 전쟁에 임하므로 주도권마저 빼앗긴다면 승산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독일군은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소모전보다 기동전을 선호하였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기동이 상실되면 소모전으로 변하기 때문에, 열세군인 독일군이 소모전에 빠져들면 전혀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이 비록 열세군이지만 신속한 기동력으로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상대적인 우세를 획득하고 전쟁을 주도하여 단기간 내에 승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군의 주도권의 개념은 전쟁 전반의 주도권은 물론이고, 소부대의 지휘자에게 까지도 지휘의 분권화를 통한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대에서 자주성이란 전시에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에 맞는 결심을 수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실행에 옮기는 자질이다. 하급 명령권자들의 독자적인 결심수립과 그 실행은 하달된 명령 또는 임무의 범주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62]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만쉬타인(Manstein)」장군의 회고록에 독·소전쟁시 남부 러시아에 투입되었던 독일군이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면, "그 이유는 집단군 지휘부가 아래와 같은 독일의 확고한 지휘기본원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기동성 있게 작전을 지휘하라', '모든 계급의 지휘관들에게 주도권과 자주성 영역을 부여하라'"[63]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주도권 장악은 독일군이 전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며, 이는 〈전격전〉 이론에서도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2) 기습달성은 전세를 역전시킨다.

62) 박정이 譯(1997), 『임무형 전술의 어제와 오늘』, 서울 : 백암, p.15.
63) 상게서, p.22.

전략적 기습은 주로 공자가 방자를 특정 전선에서 공격할 때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투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기동과 집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새로운 무기나 교리를 채택함으로써 달성된다. 1940년 5월에 있었던 세당에서의 기습은 전차의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아르덴느〉 삼림지대를 통과한 기동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또한 제 1차 세계대전에서와 같이 소모전 이론에 집착한 영·불 연합군에 대하여 〈전격전〉 이론에 입각한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교리적인 기습을 달성하였다. 독일군은 이렇게 전략적 기습을 달성하여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키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3) 속도는 집중과 기습달성 및 기세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동속도는 시간적 집중을 가능하게 하여 상대적인 우세를 획득하게 하고, 이 집중이 적의 약점에 지향되어 순식간에 이루어지므로 기습을 달성하게 해주며, 이러한 집중과 기습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속도로서 기세를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기습이 속도에 의해 후속되어 지지 않으면 방자는 부대를 집결하고 진지를 재편성할 시간을 얻는다. 즉 적에게 최초의 충격에서 깨어날 시간적 여유를 주면 기습은 실패하는 것이다.

또한 공격부대가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집중하여 물밀듯이 방어부대를 압도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 우세한 기계화군의 기동 및 기습을 보장하는 속도에 의해 방자의 대응책들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군에서는 수학 공식적 전투수행사고가 지배하였다. 그들은 신속한 전투수행 속도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개전 후 6주 만에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64]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격전〉 은 속도전이라고 할 만큼 속도는 집중과 기습 및 공격기세를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요소인 것이다.

4) 상대적인 우세를 획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

64) 김상철 譯(2001), 『기동전 대해부』, 대전 : 문경출판사, pp.318-319.

독일군이 말하는 우세는 병력의 우세만이 아니라 전력의 우세를 의미한다. 이러한 우세는 전장에서 화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물자의 우세를 포함한다. 무기 및 장비, 연료와 탄약, 그리고 다른 물자의 우세도 작전 전반에 걸쳐서 보장되어야 한다. 방자의 전투의지는 막대하고 명백한 공자의 우세에 의해 말살된다. 그리고 이 우세 없이는 기동은 어려워지고 기세의 유지도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우세는 집중에 의해 달성된다.

수적으로 열세한 독일군 전차들은 10개의 기갑사단으로 통합 편성되었고 그 중 7개 사단이 스당과 디낭 일대에 집중 운용되어 작전술 차원의 중점을 형성했다. 이는 "「구데리안」의 명언인 '집중하라, 분산하지 말라!'라는 기본원칙에 의한 조치였다"[65]라고 하여 전략적 열세를 결정적 작전에 대한 작전적 우세를 획득하여 집중을 달성한 것이다.

독일군은 좁은 정면에 압도적인 전력을 집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뮤즈강의 결정적 지점에서 세 부대 정면의 넓이는 1차 대전의 어떠한 결정적 공격정면보다도 극히 좁은 19km였다…이러한 전진으로 독일군은 이곳에서 압도적 병력의 우세를 달성하였다"[66]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압도적 우세는 신속한 기동성에 의해 뒷받침되는 시간적 집중에 의한 우세의 확보이다. 즉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공자의 신축성 있는 '시간상의 집중'은 양공에 의해 기습을 보장한다"[67]라고 하여 독일군의 집중이 기동성에 의한 시간적 집중임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의 우위를 보장하는 번개와 같은 신속한 집중은 내연기관의 사용, 신중한 부대사용, 그리고 양호한 행군군기에 의해 달성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집중은 적의 강점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적의 약점에 대한 집중이 진정한 집중이다. "약점의 탐색과 이에 대한 집중은 세계 전략적 차원과 소규모의 전술작전에 있어서의 독일군 현대 전쟁 수행방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68]라고 하여 집중을 통한 우세의 명확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

65) 진중근(2007), 전게서, pp.524-.525.
66) 이승호 譯(1995),『전격전의 원리 연구』,광주 : 진홍, pp.48-49.
67) 상게서, p.67.
68) 상게서, pp.54-55.

5) 기세로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계속 적을 압도하여야 한다.

〈전격전〉은 단순한 속도와 집중을 통한 우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적이 숨돌릴 겨를이 없도록 계속 몰아 부쳐서 단숨에 적을 굴복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기세를 끝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치열한 전쟁—이것이 바로 전격전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었다… 주야로 기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69]라고 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은 독일 공군에 의한 화력과 항공수송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보급되는 기갑군의 멈출 줄 모르는 돌진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독일군의 공격기세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돌입(irruption)과 중심(schwerpunkt) 및 확장(aufrollen)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중심(schwerpunkt)은 전투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형성된 국지적 우세를 의미한다. 중심의 이동은 국지적 우세를 이용하여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실시되는 부단한 약점의 탐색이다. 이는 전투의 가장 미세한 부분에서 조차 실시되는 최초의 주도권, 우세, 기습을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이동이다."[70]

위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독일군의 중심의 의미는 '집중으로 획득된 우세의 부단한 이동과 연속'이라는 개념으로서「손자」가 병법에서 말하는 병형상수(兵形象水)의 의미와 같다고 할 것이다. 즉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지형에 따라 흐름에 막힘이 발생하면 또 다른 낮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 내려가는 형상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물의 흐름에 정해진 방향과 모양이 없듯이 군사작전도 적의 약점을 찾아서 계속하여 방향을 바꾸고, 대형도 바꿔가며 집중과 우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적의 약점으로 돌입하여 우세를 획득하고, 계속하여 적의 약점을 찾아 집중하고 방향을 바꿔가며 우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서, 이러한 우세를 확장하기 위해 최초 돌파된 지점을 통하여 측·후방으로 공격하여 돌파구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격기세는 기동속도를 발휘하여 이러한

69) 이승호(1999), 전게서, p.424.
70) 이승호(1995), 전게서, p.56.

집중과 우세 및 최초 기습의 효과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개념인 것이다.

6) 적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켜라.

〈전격전〉 은 적 후방종심으로 맹진함으로써 적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리고, 이와 함께 전차의 공포심을 확대시켜 적의 사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공황상태로 이끌어 간다.

"전차는 방어체계를 와해시킨다. 그 주 효과는 사기에 작용한다. 예를들어 '전차 공포심'에 의해 국지적 효과를 달성하면 전차는 신속히 돌진하여 방어부대의 대규모 병력을 기습하고 그들이 방어준비가 되기 전에 재차 돌진한다. 그러나 대규모의 심리적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이 효과는 전차가 방어진지의 상당 부분을 통과한 후 보병이 침투해 들어와 적 진지 후방에 나타났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공황이 발생한다"[71]

적의 방어체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와 관련하여 『구데리안』 장군은 " 이제 모든 것은 여태까지 행해졌던 것보다 더 신속하게 기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적의 새로운 방어진지 형성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 방어진지로 깊숙히 공격을 수행하는 것에 달려 있게 되었다."[72]라고 그의 저서에 기록하여, 〈전격전〉 이 처음부터 기동속도로써 적의 방어진지 형성 이전에 돌파하고, 적의 대규모 역습과 공세행동 및 병참선을 차단하여 전체적인 방어체계 와해를 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적의 후방으로 종심 깊은 기동이 적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해결책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기와 사기에서 비롯되는 주도권이다"[73]라고 하여 기동속도로 적에게 공포와 혼란 및 사기저하로 이끌어 공황상태로 몰아 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구데리안」 장군 조차 〈전격전〉 의 심리적인 효과가 그렇게 획기적일 줄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세당(Sedan)〉 에서 도하한 후 당시의 전황에 대하

---

71) 이승호(1995), 전게서, p.112.
72) 김정오 譯(1990), 『기계화 부대장』, 서울: 한원사, p.80.
73) 이승호(1995), 전게서, p.161.

여 기적이라고 하며 그 스스로도 놀랐다는 것이다.

4.「리델하트」의 〈간접접근전략(間接接近戰略)〉 이론

「리델하트」는 그의 〈간접접근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동과 집중 및 기습 그리고 조직심리의 효과를 상호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략이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하여 유혈전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전략은 적의 저항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적인 최소예기선과 물리적인 최소저항선을 따라 간접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적을 마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최소 예기·저항선을 지향하는 기동으로 적을 교란시켜라.

전략의 목적은 적의 저항의 가능성을 소멸하는 것이며,

"전략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운동」및「기습」의 요소를 이용한다. 운동은 물질적 분야에 속하고 시간, 지세, 수송력이라는 제 조건에 대한 계산에 의거한다. 기습은 심리적 분야에 속하고 물질적 분야보다도 훨씬 곤란한 계산인 각각의 경우에 따라 변화하고 적의 의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다종다양한 제 조건의 계산에 의거한다."[74]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상호작용하여 운동은 기습을 발생시키고, 또 기습은 운동에 대하여 기세를 제공한다.

또한 적의 정면에 대하여 직진하는 운동은 적의 심리적 균형과 물리적 균형을 굳히는 것이어서 적의 저항력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군의 수뇌부는 그 배후에 대한 여하한 위협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분적 전략전진으로 최소예기선과 최소저항선을 지향하면서 대용목표(代用目標)[75]를 노리는 작전선으로 기동하여 적을 교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74) 강창구(1978), 전게서, p.355.

75) 하나를 버렸을 경우에 또 다른 것을 취할 수 있는 예비목표가 병존할 때 적을 견제하기가 용이하다는 Alternative Object를 의미함 (상게서, p.362.)

2) 기습으로 적을 심리적으로 교란시켜라.

기습은 심리적 영향이 큰 요소로서 기동에 기세를 제공하면서, 적의 대항수단과 대항운동을 봉쇄함으로써 아군의 운동의 진로를 원활화한다. 기습은 심리적 교란과 직결된다. 즉 심리적 교란은 적의 사령관이 "「불의(不意)에 불리한 위치에 몰렸다」는 인식"[76]에서 출발하게 되므로, 기습은 적의 사령관의 심리를 교란시킨다. 기습은 적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것이므로 적의 사령관 뿐만 아니라 적 장병들의 사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 전쟁의 원칙 중 단 한 가지는 집중의 원칙이다.

「리델하트」는 전쟁의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압축하면 「집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약점에 대한 힘의 집중」이라는 식으로 부연해야 한다…우리 측의 분산, 적의 분산, 우리 측의 집중 — 이것들은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결과로 나타난다. 진정한 집중은 계산된 분산이 가져다 주는 결실이다."[77]라고 하여 「손자」가 병법에서 기술한 집중의 개념을 그대로 자신의 이론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집중이 실패하는 것은 적의 대응전력을 집중할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그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동과 집중이 유연성을 가지도록 예비계획과 예비목표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전쟁에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4) 적의 방어체계를 마비시켜라.

「리델하트」의 마비에 관한 이론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 장의 제1절 5항 25)번 인용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떤 지역에 침투하여 지배함으로써 적의 행동을 마비시키는 것과,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여 물리적, 심리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적의 병참선을 가능한 한 먼 후방에서 차단함으로써 보다 큰 성공

---

76) 강창구(1978), 전게서, pp.358-359.
77) 상게서, pp.366-367.

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적 병력의 후방 가까이에 가하는 타격은 적 병원의 심리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적 병력의 깊은 후방에 가하는 타격은 적 사령관의 심리에 대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78]라고 하고 있다. 실제로 앞의 〈전격전〉에서 「구데리안」 장군이 지휘하는 기갑부대가 연합군의 병참선을 차단하여 파멸적인 마비상태에 빠지게 했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적의 어떤 지역을 지배하여 적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나, 병참선을 차단하는 것이 모두 적의 방어체계를 마비시키는 작전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마비상태는 적의 조직붕괴(組織崩壞) 및 정신면에서의 조직붕괴와 동등한 것인 사기붕괴(士氣崩壞)에 의하여 발생된다."[79]라고 하여 전쟁에서의 군대조직의 심리의 영향과 변화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리델하트」는 최소저항선과 최소예기선을 따라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적 기동으로 적을 교란하여 사기를 붕괴시킴으로써 적의 조직을 붕괴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전쟁에서 유혈 전투에 의한 소모보다 기동을 수단으로 적의 후방으로 종심깊이 진출하여 적의 사령관을 심리적으로 교란시키고, 적 병력의 사기를 붕괴시켜 유혈 전투를 최소화하면서 승리하는 전략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전략적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기술된 내용이 대부분으로「풀러」의 〈마비전〉이론이나「구데리안」의 〈전격전〉이론처럼 구체화되지 못한 분야가 있으며, 또 실제 그의 이론은「손자」,「풀러」,「구데리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 3 절 선행 연구자의 연구내용

이 절에서는 기동전의 핵심요소와 원리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최근에 기동전 이론

78) 강창구(1978), 전게서, p.364.
79) 상게서, p.369.

에 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한「심킨」,「레오나드」,「보이드」,「후커」 등 군사이론가의 이론과, 선행 연구논문에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와 원리에 관한 연구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1.「심킨(Richard E. Simpkin」의 이론

「심킨」은 기동전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앞 절에서 고찰한「손자」,「풀러」,「구데리안」,「리델.하트」등 주요 전략사상가들이 창시한 기동전수행 관련 이론들의 주요 핵심요소의 원리를 연구하는데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그는 이 핵심요소들의 원리에 관하여 물리학적 근거로써 해석하고 증명하였으며, 현대 각국의 군사력건설 추세를 고려하여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기동전수행에 필요한 군 구조와 편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심킨」은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에 관해서는 주도권 장악과 속도 및 기습의 요소에 대하여 원리를 연구하였다.

1)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는 주도권 장악이다.

그는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자는 전투 초기에 적과의 전력비가 5:1~6: 1의 합리적 한계 내에 있었을 때 주도권을 장악하여 승리하였다고 한다. 즉, "대다수의 전투에서 승자는 보통 초기의 전력비가 '합리적인 한계' 이내에 있었고…적으로부터 주도권을 탈취하여 전투가 끝날 때까지 유지했다…주도권은 대부분 기동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탈취되고 유지되었다."[80] 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선제는 순수 기동이론의 적용을 대표"[81]한다고 하면서, 소모전 이론은 선제를 위해 소모론자에게 조차 전투가 무의미하게 보이도록 전투력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데 의존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전쟁 초기에 적과의 전력비가 약 6:1 이내의 합리적 범위일 경우에는 비록 열세한 전력을 가지고서도 선제로 주도권을 장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80) 연제욱(1999), 전게서, p.머리말1.
81) 상게서, p.204.

2) 기습으로 적과의 전력비를 역전시켜라.

「심킨」은 최초 기습으로 적과의 전력비를 역전시켜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진정한 성공은 선제 또는 최초 기습으로 결정을 달성"[82]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기동전은 가능하다면 선제를, 불가능하다면 결정적인 기습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선제와 기습이 실패하면 전투가 발생하고, 전투가 일단 개시되면 소모전 이론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의 영향은 기습의 영역을 증가시키므로 신속한 궤도차량과 회전익 항공기에 의해 가능해진 템포는 작전적 및 전술적 기습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그리하여, 헬기 탑승부대 또는 잠수 항공모함에 탑재된 수륙양용 경기계화부대는 상당기간 전략적 기습을 위한 잠재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보았다. 또한 만일 한 국가가 개전할 만한 사유에 직면했지만 평시 태세에서 상대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못하거나 적대행위를 선제할 정도로 충분한 기동성이 없을 경우, 비밀리에 집결하고 전개하는 소규모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고속템포 및 전략적 기습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습을 달성하면 적에게 충격에 의한 마비를 일으키는데 충격에 의한 마비는 자연히 어떠한 최소질량의 충격을 요구"[83]한다고 하며, 마비효과의 지속을 위해 충분질량과 지속적인 위협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규모의 특수부대와 예비역량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주 작전에 선행하는 적극적인 기만에 의해서 정신적 기습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3) 소수정예부대의 속도를 배가(倍加)시켜라.

「심킨」은 기동전의 중심사고는 기동성을 갖추고 속도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독일제국 군대 지도자들의 사고에 대하여

"그들의 중심사고는 기동성을 갖추고 질적 수준이 높은 소규모 부대에게 나머지 부대보

82) 연제욱(1999), 전게서, p.81.
83) 상게서, p.347.

다 높은 '10의 배수 속도범위'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작은 규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부대의 전투가치는 기병의 접근방식인 기습과 '실시의 속도'에 있기 때문이다. 이 부대는 전략적 혹은 작전적 기습을 적용하여 전투를 회피하면서 적 예비대 위치보다 훨씬 종심깊이 돌파한다. 이러한 종심돌파는 적 부대를 물리적으로 와해하고 적 지휘관을 심리적으로 붕괴시킨다"[84]

라고 하며, 기동속도로 수적 열세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 속도와 전력발휘의 관계를 물리학의 원리로 해석하여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부대의 물리적 기동가치를 표시하고 운동량은 질량X속도 또는 지레작용의 변화율을 의미" [85]한다고 하면서, 질량 즉 부대규모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결국 운동량을 증대 시키려면 속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심킨」은 기동전수행에 물리학의 지레작용과 상대속도 및 템포의 개념을 적용하여 기동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 즉 지레작용에 있어서 받침점과 지레의 길이와의 관계를 적용하여 지레가 길어질수록 받침점을 튼튼하게 하듯이, 기동부대가 적의 후방 종심으로 더 멀리 진격할 경우에는 돌파구를 확장하고, 돌파구의 견부를 견고하게 확보하며, 후속지원부대가 신속하게 전진하여 기동부대가 역포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견제부대가 고착 및 견제 당하는 적보다 진격속도가 빨라야 하며, 기동부대는 견제부대에 비하여 2-3배의 빠른 속도로 종심 기동하여야 기동전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작전의 템포를 증가시키기 위해 준비템포와 실시템포를 증가시키되 실시템포를 저하시키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적의 정부와 사령관의 의지를 무너뜨려라.

「심킨」은 기동전에서 피·아간에 심리적인 지레작용을 하는 것은 정부와 사령관의 의지라고 하면서, 적의 의지를 무너뜨리면 적의 조직이 붕괴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수부대가 전략적 기습을 달성하면 "선두부대가 투입되기 이전에 내각에서 상급 작전사령부까지 모

84) 연제욱(1999), 전게서, p.97.
85) 상게서, p.201.

든 제대의 적을 마비시킬 수 있다. 정부를 마비시키면 저항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86]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앞의 "3)" 항 인용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적 후방으로 지향되는 종심기동은 적 부대를 물리적으로 와해하고 적 지휘관을 심리적으로 붕괴시킨다고 한다. 여기서 특별히 용어 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소모전에서는 전투를 통하여 적을 '섬멸(annihilation)' 또는 '격멸(distruction)'한다고 하지만, 기동전에서는 적 조직의 '와해(disruption)' 또는 '붕괴(dislocation)' 라는 용어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다.「심킨」은 이와 같이 기동속도와 기습을 통하여 적을 마비시켜 적의 군대조직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레오나드(Richard. Leonard)」의 이론

「레오나드」도「심킨」과 같이 새로운 이론을 창시하기보다 기존의 기동전 이론상의 핵심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과 논리를 제시하여 보완하였다. 그리고「심킨」의 연구사항을 보완하여 물리학적인 원리의 탐구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분야의 연구를 추가하여 이론을 보강하였다.

「레오나드」는 기동전의 핵심요소에 전격전의 3가지 특징인 기습, 속도, 집중을 그대로 언급하고, 추가로 기세와 체계마비 및 군대조직의 심리적 마비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레오나드」는 기동전 사고에 세 가지 특징적인 수단 즉, 선제기습, 강점회피, 중심(重心)타격이 있다고 하며 나름대로 기동전 수행의 요결을 설명하고 있다.

1) 기동속도는 소모전이론과 차별되는 핵심요소이다.

「레오나드」는 기동의 가치는 소모전 이론과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라고 하면서, "기동전 이론에서 기동은 전쟁의 핵심요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의 물리학과 전쟁의 심리학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87]이라 하고, 또 이러한 기동이 적 중심을 향해서 속도를 발휘해야만

---

86) 연제욱(1999), 전게서, p.129.

적 지휘관과 부대에 심리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승리의 열쇠는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기동을 통한 신속한 적 무력화에 있으며, 이는 바로 전투력운용의 이분법 즉, 정공법과 기공법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여「손자」의 '기정지변(奇正之變)'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는 기동의 생명은 속도이며, "속도는 작전술에 있어서 핵심요소이다… 칭기스칸은 수의 열세를 속도우위로 보완할 수 있었고…적에 대해서 심리적인 충격을 안겨줄 수 있었다…칭기스칸의 공격기세유지의 핵심은 병력의 '수'가 아니라 '속도'" [88]였다고 분석하고, 속도가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휘통제는 군사작전의 가속도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며 물리학의 가속도 이론을 접목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기동속도가 결국 시간의 문제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간은 아마 기동전 이론과 소모전 이론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기동전은 시간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싸움" [89]이라고 한다. 이런 시간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싸움은 현대전에서 훨씬 더 절박하므로, 오늘날 지휘관은 전쟁에서의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시간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능력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적의 '결정적인 약점'을 중심으로 보고,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

「레오나드」는 집중이라는 개념보다는 '강점회피(dislocation)'와 '중심타격(disrup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강점회피(dislocation)란 적의 강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전법이다. 강점회피는 아군이 적의 의도에 따라 교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모든 전투를 회피하는 것"[90]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치상(positional)의 강점회피' 및 '기능상(functional)의 강점회피'로 구분하고, '위치상의 강점회피' 방식은 결정적인

87) 김상철(2001), 전게서, pp.150-151.
88) 상게서, p.76.
89) 상게서, pp.141-142.
90) 상게서, p.117.

지점으로부터 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아니면 적 부대로부터 결정적인 지점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능상의 강점회피'는 적의 강점을 단순히 무력화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는 또 '중심타격(disruption)'이란 적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을 타격하여 승리를 구하는 전법으로서, "중심이란 적의 결정적인 취약점(critical vulnerability)을 의미한다. 이 때 적의 입장에서 중심이 무력화되거나 파괴되면 부대는 마비(paralyse)된다"[91]고 하며, 따라서 중심타격은 정면공격으로 적의 물리적 요소를 타격하지 않고, 적의 '아킬레스 건'을 찾아서 타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개념은 전격전의 특성 중 집중 또는 우세의 내용을 자신의 독창적인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선제기습은 기동전 이론의 가장 강력한 표현의 수단이다.

「레오나드」는 지휘관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 경우, 선제기습은 가장 경제적인 승리의 수단이고,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그 특징으로 하며, 선제기습은 적의 의표를 찔러 비신사적으로 승리를 낚아 채려는 전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선제기습은 적과의 직접적인 전투를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선제기습은 시간의 가치를 중시하며, 신속하고 대담한 결정으로 승리를 추구한다……하지만 선제기습을 제대로 실시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기동전 이론의 가장 강력한 표현의 수단"[92]이라고 강조하면서, 아군이 기습공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는 엄청나며, 이것이 바로 기동전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한다. 따라서 기동전 이론은 적의 사고를 목표로 하고, 전쟁에서 심리적인 차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공격기세는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이다.

「레오나드」는 "공격기세는 질량과 속도의 산물이다. 이것은 매우 유용한 비유이며 기동전 이론의 핵심적인 요소"[93]라고 하며, '공격기세=질량

91) 김상철(2001), 전게서, p.128.
92) 상게서, p.117.

×속도'라는 공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전장의 충격효과는 적 방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속도를 발휘할 수 있는 질량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공격기세를 유지하려면 공격부대의 규모도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적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공격속도가 필수적이라 한다.

또한 "기세(장시간 동안의 속도)는 물리학과 전쟁에서 모두 벡터 요소이다. 즉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기세를 중시하는 군대는 특정 지점이나 목표를 선정해 무자비한 속도로 전진"[94]한다고 하여 기세가 속도와 방향성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5) 기동전은 적의 조직체계를 마비시키는 전법이다.

그는 또한 "기동전은 적 체계를 아군의 '상이한 체계'로 마비시키는 전법"[95]이라고 하며, 이는 제병협동작전 이론에 따라 적의 조직체계를 아군의 다른 체계와 방법으로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적의 방어체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지휘통제체계를 비롯한 각종 전장기능체계를 마비시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6) 적 군대조직의 심리를 마비시켜야 한다.

「레오나드」는 전쟁이란 인간들 간의 결투로서, 인간심리를 연구하는 것은 기동전 이론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전쟁은 '심리학'의 한 분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장체계에 작용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심리이다. 그러나 군사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요소도 바로 무형적인 요소 즉 인간의 정신적인 요소이다.

그는 또한 "기동전은 적 사고체계를 타격하기 위해서 심리적 중심으로 속도를 지향"[96]하게 된다고 하여 기동속도가 적의 군대조직의 심리를 타

---

93) 김상철(2001), 전게서, p.144.
94) 이승호(1999), 전게서, p.50. 리처드 D.후커가 편저한 이 책에서 Leonhard 가 한 명의 논자로서 주장한 내용임.
95) 김상철(2001), 전게서, p.180.
96) 상게서, p.142.

격하는 심리적 무기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타격은 전쟁의 무형적인 요소 즉, 심리, 사기, 당황, 공포 등을 최대한 이용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군 조직은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간들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심타격의 목표는 적이 계속 싸우고자 하는 전의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전쟁의 심리적인 특성 때문에 중심타격은 승리의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고 역설 한다.

그는 또한 기동전은 인간의 심리적 강·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하며, 따라서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사고'를 주요 표적으로 삼아야 하고, 적의 물리력에 대한 공격은 적의 사고체계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한다. 적의 심리적 취약점에 대한 공격은 적 지휘관 및 부대에 패배감을 안겨주는 데 중점을 두며, 흔히 적 후방 기동은 이러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오나드」는 "전쟁은 하나의 심리적 대결장으로서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전장의 사기를 핵심"[97]으로 한다고 하며, 기동은 본질적으로 적의 심리적 중심을 지향할 때 그 가치가 발휘되고, 따라서 기동속도는 적의 사기를 목표로 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와 같이「레오나드」는 전격전의 3대 특성에 물리학적, 심리학적 원리를 연구하여 자신의 논리에 따라 선제기습, 강점회피, 중심타격이라는 요소로 해석하고 있다.

3.「보이드(John Boyd)」의 OODA 주기 이론

「보이드」는 전쟁에서 전투 진행의 주기시간(cycle time)을 단축하는 지휘역량을 발휘하여 적과의 시간경쟁에서 이김으로써 적의 조직심리를 마비시켜 승리를 쟁취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보이드」는 공중과 지상의 전투를 종합하면서 "마찰이 관측(Observing)—판단(Orienting)—결심(Deciding)—행동(Acting)의 시간경쟁 사이클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98]고 하면서, 이 '보이드 사이클'에서 계속 빠르게

97) 김상철(2001), 전게서, p.133.
98) 이승호(1999), 전게서, p.9.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이점을 갖게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적이 행동하는 시간에는 아군의 행동이 상황을 이미 변화시켰고, 그 때문에 적의 조치는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기가 반복될수록 적이 따라 잡지 못하는 시간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고, 결국 적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인식하게 되며, 자신의 어떠한 조치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순간 적은 공황에 빠지거나 도주하고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적은 더 이상 전체적인 조직으로 전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레오나드」는 공격력의 효과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휘관이 부대의 질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부대의 가속도를 증가 시키는 데 주안을 두게 된다. 즉, '보이드 주기'를 통해 참모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휘관은 자신의 가속도를 추가하여 공격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보이드」는 전투에 미치는 시간의 영향을 최대로 이용하여 적의 조직심리를 마비시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후커(Richard D. Hooker)」의 이론

「후커」는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독일군과 이스라엘군의 경험에서 속도, 템포, 집중, 주도권이 승리의 핵심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는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직면하였을 때 지적, 도덕적 활력으로써 수적 열세를 극복하려는 전쟁교리를 개발한 프러시아, 독일, 이스라엘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그들은 속도, 템포, 집중, 주도권이 승리를 얻는데 이용될 수 있는 조건"[99]이라고 기술하였다.

1) 주도권은 전쟁의 특성으로 인하여 중요하다.

주도권의 중요성은 전쟁의 기본 특성에서 직접 발생된다. 전쟁은 불확실, 마찰, 그리고 종종 혼돈의 영역으로서 위험과 죽음의 공포에 대응하

99) 이승호(1999), 전게서, p.89.

는 절대적인 의지와 이성사이의 경쟁이다. 관리자와 같은 계획수립과 신중한 실행으로는 이런 전장 환경을 헤쳐 나갈 수 없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빈발할 때 항상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는 자들은 패배할 것이며, 적보다 더 빠르게 행동하는 부대가 승리할 것이라고 한다. 임무형 전술은 주도권을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2) 기동전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속도이다.

전장의 불확실성과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적보다 빠르면 되는 것이다. 기동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속도이다"[100] 라고 하여 기동전 승리의 요소가 속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였다. 작전술이 적의 전략적 중심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전투를 실시함으로써 전투는 최소화되고 속도는 증가한다. 또한 기동전의 또 다른 핵심개념인 "임무형 전술(mission tactics)"에 의해 속도가 발휘될 수 있으며, '보이드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때에 시간이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되었다. "충분한 계획수립 시간" 이라는 용어는 독일 국방군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기동전의 가장 중심원칙이 집중이다.

「린드」는 기동전의 중심원칙에 속도의 원칙 외에 "다른 원칙이 있다. 그것은 집중이다. 이것은 기동전 개념의 가장 중앙에 놓여 있는 중심(schwerpunkt) 또는 노력의 초점(focus of effort)이 그것"[101]이라고 강조한다. 지휘관이 중심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그는 결정적이라 생각되는 작전을 선택하여 압도적인 전투력을 집중한다. 이것이 기동전을 연습한 소규모 부대가 그렇지 못한 대부대를 격파하는 주된 이유라고 한다. 그리하여 결

---

100) 이승호(1999), 전게서, p.8. 리처드 D.후커가 편저한 이 책에서 William S. Lind 가 주장한 내용임. Lind는 워싱턴 D.C에 있는 자유의회협회의 문화보수주의 연구소의 원장임. 상원의원의 입법보좌관도 역임함.

101) 상게서, p.14. 이 내용도 또한 William S. Lind 가 주장한 것임.

정적 시기와 장소에서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지점에서의 위험을 감수한다고 한다.

4) 기습으로 적의 사고를 마비시켜라.

「그로스만」은 기습으로 적의 사고를 마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상치 않은,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공격은 적응하려는 적을 무능력하게 한다……균형을 잃게 되면, 공황을 일으키고 도망을 하면서 시간을 얻으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당황하여 쉽게 포기하여 굴복한다."[102]라고 하여 기습 달성시 장병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기습은 전장에서 적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좋은 수단이 된다.

5) 적의 의지를 격파하는 것이 기동전의 본질이다.

"적의 전투의지를 격파하라. 적의 전투능력보다도 의지를 격파하는 것이 기동전의 본질"[103]이라고 한다. 적의 의지를 깨뜨리면 항복하거나 또는 패주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동전은 지휘통솔, 편성, 응집력, 사기와 같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인간적 요인을 강조한다. 또한, 전투마찰이 있기 때문에 지휘관은 단호하고 확신에 찬 의지를 가져야 하며, 지휘관의 의지가 전장의 각 종 마찰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자들은 기동전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을 창시하기보다는, 주요 전략사상가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와 원리에 대한 내용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기동전의 진수(眞髓)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5. 선행 연구논문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

이 항에서는 선행 논문에서 주장하는 기동전의 핵심요소와 원리에 관하

---

102) 이승호(1999), 전게서, p.173. 리처드 D.후커가 편저한 이 책에서 David A. Grossman이 주장한 내용임. Grossman은 웨스트.포인트 미 육사에서 행동과학·리더십학과 조교수로 근무함.

103) 상게서, p.147. 리처드 D.후커가 편저한 이 책에서 Grossman이 주장한 내용임.

여 고찰해 보겠다.

1)「노양규」는 "마비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동과 기습, 작전의 주도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타격되어지는 정면은 가능한 좁아야 하고, 타격의 속도는 빨라야 한다. 침투종대가 고도의 속도전을 수행하고 있는 한 종심으로 신장된 공자의 취약성은 극복된다"[104]고 하였다.

즉 마비전 수행에 요구되는 핵심요소는 주도권 장악과 기동속도 및 기습 달성이며, 또 적을 고착시키고 효과적인 기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은 기만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마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의 신체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적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민병덕」은 자신의 "논문"[105] 제2장 4절 '기동전의 요소'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기동전의 목표는 물리적,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중심점이다. 그리고 기동전의 기동방식은

첫째, 발견 혹은 조성된 적의 취약점에 대한 노력의 집중이다.

둘째, 적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한 속도의 발휘이다.

셋째, 공격기세의 유지이다.

넷째, 항시 포위기동을 고려하는 것이다.

다섯째, 기습과 기만을 기동의 전 단계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휘·통제 면에서는 지휘통제의 분권화가 필수적이고, 수단의 운용 면에서는 전력을 통합 운용하여 전투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동전의 핵심요소는 집중, 속도, 기세, 기습이며, 이런 요소들이 적의 심리와 의지를 지향하여 발휘된다는 것이다.

3)「이원호」는 기동전을 특징짓는 요소들은 공중강습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요소는 기습, 상대적 전투력 우세, 주도권, 기동성 있는 조직체의 기동과 화력의 통합운용이라고 하며, 전격전의 3대 요결인 속도, 기습, 우세의 맥락과 같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헬기는 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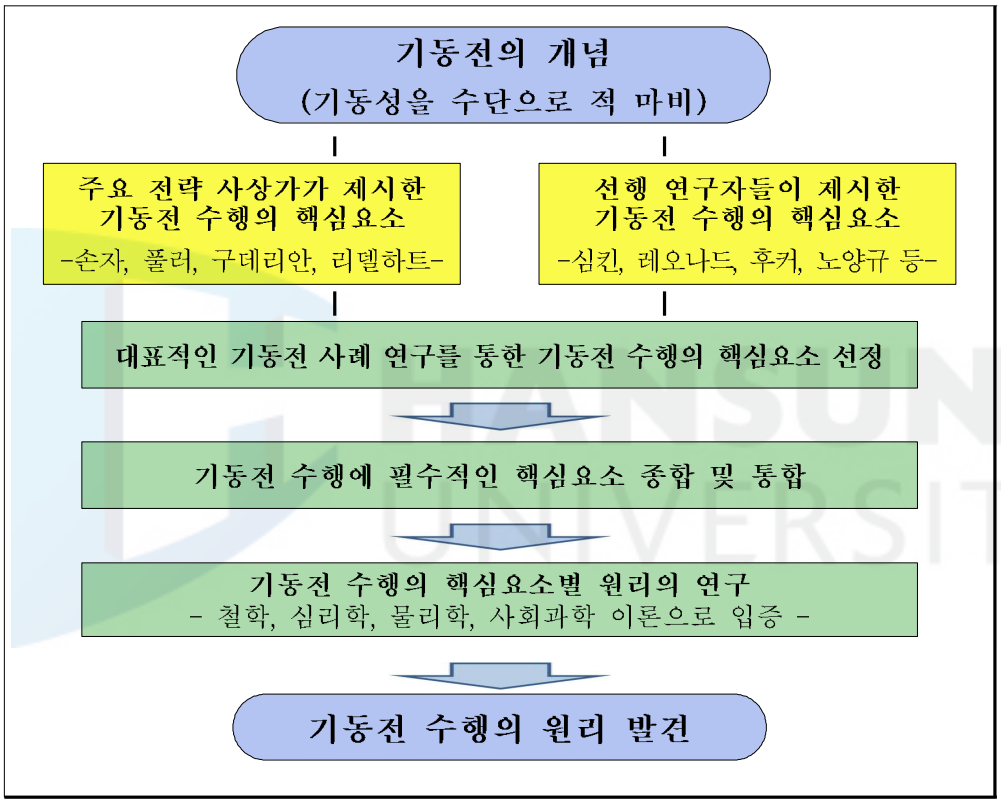
104) 노양규(1988), "풀러(J.F.C.Fuller)의 마비전 사상",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2-56.
105) 민병덕(1988), "기동전의 현대적 발전",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34.

기계화부대의 10~20배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고, 상대적인 화력의 우위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전격전의 현대적 모델을 가능케 하는 무기체계 라고 주장하였다.[106]

제 4 절 연구 방법의 전개 과정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2-2] 분석의 틀



위의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2장에서 고찰한 기동전 이론을 토대로 기동전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기동전을

106) 이원호(1991), "기동전수행을 위한 작전술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4-15.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주요 전략사상가들이 창시한 이론에서 기동전수행에 필수적인 핵심요소를 발췌하고, 여기에 선행연구자들이 연구한 핵심요소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선정된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 다음에, 세계 전쟁사 가운데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기동전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 추가적인 핵심요소를 분석하여 선정한다.. 그리하여, 먼저 선정된 핵심요소에 추가적으로 찾아 낸 핵심요소를 비교·분석하고 통합하여 기동전수행의 원리에 부합되는 핵심요소를 도출해 낸다.

그 다음에 통합하여 선정된 핵심요소별로 기동전수행의 원리를 분석한다. 이 때에 철학적, 심리학적, 물리학적 및 사회과학적 이론과 법칙을 근거로 제시하여, “어떻게 기동성을 수단으로 하여 적을 정신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입증한다.

최종적으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별로 증명된 원리를 종합하여, 모든 핵심요소에 공통적인 원리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동전수행을 지배하는 원리를 분석해 내고자 한다. 이렇게 분석된 기동전수행의 원리는 기동전 승리의 법칙이 됨과 동시에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

HANSUNG UNIVERSITY

제 3 장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 분석

제 1 절 선행 연구된 기동전 수행의 핵심요소

1. 기동전의 개념 정립

제 1장 제 1절에서 주요 기동전 전략사상가들이 창시한 기동전의 정의와 개념을 고찰해 보았다. 즉「손자」의 부전승 병법,「풀러」의 마비전,「구데리안」의 전격전 그리고「리델.하트」의 간접접근 전략과 군사학사전상의 기동전의 정의와 개념이 그것이다. 그런데, 각 기동전의 정의와 개념이 모두 상이하므로, 기동전의 명확하고도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동전의 다른 명칭들과 개념들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동전의 수단은 유혈전투나 화력이 아니라 기동이라는 것이다. 전쟁은 적대적인 양대 세력 간의 싸움이므로 이 기동은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인 것이다.

둘째, 적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저항력을 분쇄하는 방법은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보다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적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방법으로서, 기동속도와 기세(氣勢)로써 우회기동하여, 적 사령관의 심리를 교란하고, 적 군대조직의 심리를 마비시키고, 적의 사기를 무너뜨려 군대조직을 붕괴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셋째, 속전속결에 의한 단기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조기에 종결됨으로써 경제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피·아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전쟁은 쌍방 모두가 최소의 희생으로 치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이 비록 단기간에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참혹한 인명의 살상과 자원의 파괴 및 소모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커다란 희생

을 치르는 전쟁은 인류의 도덕에 위배되며, 쌍방 간에 원한과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 기동전 이론은 소국(열세군)이 대국(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이길 수 있는 전쟁수행에 관한 이론이다. 기동전은 수적인 우세를 수단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소수 정예군의 우수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하여 적 군대조직의 심리를 마비시키려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적의 수적인 우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열세한 소수 정예군으로서도 뛰어난 용병술을 적용한다면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공통점을 중심으로 기동전에 대한 정의(定義)를 내려 보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동전은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하여 적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마비시킴으로써 정신적으로 굴복시켜 최소의 희생으로 단기간 내에 승리하고자 하는 정규전쟁의 한 형태이다" 라고 정의한다.

위의 정의에서 보면, 기동전 이론은 정규 전쟁수행에 있어서 소모전이론과 전혀 다른 사조를 보여주고 있다. 전쟁의 목적은 적국의 의지를 굴복시켜 아국의 의지를 강요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기동전과 소모전 이론이 동일하다. 그러나 적국의 저항력을 분쇄하여 의지를 굴복시키는 수단과 방법 면에서는 기동전과 소모전 이론이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수단 면에서 소모전은 수적으로 우세한 자원을 수단으로 삼지만, 기동전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삼는다.

또한 방법 면에서 소모전은 전투를 통하여 적국의 자원을 소모시키고, 일련의 전투에서 누적된 자원의 소모로 인하여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여 굴복하게 되는 데 반하여, 기동전은 기동속도와 기세로 적군의 배후로 우회기동하여 적 사령관의 심리를 교란하고, 적의 조직심리를 마비시키고 사기를 무너뜨림으로써 적의 군대조직을 붕괴시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모전 방식으로는 항상 영토가 넓고 자원이 우세한 대국(우세군)이 이길 수밖에 없지만, 기동전 방식으로는 소국(열세군)이 대국 (우세군)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2. 선행 연구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 종합

앞의 기동전의 정의에서 기동전수행의 수단과 방법 면에서의 핵심사항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적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마비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동전수행의 원리를 찾아 내기 위해서는 "기동성을 수단으로 어떻게 적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해답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동전에서 적을 마비시키는 방법에 관한 요소를 밝혀내고, 그 요소들이 어떠한 원리로 적을 마비시키는지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기동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을 마비시키는 몇 가지 방법상의 핵심요소를 주요 전략사상가들의 이론과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주요 전략사상가들의 이론으로부터 발췌하여 종합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는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아래의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도권 장악, 속도, 기습, 우세(집중), 기세, 체계마비, 조직심리 마비(교란)의 7개 요소는 주요 전략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중요 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사항이다.

여기서, 우세는 전력을 집중한 결과로써 달성되므로 집중보다 우세를 요소로 선정하였다. 정보는 군사력운용의 기초로써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전략사상가에 따라 특히 강조 또는 다소 소홀히 다룬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세군이 우세군에게 이기려면 적의 상황과 작전지역에 관하여 적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신전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주요 전략사상가들이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장병들의 전투의지나 감투정신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동전에서는 적의 사령관의 의지나 적국의 정부의 의지가 마비 또는 굴복되면 군대의 특성상 그 부하 장병들의 정신전력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 주요 전략사상가가 제시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

구 분	손자	풀리	구데리안	리델.하트
주 도 권	○	○	○	△
속 도	○	○	○	○
기 습	○	○	○	○
우세(집중)	○	△	○	○
기 세	○	△	○	△
정 보	○	○	△	
체계 마비		○	○	○
조직 심리	○	○	△	○
정신 전력	△			

*출처: 연구자 구성안.

△표시는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이론에 함의되어 있는 요소를 말함.

다음은 주요 선행 연구자들의 핵심요소에 관한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분석해 보겠다. 아래의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동전의 핵심요소는 주도권 장악, 속도, 기습, 우세(집중), 체계마비의 5개 요소에 대하여는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에 관해서는「심킨」이 작전적 수준의 정보수집 능력이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레오나드」도 이에 동의하면서 전술적 수준에서의 전장정보준비(I.P.B)는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표 3-2] 주요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

구 분	심 킨	레오나드	보이드	후 커	노양규	민병덕	이원호
주 도 권	○	△		○	○	△	○
속 도	○	○	○	○	○	○	○
기 습	○	○		○	○	○	○
우세/집중		○		○		○	○
기 세	△	○				○	
정 보	△	△					
체계마비	○	○	○	○	○	△	
조직심리		○	△			△	

*출처: 연구자 구성안

△표시는 직접 주장한 바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있는 사항임.

「보이드」는 기동전을 연구하였다기 보다는 전투에 미치는 시간의 영향 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하였기 때문에 기동전의 핵심요소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세와 조직심리의 마비 또는 교란에 대해서는 아마 선행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대하여 연구가 불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국내의 선행 연구자들은 논문의 목적과 문제제기가 본 연구자의 관점과 상이하기 때문에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와 원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종합하고 분석한 내용을 보면, 주요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동전의 핵심요소는 주요 전략사상가가 제시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는 일단 주도권, 속도, 기습, 우세(집중), 기세, 체계마비, 조직심리 마비의 7개 요소로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칼 하인츠 프리저」[107]는 그의 저서[108]에서 전격전 성공의 비결로 '속전속결'의 전통, 작전술 차원의 사고, 중점의 원칙, 포위원칙, '돌파작전' 금기타파, 종심진격, 전통적인 지휘원칙(임무형 지휘, 진두지휘), 전술과 과학기술의 결합, 속도와 기습의 9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의 핵심요소와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주도권, 속도, 기습, 우세, 기세, 체계마비의 요소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피터.영(Peter Young)」은 전격전의 3대 요결로 기습, 속도, 외에 우세 대신에 '공포(Frightful-ness)'를 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는 '전쟁의 원칙'과 관련하여 '기동전수행의 원칙'이라고 할 만한 용병술의 핵심요소를 말한다. 단 기전, 포위, 과학기술, 정예부대의 편성, 비선형 전술, 리더십 등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는 기동전수행의 수단, 결과, 과정이므로 제외한다.

제 2 절 대표적인 기동전 전쟁사례 분석

---

107) 「Karl Heinz Frieser」는 독일군 육군 대령으로 1985년부터 독일 연방군 군사사연구소 사회과학부 연구원으로 근무 중임. 1981년 박사학위 취득.

108) 진중근(2007), 전게서, pp.520-543.

1.「칭기스칸」의 〈호레즘(Khwarizm)〉 정복 전쟁[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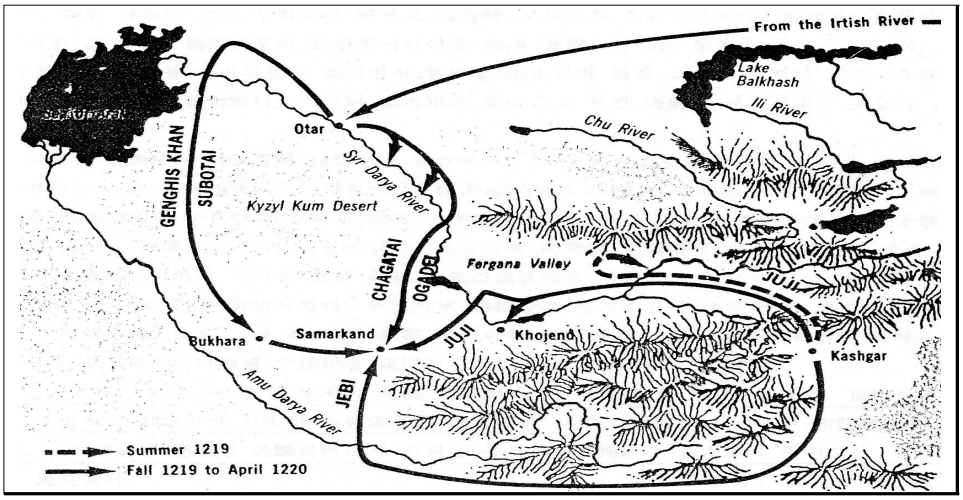
〈호레즘〉 제국은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의 산맥으로부터 흑해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으로서 투르크족 술탄 무함마드 2세가 통치하고 있었다. 〈호레즘〉 의 한 지방관리가「칭기스칸」의 통치를 받는 상인을 살해함에 따라 이 지방관리를 처벌해 달라는 칸의 요청을 무시하고 사신을 죽임으로써 발단된 이 전쟁은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지, 〈인더스강〉 에서 〈볼가강〉 까지 닥치는 곳마다 모든 군대를 짓밟았다.

「칭기스칸」 은 〈호레즘〉 을 정복하기 위하여 서기 1219년 말에 서쪽으로 출발하여 1220년 3월 어느 날 〈부하라〉 에 도착하였다.「무함마드」 2세는 최근에 후라산(Khurasan) 남부를 정복하고 동쪽으로부터 들이닥칠 몽고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그의 대부분의 부대를 〈시르다리아(Syr Darya) 강〉 을 연하여 배치하고, 후방에는 수도인 〈사마르칸트(Samarkand)〉 로 연결되는 병참선을 요새화하였다.「무함마드」의 전력은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그 중 약 4만 명 정도를 국경주변에 배치하고, 거기에서 압도적인 수적우세를 통하여 '단 한번의 결정적인 전투' 로 몽고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 하며, 임박한 몽고군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칭기스칸」 은 천산산맥을 넘어서 우선 〈호레즘〉 에 가장 가까운 통로를 따라 그의 장자인「조치」와 신임하는 장군인「제베 노얀」에게 소수의 군대를 주어서 정면공격으로「무함마드」의 주력군을 고착하고 견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칭기스칸」이 직접 지휘한 주력군은 다른 군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3500km의 원거리를 우회기동하여 전선의 후방 깊숙한 곳인 〈부하라〉 에 불쑥 나타났다. 몽고군은 산맥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는 캐러밴들 조차 가로지르지 못하고 수 백km를 우회해 가는 아랄해 남쪽의 〈키질쿰사막〉 을 통과하여 기동한 것이다. 〈부하라〉 는 국경선으로부터 약 600km나 떨어진 후방에 있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도시이다. 「조치」 와「제베.노얀」 군은「무함마드」 가 기대하던 전투를 〈페르가나〉 계곡에서 개시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 「무함마드」 군은

109) 김상철(2001), 전게서, pp.70-76 에 제시된 사례를 활용. [정영목 譯(2005),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서울 : 사계절, pp. 41-48 및 pp. 171-178. 참조]

[그림 3-1]「칭기스칸」군의 대『호레즘』전쟁시 기동약도



* 출처: Military Review, July(1986), p.25.

상당한 손실을 입었으나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었다. 몽고군은 비록 공격에 실패하여 물러났으나, 국경선과 강을 연하여 정면공격을 계속함으로써「무함마드」군의 주력을 고착시키는 임무는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칭기스칸」은〈부하라〉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근처의 작은 읍 몇 개를 정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부하라〉로 달아나게 놓아 두었다. 이는 정벌에 앞서 실시하는 심리전의 하나이다. 그는 심리전을 준비할 때, 외진 마을의 주민들에게 관대한 조건을 내걸어 항복하면 자비를 베풀고, 대항하면 무자비하게 도륙함으로써 장차 주민들이 겪게 될 앞일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러한 공포의 심리전을 수행하고, 그 주민들이 이러한 사례를 목격하고 과장하여 소문을 퍼뜨리도록 놓아두었다. 이 심리전에 따라 적이 항복하면 관대하게 처리하지만 항거하면 포로들을 앞세워 성을 공격하여 방위군을 당황하게 하고, 자신의 병력희생을 방지하였다.

「칭기스칸」주력군의 뜻하지 않은 후방 출몰과 주변의 피난민들의 쇄도로〈부하라〉의 방위군 2만 명은 공황상태에 빠져 500명만 남기고 도주함으로써 몽고군의 사냥감이 되었다.〈부하라〉를 점령한「칭기스칸」은〈호레즘〉의 수도인〈사마르칸트〉를 공격하기 위하여 4 개 방향에서 분

진 합격하였다. 몽고군의 원정소식과 〈부하라〉 의 함락 소식이 〈사마르칸트〉에 전해지면서 그곳 방위군 역시 항복하였다.「무함마드」는 몽고군의 1,000km에 달하는 무자비한 추격을 피해 숨어 들었던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서 쓸쓸히 죽어 갔다.

여기서「칭기스칸」의〈호레즘〉정벌 전쟁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정보능력을 활용하였다. 몽고군은 상인들을 통해 해외 정보에 관심이 많았고, 오늘날의 정보통신 체제와 유사한 '역참제'[110]를 시행하여 외국의 정보가 모든 방향에서 중앙으로 가장 신속하게 전달되었다. 또한 정복을 위한 기동 중에 지리에 밝은 지역의 향도자를 이용하여 기습에 용이한 기동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안내자로 활용하였다.

둘째, 몽고군은 심리전을 잘 활용하였다. 항상 공격하기 전에 일종의 특수 부대가 먼저 진출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건을 제시하여 항복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셋째, 몽고군은 무서운 기동속도를 발휘하고 기세로써 적을 압도하여 전세를 지배하였다. 몽고군이 사용하는 말은 크지는 않았으나 추위와 먹이가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강인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몽고군은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3-4필씩 동반하여 번갈아 타면서 엄청난 속도를 발휘하였다. 또한 몽고군은 치중시설이 없는 전투부대 위주의 경량화된 부대로써 마른 고기와 유제품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초지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말먹이를 현지에서 조달하였다. 이러한 기동성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과 지역으로 기습을 달성하고, 적의 배후로 기동하여 공황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시켜 적 조직을 붕괴시켰다.

넷째, 몽고군은 우수한 기동성으로 분진 합격하여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는 항상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집중 운용하였다.

다섯째, 몽고군은 열세한 전력으로써 우세한 적을 상대로 하여 승리하였다. 이 정복전쟁에서도 12만 명 정도의 몽고군이 40여만 명의 〈호레즘〉 군대를 상대로 하여 적을 분산시켜 상호지원하지 못하게 하며, 고착과 견제

---

110) 몽고군이 외국정보나「칭기스칸」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운영한 역전(驛傳)업무 체제를 말함. 세계를 향한 주요 통로별로 30km마다 1개 역을 설치하였는데 각 역마다 약 25명 정도가 운영 및 유지를 맡았다.

로 적의 주력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몽고군이 열세한 군으로 우세군에게 승리한 비결은 천호제로 편성된 정예군이 레고형 조직으로써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집중과 분산을 할 수 있으며, 고도의 기동성에 의한 속도의 전쟁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2.「누르하치」의 대 『명(明)』 〈샤르흐(薩爾滸)〉 전역[111]

16세기 말엽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러 만주(滿洲)지역의 「누르하치」는 여진족(女眞族)을 통일하고『후금(後金: 후에 淸)』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였다. 이에 여진족의 일부인 〈에호(葉赫)〉의 군주「긴타이시」가 위협을 느껴『명(明)』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자『명(明)』이 이에 응함으로써 양국간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누르하치」는 서기 1618년 4월『명(明)』나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무순성〉을 함락시켰다.『명(明)』나라는 사태가 위급하므로『조선』에 원병을 청하여 10만 명의 대군을 편성하고,「양호(楊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출정에 나섰다.

1) 양국의 전쟁계획

「양호」는 10만 명의 병력을 4군(四軍)으로 편성하여, 동·서·남·북 방향의 네 기동로를 따라 분진 합격시켜「누르하치」의 본거지인〈흥경노성(興京老城)〉으로 포위 공격하여 그 본거지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특히 근대적인 화기인 화포와 총을 일부 병력이 무장하였고,『조선』에서 온 원병 1만 명 가운데 5천 명이 우수한 포수로서 주로 활을 사용하는『후금』군을 이기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누르하치」는 그의 '팔기군(八旗軍)'[112] 1만 명으로『명(明)』나라의 수적으로 우세한 대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군대가 몇

111) 육군대학(1998), "기동전", 『군사평론 제337호』, 대전 : 육군대학, pp.152-204.

112) 「누르하치」가 자신의 군대를 8개 색깔의 기(旗)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는 데, 1기군은 약 1,250명 정도였음. 이 8개 군을 상황에 따라 집중 또는 분산하여 운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군대임.

번 싸워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샤르흐〉 지역으로 적을 끌어 들여 영격전(迎擊戰)[113]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때 내선의 이점을 살려 적의 상황에 따라 신속한 기동력으로 각개 격파함으로써 승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영격전을 수행할 경우에는 지리에 익숙한 이점 외에도 지역내 백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원거리 치중부대를 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르하치」는 적이 무장하고 있는 화포가 공성무기(攻城武器)이므로 이런 대포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성(城)을 고수하는 방책을 버리고, 야지에서 화기에 대항하는 각가지 방책을 강구하여 활용하였다.

전장은 「누르하치」의 본거지인 〈흥경노성(興京老城)〉을 중심으로 직경 150km에 이르는 산악지형이다. 1619년 음력 3월1일은 양력 4월 15일로서 춘분을 25일이나 지났으므로 낮이 길고 초승달이 있어 야습을 하기에 좋은 시기이며, 기온은 낮에는 10여 도이나 밤에는 쌀쌀하고, 이 당시 기록에 『명(明)』 군이 행군 중에 적설로 애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다소 추운 기온이었다. 그러나 해빙기로서 하천에 물이 불어나 도하 작전에는 지장이 많았다.

2) 작전 경과

『명(明)』의 좌익중로군의 총병인 「두송(杜松)」은 총수(總帥)인 「양호」에게 『후금(後金)』 군이 축성공사를 하기 전에 〈샤르흐〉 공격을 건의하였으나 미승인되자 독단으로 먼저 출발하여 야간에 강행군으로 3월 1일 새벽에 혼하(渾河)를 도하하였다. 「두송(杜松)」은 〈샤르흐산〉을 점령한 다음 『후금』 군의 상황을 관찰한 바, 즉각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1만 명을 화포와 함께 〈샤르흐산〉에 머물러 엄호하게 하고, 자신이 1만 명을 직접 지휘하여 소자하(蘇子河)를 도하하고 『후금』의 축성 및 경계군이 지키고 있는 〈자이피앙〉을 공격하였다.

『후금』 군은 「두송」 군의 공격을 받고 〈자이피앙〉에서 〈치린하다〉로 후퇴하였다. 한편 좌익중로군의 나머지 1만 명은 주로 치중부대였는데

113) 영격(迎擊)이라는 말은 공격해 오는 적을 기다렸다가 마주 나가 치는 것을 의미함.

전투병은 매우 적었으며,「공념수」가 지휘하여 반나절 늦게〈무순(撫順)〉을 출발하여 밤중에〈영반(營盤)〉의 서쪽 지역에 도착하였다. 이제 좌익중로군의 상황은〈샤르호산〉에 1만 명,〈치린하다〉에 1만 명,〈영반(營盤)〉서쪽에 1만 명으로 3분된 가운데 원거리 무리한 행군과 2회 연속 도하작전으로 지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누르하치」는『명(明)』군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결과 남쪽 2개 도로에서도 적이 접근 중이지만, 깊은 산중의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으므로 속도가 느려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여 〈돈고로〉에 500 명,〈후란로〉에 200 명 정도의 경계부대를 배치한 후에 '팔기군'의 전 군을〈샤르흐〉지역으로 이동시키고『명(明)』군의 상황을 관측할 수 있는〈구레〉까지 진출하였다. 약 50km를 6시간 정도에 주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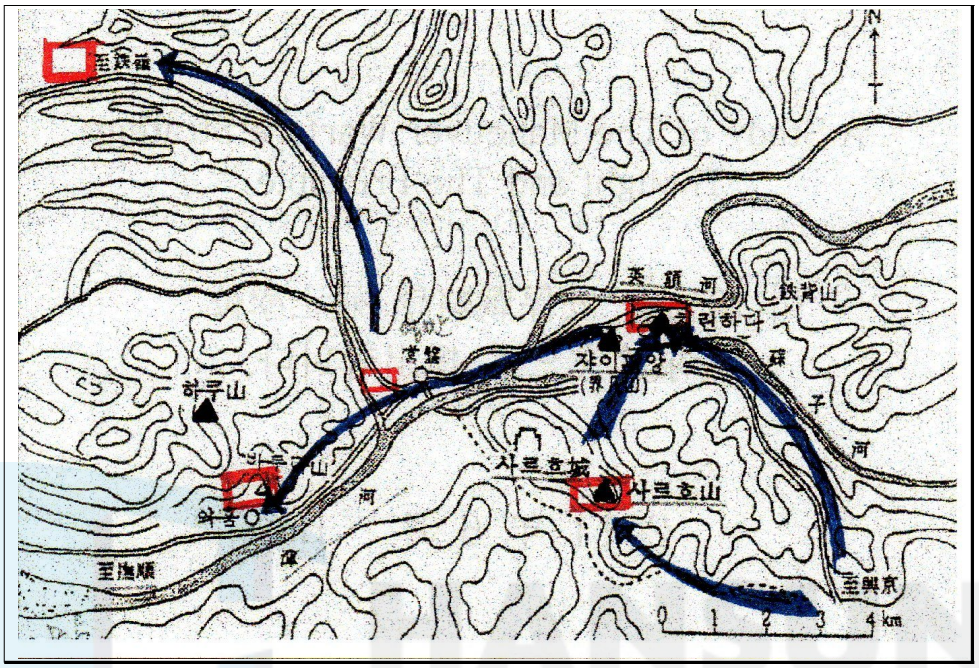
「누르하치」는〈샤르흐산〉에 있는 총과 화포를 보유한 부대를 먼저 공격하게 하였다. 5개 기(旗)의 6천 명의「누르하치」군은 전격적으로 습격하여〈샤르흐산〉의 적을 공격하여 화포와 총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순식간에 1만 명의 적을 유린하고 도망가는 적을 죽였다. 이어서〈치린하다〉를 공격중인「두송」군을 3면에서 협공하여「두송」을 비롯한 주요 장수들이 전사하고 병졸들은 유린당했다. 이어서 도망치는 적을 추격하고 산에 숨은 적을 포위하고 수색하여 일망타진하였다. 그리고「공념수」의 치중부대를 기다렸다가 3월 2일 아침에 1기군으로 한명도 남김없이 토벌하였다.

『명(明)』의 좌익북로군은「마림(馬林)」이 지휘하는 2만 명과 원군인〈에호(葉赫)〉의「긴타이시」군 1만 명을 합친 3만 명으로 구성하였는데, 북쪽 도로를 따라 철령을 넘어「두송」군보다 늦게 3월 1일에 도착하여〈샨간하다〉에서 숙영지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화기를 배치한 후 병력들은 참호 속에 있었다. 이「마림(馬林)」군도 3분되어 약 11 km 떨어진〈피에훈산〉일대에「범종안(范宗顔)」이 지휘하는 1만 명, 그 후방에「긴타이시」의 1만 명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3월2일 정오경에「누르하치」가〈샨간하다〉에 도착하여「마림(馬林)」군의 진지구축과 화포배치를 보고서는 적의 견고한 진지를 공격하는 방법

을 적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방법은 말에서 내린 보병이 뒤에서 활을 쏘는 부대의 엄호하에 돌진하여 적의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화포를 뒤엎어 통로를 개방하면, 기병들이 쇄도하여 진지 내의 적을 유린하는 전법이다.

[그림 3-2]「누르하치」군의 대『명(明)』〈샤르호〉전역 약도



* 출처: 육군대학(1998), p.173.

「누르하치」는 이 방법에 기마병이 후방의 산으로 우회하여 측·후방에서 공격하는 방안을 추가로 명령하였다. 이 전투에서는 총병인「마림(馬林)」만이 살아서 도망가고 나머지 장병들은 전멸하였다. 이 전투에서『명(明)』군은 포와 총을 발사하였으나『후금』군은 기세로써 일시에 달려들어 포와 총을 재장전할 시간을 주지 않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너무나 삽시간에 돌진함으로써『명(明)』군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며, 그 기세에 질려 도망감으로써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어서〈피에훈산〉의「범종안(范宗顔)」군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유린하여 14시 경에 적을 전멸시켰다.「긴타이시」군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자기 나라로 도망가고 말았다.『후금』군은 전사자가 없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만한 승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누르하치」는 좌익 중로군과 좌익 북로군을 전멸시킨 다음에 남쪽 2개 도로로 접근 중인『명(明)』군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1~2일 후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전투에 피로한 장병들을 푹 쉬게 하였다. 그 후 3월 3일 14시에〈자이피앙〉을 출발하여 18시 경에〈흥경노성〉에 도착하여 60 km를 4 시간 만에 이동하여 전군을 남쪽방향의 전투에 대비시켰다.

이 때 『명(明)』군의 총수「양호」는 좌익의 2개 군이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우익 2개 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후란로를 따라 이동하던「이여백(李如栢)」이 지휘하는 우익 중로군은 명령이 전달되어 철수하였지만, 돈고로를 따라 이동 중인「유연」이 지휘하는 우익 남로군은 철수명령을 전달받지 못하여 험한 산중의 좁은 도로를 따라 계속 이동 중이었다. 우익 남로군은「유연」의『명(明)』군 1만 명과 원군인『조선』의 도원수(都元帥) 「강홍립(姜弘立)」이 지휘하는 1만 명을 합친 2만 명으로 구성된 연합군이었다. 이 양국군 사이에서는 불신과 불화의 감정이 내재되어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다. 돈고로의〈관전(寬甸)〉에서〈환인(桓仁)〉까지는 약 100km인데 7일이 걸려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중인데 식량마저 제 때에 보급되지 않아 사기가 엉망이었다.

「유연」군은 3월2일〈환인〉에서 출발하여 정오경에〈심하(深河)〉에 도달하여 『후금』의 경계부대 500 명과 한 차례 접전하여 서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어서 3일 입수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4일 일찍부터 군을 재촉하여 급진 중이었다.

한편 휴식을 취한 『후금』의 2기(旗) 군은 3일 요충지인〈가합령(家哈嶺)〉에 먼저 도달하여 군을 매복시키고 기다리고 있었으며,「누르하치」의 본대는 남쪽으로 접근 중이었는데『명(明)』의「이여백」군이 철수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유연」군 방향으로 집중하였다. 4일 10시 경 「유연」군의 선봉대가〈가합령〉에 도달하자 『후금』의 매복군은 이를 통과시켰는데,〈가합령〉에 적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믿은「유연」은 갑자기

나타난「누르하치」의 대군을 보고 놀라 긴급히 옆의 산 정상으로 올라가 후속 제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누르하치」의 공격명령이 하달되었다. 즉 후속하는 총포부대가 전개도 하기 전에 본대와 매복군으로부터 사방에서 공격을 받아 지치고 공포에 떠는 장병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 당했던 것이다. 이어서 후챠의 들판에 『명(明)』 군의 총포부대와『조선』군이 서있는 상황이 눈에 보였다. 이 때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흙먼지를 날렸기 때문에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누르하치」군은『명(明)』군과『조선』의 좌·우영 군을 일거에 유린하였는데, 도원수「강홍립」은 중영에 명령을 내려 지원할 시간도 없이 삽시간에 벌어지는 눈앞의 상황에 어찌할 대책이 없으므로 항복하였다.

3) 전쟁의 결과

이렇게 하여『명(明)』과『후금(後金)』간 전쟁의 서막인〈샤르흐〉전역은 막을 내렸다. 이 전쟁에서『명(明)』군의 전사자는 46,180 여 명으로 이 가운데 장수가 310여 명 포함되고, 총병급 장수 중「두송」과 「유연」이 전사하였다. 이 가운데에는「긴타이시」군과『조선』군의 전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필(馬匹)의 손실은 2만 8천 4백 여 필이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명(明)』은 회복불능이 되었고,『후금(後金)』은 중원의 패자(覇者)가 되어 후에『청(淸)』나라가 되었다.

4) 전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이〈샤르흐〉전역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이 단 4일만에 종결되었다. 2~3만 명으로 구성된 『명 (明)』의 각 군이 하루가 채 가기 전에 전멸되었다.

둘째, 10대 1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장의 주도권은 「누르하치」가 장악하고 있었으며,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승리한 대표적인 전역이었다.

셋째,『후금(後金)』군의 전사자는 극소수이며,『명(明)』군의 피해가 컸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희생은 양국군의 전투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

미 패하여 도망가는『명(明)』군을 추격하여 모두 죽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무자비한 살육의 배경에는 수렵을 업으로 하는『후금 (後金)』군의 특성상 포로를 먹일 식량이 없기 때문에, 또한 살려 보냈을 경우에 다음 전쟁에 동원되어 적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없앤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누르하치」는 우수한 정보전을 전개하였다. 그는 자신이 선정한 지역에서 싸웠으므로 지리에 밝았고, 지역 주민의 도움과 각 종 정보 수단을 사용하여『명(明)』군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약점을 철저히 이용하였다. 반면에『명(明)』군의 총수와 총병들은 적을 전혀 모르고 수적 우세를 믿고 싸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이 전쟁은 철저하게 시간과의 싸움이었다.「누르하치」는 내선에서『명(明)』의 4로 군의 전장 도착시간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군대가 이쪽에서 저쪽의 전투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여, 그 결과 시간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승리를 이끌어 내었다. 심지어는 한 지역의 군 내에서도 3분 되어 있는 적에게 상호 지원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시간차 공격을 함으로써 적을 각개 격파하였다. 우수한 기동성을 가진 군대는 시간이 전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로 이용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여섯째,「누르하치」는 항상 상대적인 우세를 획득하여 이겼다. 전체 병력은 열세지만『명(明)』의 각 군이 3분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3분된 그 조직 내에서도 좌·우·중영부대가 또 분할되어 있었으므로, 시간적 집중으로 적의 한 조직을 공격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이 집중된 것이었다.

일곱째, 맹렬한 기세로 승리한 전쟁이다.「누르하치」의 명령에 의해 돌진할 때에는 마치 댐이 붕괴되어 저수된 물이 홍수가 나서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기세로 유린하였으므로『명(明)』군이 당황하여 쩔쩔매고, 공황상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맹렬한 기세에는 맞설 수가 없는 것이다.

여덟째, 심리의 싸움에서 승리한 전쟁이다.『명(明)』군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지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으며, 상·하간 및 인접 군간 서로 불신과 불화의 심리상태에 있었다.「누르하치」의 기마병들의 기세에 의한

과감한 돌진에는 공황상태에서 사기가 붕괴되고 군 조직이 와르르 붕괴되어 그저 도망가기에 바빴다.『조선』의 기록에 의하면, "사기가 붕괴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라고 하며, 두 장수가 화약상자를 앞에 놓고 자분(自焚)하려 했다고 할 정도이다.

아홉째, 상대의 체계를 마비시켜 이긴 것이다.「누르하치」의 군에는 각 군마다 '바야라'라는 지휘관의 최측근 조직이 있어서 호위, 정찰, 돌격, 명령과 신호의 전달 등 지휘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보조하였으므로 지휘관의 부대장악과 지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명(明)』군이 공격을 받을 때에는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전군이 동시에 전투에 휩쓸려서 지휘관이 먼저 죽거나,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어 깃발, 북, 각종 신호수단으로 명령을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것처럼, 대부분의 장수들이 희생된 것을 보면 가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가는 것이다.

열째,「누르하치」는 적의 약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이겼다. 즉 보병의 느린 속도, 넓은 전장에서 정보와 소통의 부족, 군과 군 간의 협조 부족, 연합군의 불신, 총포의 기동성 결여 및 재장전 시간지연, 갑자기 동원된 오합지중, 고위 지휘관들의 용병술 및 리더십 부족 등『명(明)』군의 약점을 간파하고 잘 활용하여 승리로 이끌었다.

이 전쟁을 분석해 보면, 최고 사령관의 탁월한 리더십, 뛰어난 전략 및 전술, 잘 조직된 정예부대, 우수한 무기체계가 군대의 질을 결정하며, 이런 군대에게는 전쟁에서 수적인 우열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3. 제2차 세계대전시『독일』의 대『프랑스』전쟁[114]

독일이 폴란드를 침입한지 이틀 후인 1939년 9월 3일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군사적 조치 없이 1940년 봄까지 서부 전선에서는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기계화부대 작전의 결함을 보완하고, 신장비를 보강하는 등 만반의 전쟁준비

114) 육군사관학교(1982),『세계전쟁사』, 서울: 일신사, pp 324-341.

를 완료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였다고 자만하고 그 경험에 바탕을 두고 방어제일주의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프랑스군은 기동전보다 화력전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마지노선의 철근콘크리트 진지로부터 발사되는 정확한 포병화력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확신하였던 것이다" [115]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인을 분석하고, '전격전(Blitzkrieg)'개념을 발전시키며, 이를 수행할 기갑 및 기계화 부대들을 대규모로 편성하고, 급강하폭격기(Stukas)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예견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었다.

1) 양군의 전쟁계획

연합군의 전쟁계획은 주로 영구요새(永久要塞)에 크게 의존하는 방어 전략이었다. 이 전략개념에 따라 D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주방어선은 〈딜선(Dyle Line)〉으로 하되 『벨지움』 군은 〈앙트워프〉 〈루벵(Louvain)〉을 방어하고, 『영국』의 원정군은 〈루벵〉과 〈와브르(Wavre)〉 간을 방어하며, 그 동부전선은 『프랑스』 군이 담당하되, 프랑스의 제 7군이 전략예비로서 『네델란드』의 〈브레다(Breda)〉까지 진출함으로써 독일군의 측면을 강타하도록 계획하였다. 연합군 중에 프랑스군은 119개 사단(해외 파견군 제외)을 지상군 총사령관 「가믈렝(M.G.Gamelin)」 장군이 지휘하고, 영국 원정군은 「고오트(Gort)」 장군이 10개 사단을 지휘하며, 벨지움군은 22 개 사단(600,000 명)을 「레오폴드(Leopold)」 국왕이 지휘하고, 네델란드군은 9개 사단(약 400,000 명)을 「빈켈만(Winkelman)」 장군이 지휘하며, 연합군 총사령관은 「가믈렝」 장군이 맡았다. 프랑스군의 항공기는 1,400여 대이고, 영국 원정군에 300 대의 전투기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독일군은 공세전략을 바탕으로 많은 논란 끝에 A집단군의 참모장인 「만쉬타인(Manstein)」 장군의 제안이 채택되어 「히틀러(Hitler)」 총통 승인을 받게 되었다. 독일군의 공격계획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 1단계는 돌파로부터 해안까지 진격하여 연합군 주력을 완전히 포위하여 섬

115) 김상철(2001), 전게서, p.315.

멸하는 단계로서, 이를 위해「보크(Bock)」원수가 지휘하는 B집단군이 네델란드와 벨지움에 대해 조공과 기만임무를 수행하고,「레에프(Leeb)」 원수가 지휘하는 C집단군이 〈마지노선〉 정면에서 견제 공세를 취하는 동안에,「룬트슈테트(Rundstedt)」원수가 지휘하는 A집단군이 주공으로서 〈아르덴느(Ardennes)〉 삼림지대를 돌파하여 대서양 해안까지 진출함으로써 〈솜므강(Somme R)〉 이북의 연합군을 포위하고, 이어서 B집단군과 협격하여 섬멸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쟁계획의 제 2단계는 제1단계 작전 종료 후 신속히 B집단군이 〈솜므강〉 하류에서 남서쪽으로 진격하고, A집단군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Paris)〉 동부를 돌파하여 프랑스군을 〈마지노선〉 후방으로 몰아붙인 다음, C집단군과 협격하여 섬멸한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서 양군의 계획을 보면, 연합군의 계획은 독일군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켜 주는 것이었으니, 연합군의 주력이 네델란드와 벨지움으로 깊이 진출할수록 독일군에 의하여 포위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독일군의 전력은 총 159 개 사단 가운데 123 개 사단을 서부 전선에 투입하였고, 그 중에 기갑사단이 10 개, 기계화사단이 9 개였으며, 주공인 A집단군에 6개 군과 44개 사단 (7개 기갑사단 포함)을 집중하였는데, 여기에는「클라이스트(Kleist)」장군이 지휘하는 야전군 규모(2개 군단)의 기갑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독일 공군은 5,000 대의 항공기 중에 3,500 대를 서부 전선에 투입하였다. 독일군 지상군 총사령관에는「브라우힛치(Brauchitsch)」장군이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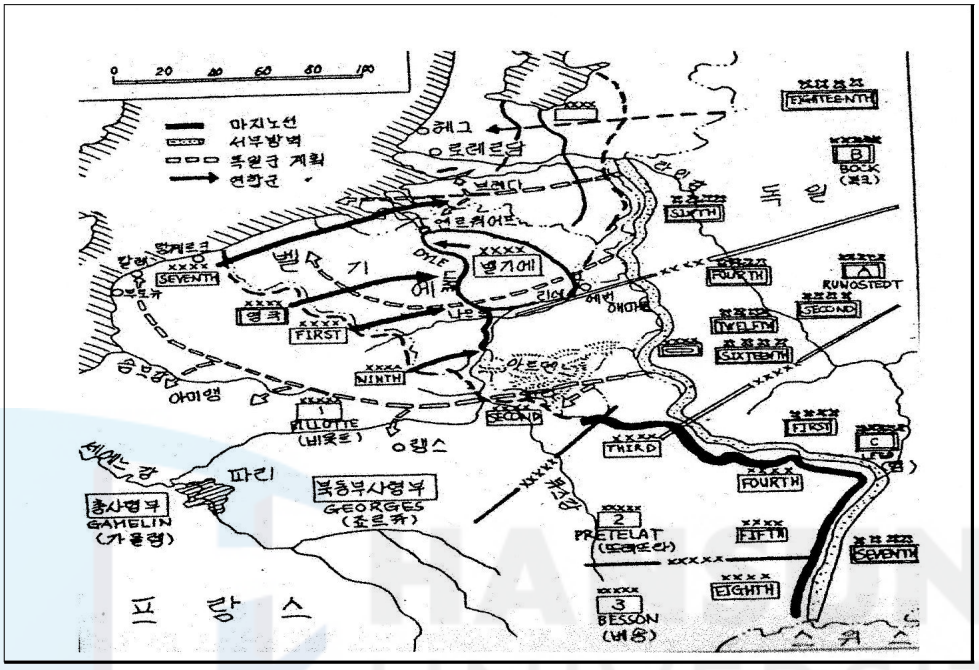
2) 작전 경과

1940년 5월 10일 자정부터 새벽까지 독일군은 네델란드와 벨지움에 대하여 무차별 폭격을 가한 후 일출 무렵에 지상군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낙하산부대는 네델란드와 벨지움에 낙하하여 강상의 주요 교량과 기동로상의 요새지를 장악하였다.

네델란드로 침공한「퀘흘러 (Kuechler)」장군의 제 18군은 맹진격을 감행하여 당일에 제 1, 2방어선을 돌파하였다. 이튿날 연합군의 예비대인 프

랑스의 제7군은 독일 공군의 치열한 공중폭격을 무릅쓰고 네델란드를 지원하기 위하여 〈브레다〉에 도착하였으나 격퇴당하여 네델란드의 최후 방어선인 요새지역으로 몰리고 말았다. 독일 공군의 〈로테르담〉 상업지역에 대한 맹폭격으로 대량 인명피해가 나자 네델란드는 항복하고 말았다.

[그림 3-3] 〈독·불 전쟁〉 시 『독일』 군의 기동계획 요도



* 출처 : 박기련(1989), p.34.

또한 벨지움으로 침공한 「라이헤나우」 장군의 제 6군은 낙하산 부대의 요충지 점령으로 신속하게 진격할 수 있었다. 특히 11일에 실시된 〈에벤에마엘(Eben Emael)〉 요새에 대한 공수작전의 성공은 강력한 〈알베르트(Albert)운하〉를 연한 방어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벨지움군은 〈딜(Dyle)〉 선으로 철수하여 영·불군과 합세하였다. 독일 제 6군의 벨지움 공격이 워낙 맹렬했기 때문에 연합군은 독일군의 주공이 예상했던 대로 북쪽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주공인 A집단군은 「클라이스트」 기갑군을 선두로 하여 〈아르덴느〉 삼

림지대를 신속하게 돌파하였다. 그 가운데 최선봉을 담당한「구데리안」장군이 지휘하는 기갑군단은 13일〈뮤즈강〉에 도달하고,〈세당〉부근에서 지체없이 단 하루 만에 전 군단이 도하를 완료하였다. 또한「라인하르트」기갑군단은 하루 늦은 15일에 도하하였다.

사실〈뮤즈강〉을 최초로 도하한 부대는 제 4군 소속의「롬멜」장군이 지휘하는 제 7기갑사단으로서「구데리안」기갑군단보다 하루 앞선 13 일에〈디낭〉근처에서 도하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A 집단군은 프랑스의 제 2군과 제 9군 사이에 약 50마일의 간격을 형성함으로써 돌파에 성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합군의 D계획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

〈뮤즈강〉을 도하한 후 독일군의 기갑군은 경이적인 진격을 하였다. 독일군은 18일에〈솜므강〉의〈페론뉴〉에 도달하였고, 20일에는〈아브빌〉에, 21일에는〈불로뉴〉에 도달함으로써 영국 원정군의 병참선이 차단되었고, 프랑스군은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룩셈부르크』의 동쪽 국경에서 출발하여 대서양 해안에 도달하기 까지의 11일간에 걸친 선풍적인 진격작전에서 독일군은 총 240마일 이상을 기동한 셈으로써, 이는 군사작전이라기 보다는 그냥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었다.

이 시기에 독일군의 기세는 마치 해일이 일어난 것과 같이 어떠한 노력도 이를 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사실 프랑스군의 역습이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라옹〉근처에서「드골」장군이 지휘하는 제4 기갑사단에 의해 실시되어 독일군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으나, 전쟁의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프랑스군 지휘체제의 마비로 어떠한 조치도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프랑스의 지상군 총사령관인「가믈렝」장군은 상황을 파악할 수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쩔쩔매다가 19일에「웨이강(Weygand)」장군으로 교체되었다. 이 동안에 독일군은〈깔레〉와〈오스땅〉마저 점령하여 북부전선 연합군의 퇴로는 이제〈당케르크〉만이 남게 되었다.

이 때에 독일의「히틀러」총통이 진격중지 명령을 내려 3일간 독일군은〈당케르크〉전방 10km 지점에서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동안 연합군은 가능한 모든 선박을 동원하여 중장비는 모두 버려둔 채, 영국군

224,000 명과 벨지움군 113,646명 등 총 338,226 명이 구출되었다.

독일군은 〈당케르크〉 를 점령한 후 6월 5일 제2단계 작전을 개시하였다. 조공부대인 「보크」 장군의 B집단군이 〈솜므강〉 하구와 〈아미앵〉 부근에서 도하공격을 개시한 지 나흘 후인 6월 9일에 주공인 A집단군은 〈파리〉 동부에서 「구데리안」의 기갑부대를 선두로 공세를 개시하였다. 12일에는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돌파에 성공함으로써 이후 대추격전을 감행하였다. 14일에는 〈파리〉 가 무혈로 점령되었고, 17일에는 「구데리안」 군이 『스위스』 국경에 도달함으로써 〈마지노선〉 후방의 프랑스군 500,000 명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이 때에 「레프」의 C집단군도 전면 공격을 개시하여 16일에는 〈마지노선〉 을 돌파하였다.

3) 전쟁의 결과

프랑스는 내각에서 휴전을 하기로 결정하고, 6월 22일에 휴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독·불전쟁은 종결되었다. 46일 간에 걸친 전쟁에서 독일군은 전사 27,000명, 실종 18,000명을 포함하여 총 156,000 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 영국은 68,000명, 프랑스는 전사 및 실종이 123,000명, 포로가 20만 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영·불 연합군의 장비는 모두 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하여 영국 본토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태부족하여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지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전사 및 실종자의 통계에 네델란드와 벨지움군은 누락되었고, 〈당케르크〉 에서 철수한 33만 8천여 명의 병력은 사실상 포로가 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포로가 6십만 명이 넘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전쟁의 결과로 독일은 유럽의 패권을 쥐게 되었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한 영국은 전쟁 계속이 어려우므로 이제 독일군은 동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중동 및 아프리카로 관심을 전환하였다.

4) 전쟁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이 독·불전쟁은 현대 기동전 사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다. 무엇보다도 현대의 전쟁 중에서 소모전 이론과 기동전

이론이 가장 대조적이면서도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 전쟁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졌던 세 명의 전략사상가(풀러, 리델.하트, 두헤)가 소모전적 전쟁형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동전적 전쟁형태의 발전에 대하여 예고한 사실도, 전차와 항공기 등 전장을 지배할 새로운 무기 및 장비의 개발도 모두 연합군 측에서 먼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합군 측 국가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에 의해 채택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의 상대국인 독일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에 의하여 채택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개발한 전쟁이론과 무기에 의해 도리혀 참담한 패배를 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해 분석 및 평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이 강대한 4개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46일 만에 단기전으로 종결되었다. 소모전 이론이 지배하였던 제 1차 세계대전과는 현저하게 대조되는 점이다.

둘째,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보다 포로의 수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 또한 제 1차 대전과 크게 차이나는 점이다.

셋째, 독일은 연합군에 비하여 우수한 정보능력을 발휘하였다. 독일군은 전쟁 전에 연합군 측의 전쟁계획과 영·불군의 군사 지도자들이 소모전 이론에 크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독일군의 선봉장이었고, 또한《전격전(Blitzkrieg)》교리의 창시자인「구데리안」장군은 그의 저서에서 "우리의 적들은 전차가 1918년에 자기들의 승리에 커다란 수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지전의 개념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116], "적의 전투서열 및 독일군 진격 시초에 예기할 수 있는 적의 반응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승리에 대한 나의 신념에 기여한다"[117]라고 기록하여 독일군 수뇌부가 연합군의 계획과 대응전략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작전간 공군의 정찰과 오열의 활동 및 기갑정찰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였고, 또 대부분의 기갑차량에

116) 김정오(1990), 전게서, p.164.
117) 상게서, p.166.

무선통신장비를 장착하고 있어서 최신 정보를 필요한 지휘관에게 전파하여 활용하였다. 이 때에 공중정찰을 적극 활용한 것은「풀러」가 "전쟁 개시에서 공군력의 유리점은 결정적인 행동보다 정찰에 있을 것이다"[118]라고 예견하였던 바와 같은 것이다.

넷째, 독일군은 우수한 기동속도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당시 프랑스군사 지도자들의 사고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군의 신속한 전투수행 속도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개전 후 6 주 만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동속도는 상대적인 것으로 영·불 연합군은 속도의 전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이다.

다섯째, 이 전쟁은 독일군 기갑부대의 맹렬한 기세에 의해 승리한 전쟁이다. 이러한 기세가 영·불군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프랑스 군의 부분적인 역습과 대응조치도 전쟁의 대세를 바꾸지 못했던 것이다.

여섯째, 이 전쟁은 완전한 전략적 기습에 의해 균형이 깨뜨려진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기습은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연합군 수뇌부에서 제 1차 세계대전의「슐리펜」계획의 재판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차기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고려되어 방어준비가 가장 미약했던〈아르덴느〉삼림지대로 주력을 지향하고 종심 깊은 배후 기동으로 물리적 기습을 달성한 것이다. 또한 독일군은 교리적인 기습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연합군의 방어중심의 교리에 대해 독일군의 《전격전》 교리가 전쟁수행방법에서 장교단의 사고를 지배하여 정신적인 기습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전쟁사가들도 "서부전선에 있어서 승패의 원인은 결국 현대전의 수행방식에 대한 개념의 차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119]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일곱째, 이 전쟁은 심리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다. 일찍이 독일은 심리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수준에서 심리전 장관을 임명하여 국가 전략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군 최고사령관의 마음이 교란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는 사이에 전군의 사기가 붕괴되어 군

118) 강창구(1995), 전게서, p.90.
119) 육군사관학교(1982), 전게서, p.341.

대 조직이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그야말로「손자」가 병법에서 언급한 “3군의 사기를 붕괴시킬 수가 있으며, 적 사령관의 심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三軍可奪氣 將軍可奪心)”라는 비법이 실현된 것이다.

여덟째, 영·불연합군은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패배한 것이다. 독일군은 ‘임무형 지휘’[120]제도에 따라 상급 지휘관이 많은 권한을 예하 지휘관들에게 위임하여 분권화지휘를 한 반면에 영·불 연합군은 중앙 집권형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작전이 상급 지휘관의 세부적인 명령에 따라 실행되었다. 그러나 독일군의 예상 밖의 작전템포와 전략적 기습 그리고 해일과 같은 기세에 의해 영·불 연합군의 모든 지휘조치도 성공가능성이 의심스러워지자 상급사령부의 어떠한 명령도 전혀 실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사실상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버렸던 것이다.

아홉째,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승리한 전쟁이었다.『룩셈부르크』를 제외한 영국, 프랑스, 벨지움, 네델란드의 4개 국의 자원을 합한다면 사실상 독일보다 훨씬 우세한 전력이다. 영·불 연합군만 하더라도 독일군보다 약간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전차의 수는 오히려 영·불 연합군이 더 많았지만 보병지원용으로 분산 운용하였고, 독일군은 10 개 기갑사단에 집중편성하여 기갑군 및 기갑군단 위주의 기동주축 부대로 운용하였던 것이다. 《전격전》 교리와 기갑군 및 기갑군단 구조, 공군의 기갑부대 집중지원,「만슈타인」,「구데리안」,「롬멜」장군과 같은 역동적인 지휘관들의 탁월한 리더십 등 이러한 제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경이적인 승리를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열째, 전략개념 및 군사교리에 부합되는 군사력 건설이 승리의 바탕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군은 《전격전》 교리를 발전시키고, 이에 부합되는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창설, 전차의 기갑부대 집중 편성, 급강하폭격기 등 공군의 지상 기동부대와의 합동작전, 지상군 부대의 제병협동 전투개념과 이에 부합되는 부대구조 등 기동전수행에 필요한 군사력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연합군은「풀러」의 기계화전 교리가 선행 발전

120) 독일군에서「비스마르크」시대부터 약 100년에 걸쳐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지휘통제 방법임. 상급지휘관 의도의 범위 내 하급지휘관의 자유 재량권을 부여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방법은 부하가 상황에 맞게 찾아서 수행하는 창의적인 지휘통제방법임.

되었고, 1차 대전시 전차와 항공기의 위력을 스스로 체험하였음에도 교리에 부합되는 군사력 건설을 등한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전장에서 노출이 되었지만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4. 이스라엘의 대 『아랍』 6일 전쟁[121]

이 전쟁은 생존권을 확보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의지와 이를 거부하는 『아랍』 측의 의지가 충돌하여 일어난 것이다. 『에짚트』의 「나쎄르」 대통령이 『아랍』의 맹주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하여 〈티란(Tiran)〉 해협을 봉쇄하고자 함으로써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이스라엘』의 국방상 「다얀」 장군은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시간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미국과 쏘련 등 강대국이 개입하기 전에 군사적인 결과를 『이스라엘』 측에 유리하게 전개시켜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1) 양측의 전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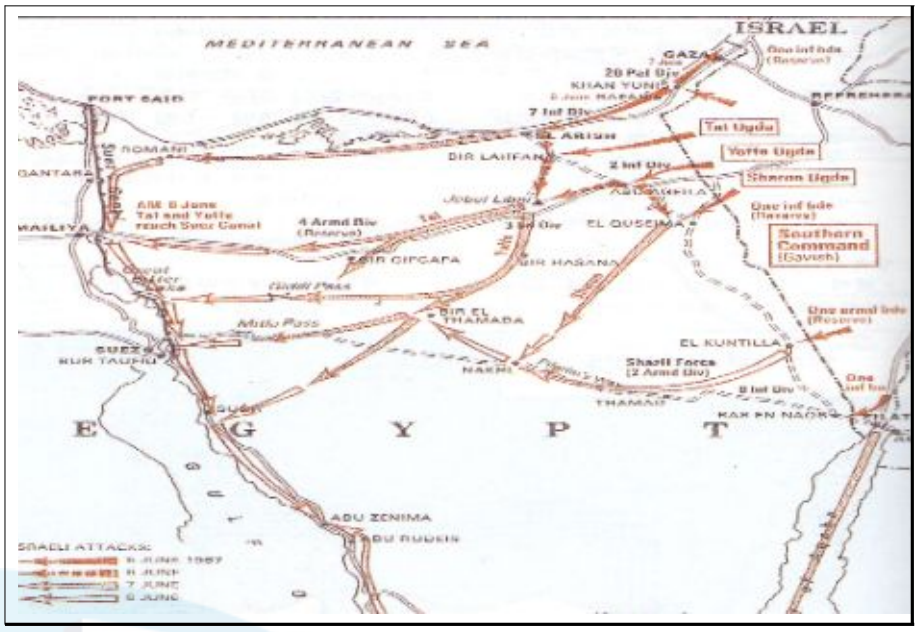
『이스라엘』은 기동전 전략개념에 입각하여 속전속결에 의한 단기전으로 전쟁을 종결짓고자 하였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내선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위협의 현상과 강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시리아』와 『요르단』 방향보다는 『에짚트』를 우선적인 적으로 보고 계획을 하였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군작전은 3단계로서 먼저 『에짚트』의 공군을 무력화하고, 제 2단계로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의 공군을 무력화하여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제 3단계는 지상 및 해상 작전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상 작전은 『시리아』와 『요르단』 방향은 일부 부대로 견제하고, 주력은 『에짚트』를 선공하되 〈수에즈(Suez)운하〉 동쪽에서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여 격멸하려 하였다. 이어서 군의 주력을 『시리아』와 『요르단』 방향으로 전환하여 공격함으로써 군사적으로 유리

121) 육군사관학교(1982), 전게서, pp.565-572.

한 상황을 조성하여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림 3-4] 이스라엘의 대『에짚트』〈6일 전쟁〉약도



* 출처 : 육군사관학교(2007), p.150.

한편,『아랍』측은 최초『이스라엘』공격을 흡수하고, 1단계로『이스라엘』의 공군력을 분쇄하여 제공권을 장악하고, 2단계에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3면 공세로 나아가『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계획하였다.『아랍』측의 지상 작전계획은 주력군이〈시나이반도〉의〈쿤필라〉에서 출발〈네게브〉를 통하여『요르단』군과 합류하여 〈네게브〉지역을 고립시키고, 또 한 부대는〈엘아리쉬〉에서〈텔아비브〉북방으로 진격하여 그곳에서『시리아』,『요르단』,『이라크』군과 합류하여 3면 공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전쟁 전에〈시나이반도〉와〈가자지구〉에는『에짚트』군 7개 사단과 900~1,000 대의 전차와 수백 문의 중포가 배치되어 있었다.

2) 작전경과

『이스라엘』공군은 1967년 6월 5일 07:45 지상공격이 개시되기 1시간

전에 선제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시간은 『에짚트』군의 일과시간 전이므로 집무에 바쁠 것이고, 안개가 걷히는 쾌적한 조건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최초『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비행장부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아랍』측의 항공기를 공격하였다.『에짚트』의 항공기는 총 884 대중 초일 기습공격으로 비행장에서 431대가 지상 파괴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 나머지 『아랍』측의 항공기와 비행장을 강타하였다.

『이스라엘』군「탈(Tal)」사단은〈라파〉에서 돌파하여 1개 여단은〈가자지구〉로 진격하고, 사단의 주력은〈엘아리쉬〉를 조기에 점령하고 전과확대 작전으로 전환하여〈이스마일리아〉까지 맹진격한 후「요페(Yoffe)」사단과 합류하였다. 「샤론(Sharon)」사단은〈시나이반도〉중앙에 있는 〈움가타프(Umm Gataf)〉에서 시간표와 같은 정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요새화된『에짚트』군의 방어진지를 완전작전으로 돌파하여「요페」사단의 초월공격을 지원한 후 포위된 적을 격멸하였다.

「요페」사단의 1개 여단은『에짚트』군이 도저히 통과하지 못하리라고 판단한 사막지역을 통과하고, 사단의 주력은「샤론」사단을 초월하여 〈수에즈운하〉로 가는 도로상의 애로지점을 점령하여 반도 중앙지역에 배치되었던『에짚트』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여 포위하였다. 이어서 사단은〈수에즈운하〉에 도달하여「탈」사단 및〈샤름 엘 쎄이크〉에 투하된 공수부대와 연결함으로써〈시나이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역 내『에짚트』군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요르단』의 전 지역에서는「나르키스」준장 지휘하에 3개 예비 여단을 운용하였다. 작전 초일 오후『요르단』군의 공격에 대하여 역습을 실시하여 6월 8일 요르단강까지 진격하였다.

『시리아』지역의〈골란고원〉에서는『에짚트』와『요르단』에 대한 전투행위가 모두 끝난 6월 9일 아침에 전투가 시작되어 그 다음날 저녁 정전(停戰)과 함께 종결되었다. 이 지역의 험준한 지형과 『시리아』군의 저항을 극복하면서『이스라엘』군은 작전 초일 두 지역에서 돌파하여 6월 10일에는〈쿠네이트라〉를 점령하고,〈다마스커스〉로 진격하려 하였다.

3) 전쟁의 결과

이 전쟁의 결과『이스라엘』은 전쟁 전의 영토보다 3.5배나 되는 영토를 획득하고, 800여 대의 전차와 수천 대의 차량을 노획하였다. 특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내지 심리적인 이점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 영토가 넓어져『아랍』측의 침공에 대한 완충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아랍』권의 적대의식을 완전히 불식시켰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을 남겨두고 미국과 쏘련의 중재로 6월 10일 휴전협정에 조인하여 일단 종결되었다.

4) 전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이 전쟁은 최초『이스라엘』수뇌부가 고려했던 것처럼 강대국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 군사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든 후에 정치적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이스라엘』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이 전쟁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전쟁은 현대전의 특징과 같이 초단기간 내 종결되었다. 비록 선제공격으로 시작되긴 하였지만 커다란 군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이스라엘』은 6일 만에 전쟁을 종결시킨 경이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둘째, 이 전쟁은 주도권의 전쟁이었다. 물론 기동전 형태의 대부분의 전쟁이 주도권을 쥔 특징이 있지만, 이 전쟁은 시초부터『이스라엘』이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전세를 주도하여 끝까지 유지한 전쟁이었다.

셋째, 이 전쟁은 피·아 양군의 살상률이 매우 낮은 반면에 포로의 숫자가 많은 전쟁의 도덕적인 측면이 크게 회복된 사례이다. 극히 짧은 기간 내 전쟁이 종결되었고, 화력의 사용에 의한 살상과 파괴보다는 기동을 수단으로 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살상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결과로『이스라엘』은『아랍』측 국민들에게 원한과 보복의 심리를 가지게 하기보다는,『아랍』측 국민들에게는 영토와 자원이 훨씬 크고 많은 나라가 연합하였으면서도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의 무능으로 패배한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키워준 전쟁이었다고 할 것이다.

넷째,『이스라엘』은 우수한 정보전을 수행하여 이겼다. 전쟁을 기도하는『에짚트』의「나쎄르」대통령의 의도로부터 전쟁 시작 전에『아랍』측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이 결과 전쟁 초일에『에짚트』의 공군력을 지상 파괴로 무력화하고, 전쟁개시 시간의 선정도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다. 기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막지역에 대한 기갑부대의 기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형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정확한 정보는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다섯째,『이스라엘』은 시간에 의한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이다. 최초 강대국의 전쟁개입 이전에 군사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적 고려사항부터『이스라엘』은 시간을 전략적 자원으로 사용하여 부존자원의 부족을 대체함으로써 승리한 것이었다. 또한 작전에서도「샤론」사단의〈움가타프〉공격전투와 같이 시간표를 짠 것처럼 정밀한 작전계획을 一전쟁에서의 '간명(簡明)'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모세 다얀」국방상까지도 현지 방문시에 우려하였다고 함一수립하여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겼다.「탈」사단의 경우『에짚트』군의 최초 방어진지를 돌파한 다음에 1개 전차 특수임무부대로 하여금 2 시간 내에 80km를 기동하여〈아부 아게일라〉에 있는『에짚트』군의 7 사단 사령부를 유린하는 등 작전의 속도가『에짚트』군의 상상을 초월하였기 때문에,『에짚트』군 최고사령부에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조치를 단행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시간에 의한 전쟁은 공간과 유형전투력의 가시적인 현상에 익숙된 인간 군상들에게는 불가사의한 전쟁의 개념이었던 것이다.

여섯째, 이 전쟁은 완벽한 기습을 달성한 대표적인 사례였다.『이스라엘』군의 전략적 기습은『아랍』측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달성되었다.『에짚트』군의 모든 지휘부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주요 사령부의 상황파악과 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아침 안개와 레이다 사각을 이용하여 저공비행함으로써 완벽한 기습을 달성하여『에짚트』군 주요 비행장의 항공기가 시동을 걸기도 전에 지상에서 파괴되어 회복불능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공군이 최초 충격에서 깨어 나기도 전에, 지상군이 『에짚트』 군의 예상을 뒤엎고 사막으로 기동하여 측·후방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곱째, 『이스라엘』 군의 공격기세에는 『아랍』 측의 어떠한 대응조치도 공허한 것으로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군의 기습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지상군의 최초 방어진지 돌파에 이어진 공격기세는 질풍노도와 같이 『에짚트』 군의 진지와 〈시나이 반도〉 를 휩쓸었다. 상급사령부의 차후명령은 전차의 연료가 고갈될 때까지 무조건 "〈수에즈 운하〉 로 가라!" 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세에 짓눌린 『에짚트』 군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며, 도망가는 일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여덟째, 이 전쟁은 『아랍』 측의 군대조직의 심리가 붕괴되어 조기에 승리한 사례이다. 『이스라엘』 군의 최초 기습으로 공황상태가 된 후에 『에짚트』 군이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와 기세로 전장을 휩쓸었기 때문에 『에짚트』 군 수뇌부는 상황파악과 조치가 불가능하였고, 장병들은 조기에 사기가 붕괴되어 군대 조직이 붕괴되어 버렸다.

아홉째, 『에짚트』 군의 지휘체계를 마비시켜 승리한 전쟁이다. 공격 초일에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으로 주요 사령부가 공격받아 지휘 및 통신시설이 크게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요 사령부가 전반적인 작전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작전의 진행 상황에 부합되는 어떠한 지휘조치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하부대는 상급부대로부터 필요한 명령을 수령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저 부대 단위로 개별적으로 살기 위해 철수하는 일 밖에 다른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에짚트』 군은 지휘체계가 조기에 마비되어 군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열째, 이 전쟁은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승리한 현대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스라엘』 은 인구수나 국토의 면적에서 『아랍』 연맹체와는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열세한 국가이다. 『아랍』 연맹체는 『에짚트』 를 비롯한 5개 국가로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며, 쏘련제 현대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스라엘』 이 승

리한 요인은 전쟁수행방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델하트)가 이스라엘 군사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과 이스라엘군의 인상 깊었던 대부분의 승리가 그의 간접접근 이론을 적용한 결과였음이 널리 인정이 된다"[122]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리델.하트」의 간접접근전략 이론이 이스라엘 군사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결과가 이런 승리를 이룩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자주적인 전쟁수행방법과 이에 부합되는 군사력 건설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전쟁에서 우수한 전략개념과 군사교리, 소수의 정예군대, 전문직업 장교단의 훌륭한 리더십은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승리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것이다.『이스라엘』 군은 국토와 자원이 열세이기 때문에 속도에 기반을 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이스라엘』은 공군력과 기갑 및 공수부대 위주의 정예 군대를 건설하였다. 제공권을 상실하면 지상전에서 속도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육군은 여단을 작전술의 기본 단위부대로 하여 상황에 따라 사단에 여단을 편조시켜 집중과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레고형 부대로 편성하여 융통성 있게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5.『이스라엘』의 대『아랍』10월 전쟁

《욤 키푸르(Yom Kippur)》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제 4차 중동전은 그 전쟁기간에 비해 쌍방의 피해가 막대한 특징을 나타낸다. 6일 전쟁 이후 전쟁의 결과로 빚어진 영토의 상실과 전력의 괴멸사태는『아랍』측 특히『에짚트』에게는 참기 어려운 수치이고, 자존심에 커다란 손상을 입었으며,『아랍』연맹에서도 그 영향력이 크게 손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쎄르」몰락 이후『에짚트』의 대통령이 된「안와르. 사다트(Anwar. Sadat)」는 몇 년간『에짚트』군을 주도면밀하게 재건하였다. 그는『시리아』 대통령「하파즈.알.아사드(Hafaz.al.Assad)」를 설득하여 성취 가능한

122) 주은식 譯(1998), 『리델 하트 사상이 현대사에 미친 영향』, 서울 : 홍문당, p.255.

군사전략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즉 국제연합의 종전안이 발표되기 전에 〈수에즈운하〉 건너편에 실질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고, 〈골란고원〉 을 탈환하여 외교적인 교착상태를 풀며, 군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략을 바탕에 깔고, 『아랍』 측은 은밀하게 전쟁준비를 한 후 국제여론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기를 틈타 1973년 10월 6일 14:00시를 기하여 전면공격을 개시하였다.

1) 양측의 전쟁계획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국가전략은 한 마디로 생존 그 자체였다. 전쟁 발발시 군의 정보계통이 시민군을 소집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을 만큼 사전 경보를 발하리라는 믿음은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 되어 있었다. 그 이후에는 48시간 이내에 반격을 개시하고 전장을 적의 영토로 이동시켜 기존 영토를 방호하는 것이다.

예비군을 소집하는 데에는 72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이전에 적의 침공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부대 규모는 사전에 결정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와 〈골란고원〉 및 〈예루살렘〉 지역의 영토가 확장되어 『아랍』 측의 침공시 완충공간이 있기 때문에 3차 전쟁까지의 공세전략을 수정하여, 수세一공세전략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로 인하여 내선전략은 변함이 없었다. 제 3차 전쟁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시리아』 방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에짚트』 방면으로 전환하여 『아랍』의 침공기도를 분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골란고원〉과 〈시나이반도〉를 연한 국경선을 연해서는 요새화된 전초진지를 설치하여 『아랍』 측의 위협에 대하여 조기경보를 하고, 능력 범위 내 돌파를 방지하여 최대한 지연하면서, 방어부대의 전개와 역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국경선을 방어하는 작은 규모의 부대는 주력인 예비군이 동원될 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저지 및 지연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주력인 예비군이 동원되면 48시간 이내에 반격을 개시하여 『아랍』 측의 전쟁의지를 분쇄하는 계획이었다.

한편,『시리아』군의 목표는 36시간 이내에〈골란고원〉전체를 점령하고,〈요르단강〉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을 위해 3개 보병사단과 2개 기갑사단, 그리고 특수부대 및 포병부대들이 있었다.

『시리아』군은 수적 우위를 이용하고자 넓은 전선에 걸쳐 진격함으로써『이스라엘』군을 넓은 정면에 분산시킬 수밖에 없도록 압박할 계획이었다. 먼저 특수부대가 전선 최북단〈헤르몬산〉에 있는『이스라엘』 군의 전자정보기지를 급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쪽의 7 보병사단이 『이스라엘』군을 고착시키는 가운데, 9 보병사단이〈쿠네이트라〉로 향하는 병참선을 차단하고 이어서〈요르단강〉의 도하지점까지 진격할 예정이었다. 이때에 5 보병사단은〈라피드〉인근을 돌파하여『이스라엘』의 병력 대부분을 포위하기로 하였다. 5 보병사단이〈라피드〉남서쪽에서 돌파할 경우 제1 기갑사단이 초월하여〈요르단강〉으로 진격할 것이며, 3 기갑사단은 예비로서 1 기갑사단을 후속하기로 하였다. 기갑부대와 공수부대가〈요르단강〉상의 교량들을 점령하면 이후『이스라엘』군 동원사단들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 선 이상의 진격은 엄격히 통제되었으며, 국제연합의 종전협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에〈골란고원〉일대의『이스라엘』군은「바라크」여단이 전초진지와 함께 광정면을 경계 및 방어하고 있었으며, 6일 전쟁 후 대전차구를 설치하고, 이 대전차구를 연하는 선에서 정지해 있는『시리아』군의 전차들을 사격하기 위하여 유효사거리 선에서 방벽 및 사격진지를 구축하였다. 동원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라폴」사단,「라너」사단,「펠레드」사단의 3개 기갑사단이 반격을 실시할 것이었다.

『이스라엘』이〈시나이반도〉에 평시에 배치하는 전력은「만들러」기갑사단으로서,『에짚트』군의 초기 공세를 저지하면서,〈수에즈운하〉에서 멀리 떨어져 집결 보유한 전차로 가능한 신속히 역습을 가하는 것이었다. 몇 개 중대는〈바레브라인〉[123]을 따라 구축한 전방 방어진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대단위로 배치했다.

「샤론」장군이 남부사령관 시절 때〈바레브라인〉곳곳에 도하지점을

123) 3차 전쟁후『이스라엘』국방군 참모총장「바레브」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방어선임. 〈수에즈운하〉를 연하여160여km에 걸쳐 설치된 방벽과 방어진지로 구성된 방어선임.

마련해 놓음으로써『에짚트』가 적대행위를 개시하면 48시간 이내에 대규모 반격을 가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두었었다. 〈바레브라인〉 상 전초진지는 30개소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전쟁발발 당시에는 고작해야 예비군 468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동원이 완료되면「아단」사단,「샤론」 사단,「마겐」사단이 반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반도 남부에「가비쉬」사령부가 경계에 임할 것이었다.

한편,『에짚트』군은 최초 기습공격을 실시하여『이스라엘』군이 결정적인 대응에 나서기 전에 제한된 목표를 달성한 뒤 이를 확고히 할 예정이었다. 3차 전쟁시와 달리『에짚트』와『시리아』가 양면에서 동시에 기습공격을 하면『이스라엘』군의 전력이 분산되어 어느 한 방향으로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차 전쟁의 패인을 분석한 결과『이스라엘』군에 비하여 공군력과 기갑전력이 약한 것인데, 이를 대공 및 대전차 미사일로 보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운하 건너편의 모래방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독에서 고압펌프를 구입하여 450개의 호스로 불어낼 계획이었다.『에짚트』군의 전력은 제 2군에 4개 사단, 3군에 4개 사단 그리고 예비로 1개 기계화사단과 1개 기갑여단 및 특수전부대가 있었다. 병력은 315,000 명 전차 2,200 대, 장갑차 2,400 대, 대전차 미사일 900 기, SAM 850 기, 대공미사일 2,000 기, 항공기 600 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2) 작전 경과

『에짚트』와『시리아』는 유태교의 종교적 축일인 욤키푸르(Yom Kippur), 즉 속죄일인 10월 6일 14:00시에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공격에서 기습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훈련을 가장하여 전방 운하 가까이에 공격에 필요한 주요 장비들을 추진 및 위장하였다. 또한 원거리 관측용 모래탑을 설치하고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배치하여『이스라엘』군 전차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이스라엘』군의「다얀」국방상은 북부군 사령관「호피」장군의 조언에 따라『시리아』군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7 기갑여단의 77 전

차대대를 「바라크」여단에 증강하고, 이어서 7 기갑여단과 증원 포병을 북부 군사령부에 보내 집결시켰다. 그리하여, 〈골란고원〉 전선에는「바라크」여단과 7 기갑여단의 2개 여단이 방어에 임하게 되었다.

『시리아』군은 82 공수대대가 〈헤르몬산〉의『이스라엘』군의 전자정보부대 기지를 강습하여 탈취하였다.『이스라엘』의「골라니」여단이 이를 재탈환하고자 10월 8일 공격하였으나 커다란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9 보병사단이 〈쿠네이트라〉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공격하고, 7 보병사단이 정면공격을 하자 위협을 느낀 북부사령부에서 7 기갑여단을 〈골란고원〉의 북부지역으로 투입하여 〈부스터고지〉 및 〈눈물의 계곡〉 일대에서 8일까지 역사적인 방어전을 펼쳐 『시리아』군 3 개 사단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하였다. 7 여단은 여단 전체의 전차가 7 대만 남을 때까지 이곳을 지키고,『시리아』군의 전차 260 대를 포함한 기갑차량 500여 대를 격파하였다.

제 5보병사단이 〈라피드〉 전방에서 일부 진지를 돌파하자,『시리아』 군 총사령부에서는 1 기갑사단을 그 방향으로 투입하여 〈요르단강〉의 교량과 〈나페크〉 사령부를 향해 진격함에 따라「바라크」여단이 치열한 전차전에 돌입하고, 진두에서 상황조치를 하던 여단장「벤 쇼함」대령이 전사하여 큰 위기를 맞았다. 바로 그 순간에 동원된 679 기갑여단의 선발대가 도착하여 『시리아』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10월 7일「다얀」국방상이 〈골란고원〉 전선의 심각함을 인식하고「바레브」장군을 북부사령부에 보내 사태수습의 전권을 위임했다. 「바레브」장군은 동원을 더욱 신속하게 집행하고 「라너」사단 과「펠레드」사단을 전개시켜 위기를 수습하고 북부사령부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이어서「에이탄」사단과「라너」사단이 책임지역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 전선을 안정시켰다. 7일 날이 저물 무렵 〈나페크〉 일대의 골란 남부에만 250여 대의 전차가 격파 또는 손상된 채 널브러져 있었고, 이 가운데 150여 대가「라너」사단이 격파한 것이었다.

10월 7일 오후 『시리아』군 수뇌부 회의에서 골란 남부에는 17:00 시부로 진격을 중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기간 중『시리아』군의 방공망

에 의해『이스라엘』군의 공군기가 51 대나 격추되었다. 한편『에짚트』군은 10월 6일 14:00시 야포 2,000 문과 전폭기 240여대가 『이스라엘』군의 〈바레브라인〉상 제 1진지에 대하여 강타하였다. 14:20에 제 1파 병력 4,000 명이 돌격단정 720 척으로 도하를 개시하였다. 대전차미사일(Saggar)로 무장한『에짚트』군의 대전차 반이 운하를 도하하여 미리 마련된 사격진지에『이스라엘』군의 전차가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에짚트』군의 2, 18 보병사단이 15, 24 기갑여단의 지원 하에 제 2군의 공격을 선도하였다. 또한 16보병사단이 21 기갑사단의 지원 하에〈대비터호〉근처에서 도하공격을 하였다. 제 3군에서는 선봉인 제 7, 19 보병사단이 제 22, 25 기갑여단의 지원하에 운하를 도하하였다. 이렇게 하여 17:50까지『에짚트』군 병력 32,000 명이〈수에즈운하〉의 동쪽에 도달하였다.

『이스라엘』군은 6일 전쟁 후『에짚트』와 『시리아』가 1975년 까지는 침공할 전력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입수된 공격 징후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그러다가 5일이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선 10만 명을 동원하도록 허락되었다.『에짚트』군의 기습 공격 후 제 14, 460, 401 기갑여단이 역습을 감행하였지만,『에짚트』군의 계획된 대전차화기 및 미사일의 집중공격을 받아 대량의 피해를 입고 실패하였다. 이에 소규모 역습이 아니라 대규모 역습이 필요하다고「다얀」을 설득하여「엘라자르」참모총장이「아단」사단은〈엘.칸타라〉남쪽에서『에짚트』군 제 2군을 역습하고,「샤론」사단은〈타사〉지역에 대기하면서 상황에 따라「아단」사단을 지원하거나, 『에짚트』군 제 3군에게 역습을 감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아단」사단장은 8일 3개 기갑여단에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는데, 남부사령관도, 사단장도, 여단장들도 모두 사막의 구릉지대에 마련된 『에짚트』군의 근거리 대전차화기(RPG-7)로 구성된 전차 격멸구역의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실시된「아단」사단의 무모한 역습은 단시간 내에 대량의 전차를 상실하고 철수하였다. 급기야『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남부 군사령관「고넨」장군을 해임하고,「바레브」장군을 임명하였다.

『에짚트』군의 기세는 최고조에 달하여 10일에는 5개소에 걸쳐「아

단」사단을 공격하고, 21 기갑사단이「샤론」사단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는데,「샤론」사단은 능숙하게『에짚트』군 전차 50여대를 격파하여 물리쳤다. 이제『이스라엘』군은 무모한 역습보다 예비군 동원을 기다려 대규모 반격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에짚트』군은〈수에즈운하〉서안에 아직도 전차 330여 대가 남아 있어서 반격시에 위험에 처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좀 더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다.

〈시나이반도〉의 위협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이스라엘』은 내선전략에 따라 먼저『시리아』를 굴복시키기 위해〈골란고원〉방향으로 전력을 집중하였다.「다얀」을 통해 수상에게 보고된 반격계획은 휴전선을 넘어 20km의 돌파구를 형성한 뒤 방어태세를 갖춤으로써〈다마스쿠스〉를 장사정포의 사정권에 넣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안은 쏘련의 개입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시리아』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기리라 기대되었다. 공격개시 시간은 10월 11일 11:00로 결정했다. 〈쿠네이트라〉남쪽에서는「펠레드」사단이 전선의 2/3를 맡아『시리아』군을 고착하는 가운데〈골란고원〉북부에 집중하여〈다마스쿠스〉를 위협하는 동시에『시리아』군을 불리한 전투에 끌어 들인다는 의도였다. 최초 주공은「에이탄」사단이지만 일단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면「라너」사단이 초월하거나〈다마스쿠스〉가도를 따라 독자적인 공격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최초「에이탄」사단은 주공으로 7 기갑여단을 선두로〈헤르몬산〉기슭의 북쪽 가도를 따라 진격을 개시하여 요충지인〈마츠〉교차로를 점령하였다. 이어서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텔.샴스〉를 점령하자『시리아』군의 저항이 거세졌다.

「라너」사단은「에이탄」사단의 전면에 저항이 커지자 정면공격을 피하고 우회기동을 함으로써『시리아』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 때에『시리아』군 3 기갑사단이 역습을 실시해 왔으므로,「라너」사단장은 자루모양의 도약매복을 실시하여 기다리고 있었다.『이스라엘』군은 여명을 기다려 일제히 포문을 열어『이라크』의 8 기계화 여단은 몇 분 만에 괴멸되었고, 전차 80여 대를 잃었다. 이후〈다마스쿠스〉방어의 주역은 3기갑사단이 맡게 되었다. 13일 밤에『이스라엘』의 장사정포가 〈다마스쿠스〉인근의 군 비행장에 포격을 가하여 피해를 입혔는데 여기에 쏘련의 대형

수송기도 2대가 파괴되었다. 요르단의 40 기갑여단이『시리아』군을 지원하여「라너」사단을 공격해 왔으나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 21일 밤에『이스라엘』군은〈헤르몬산〉의 전자정보기지를 탈환하였다. 이제『시리아』전선은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이스라엘』군은 3개 기갑사단을〈시나이반도〉방향으로 전환하여『에짚트』에 반격할 준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다급해진『시리아』의 지원 요청으로『에짚트』의「사다트」대통령은 이를 모른 체 할 수가 없어 전쟁장관「이스마일」을 통하여〈기디〉및〈미틀라〉애로 방향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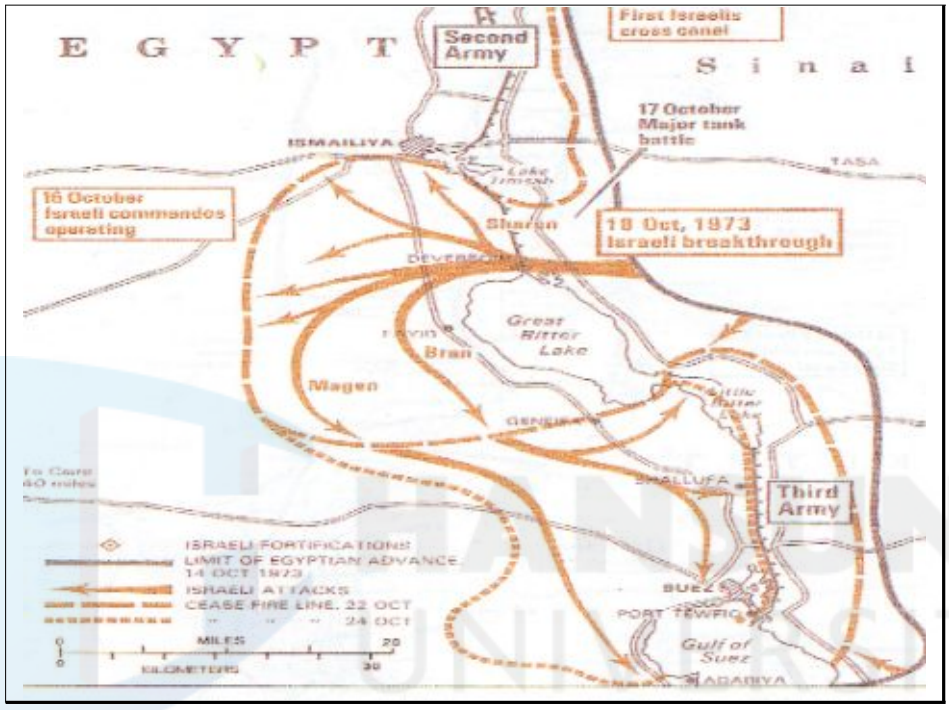
「샤즐리」 참모총장은『에짚트』군이 대공 방어망과 대전차방어 준비가 잘된 교두보선을 벗어나는 순간『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교두보 방어력은 그대로 두고 군의 예비전력인 제 4, 21 기갑사단을 진격시켜 공세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포병과 전폭기들의 지원 하에 제 23 기계화사단 소속 기갑여단이 공격 중「아단」사단으로부터 전차 50여 대를 잃고 물러났으며, 제 21 기갑사단 소속 1 기갑여단이 공격 중「샤론」사단의 14 기갑여단으로부터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고, 제 6 기계화사단의 여단이 〈기디〉애로를, 제 4 기갑사단 소속 3 기갑여단이〈미틀라〉애로를 공격하다가「마겐」사단으로부터 대량피해를 입었다.『에짚트』군의 공세는 2 시간 만에 완패로 막을 내리고 투입한 전차 400 대 가운데 260 대를 잃었다. 이제『이스라엘』군이 우려하던『에짚트』군의 예비대가 전선에 투입되어 약화되었으므로 반격의 기회가 온 것이다.

드디어「샤론」사단에게 역도하공격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남부 사령부의 공격계획은「샤론」사단이 돌파한 후 교두보를 확보하고 SAM 기지를 격멸하며, 부교를 가설하고,『에짚트』군의 역습으로부터 돌파구를 방호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어서,「아단」사단이 도하하여〈수에즈시〉방향으로 진격하여 『에짚트』군의 제 3군을 포위하며, 「마겐」사단이 「아단」사단을 증원하고, 서측방을 방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샤론」사단의 돌파와 도하장비 가설 그리고 교두보확보 과정에서 커다란 희생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으나, 사단장 특유의 의지와 추진력 그리고

상황파악 능력이 큰 자산이 되어 끝내 작전을 성공시키고, 운하 서안의 SAM 기지들을 소탕하여 『에짚트』군의 방공망에 커다란 회랑을 만들어 『이스라엘』군의 공중지원이 원활하게 되었다. 이후에 「아단」사단과 「마겐」사단은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돌진하여 〈수에즈시〉를 포위함으로써 『에짚트』군 제 3군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그림 3-5] 『이스라엘』의 〈수에즈 운하〉 역도하 공격 약도



* 출처: 육군사관학교(2007), p.154.

10월25일 UN안보리 결의안이 최종 휴전안으로 통과되면서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전쟁의 결과

20일 동안 진행된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입은 피해는 전사 3,459명, 부상7,704 명, 포로는 406 명이었고, 전차 400여 대, 항공기 107대를 잃었다. 『에짚트』군은 전사 12,000여 명, 부상 35,000 명, 포로 8,400 명, 전차

약1,000 대, 항공기 277 대, SAM진지 50 개소를 상실했다. 『시리아』 군은 전사자 3,100 명, 부상자 6,000 명, 전차 1,150 대를 잃었고, 『이라크』는 전사자 278 명, 부상자 898 명, 전차 200여 대, 『요르단』은 전사자 23명, 부상자 77 명, 전차 50여 대를 잃었다.

『이스라엘』은 최초 기습을 당하여 고전을 치렀으나 영토의 상실 없이 지켰으며, 기습을 당한 책임으로 정보책임자가 해임되고, 수상과 국방상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에짚트』와 『시리아』는 상실된 영토의 회복과 『아랍』 연맹에서의 영향력을 노렸으나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4) 전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욤키푸르(Yom Kippur)》 전쟁이라는 제 4차 중동전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전쟁은 소모전 사고를 가진 국가연맹으로부터 기습을 당하여 초기 주도권을 상실한 국가가 기동전을 수행함으로써 주도권을 탈취하여 승리한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사전 입수한 여러 가지 전쟁 도발에 관한 첩보를 무시하고 선입견에 비중을 둠으로써 초기에 기습을 당하여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전통적인 기동전 이론에 입각하여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주도권을 회복하여 내선전략으로 승리하였던 것이다.

둘째, 이 전쟁은 『아랍』 연맹의 전쟁목적과 수행개념을 보았을 때 장기 지구전의 성격을 띄었으나, 『이스라엘』의 기동전 수행으로 단기간에 종결된 전쟁이다.

셋째, 이 전쟁은 단기전이면서도 엄청난 파괴성과 소모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전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정밀 고가장비들이 대량 파괴되고, 현대무기의 정밀성과 파괴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스라엘』 군이 최초 기습을 당하여 위기에 처함으로써 위기탈출을 위한 과감한 공격과, 『아랍』 군의 전략과 전술이 바뀐 것을 모르고, 과거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무모한 공격을 한 결과 불필요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이 전쟁에서도 우수한 정보능력이 전쟁승패의 기초가 됨을 증명해

주었다. 『이스라엘』은 최초 방심하여 유용한 정보를 소홀하게 취급하였고, 『아랍』 연맹이 그들의 공군력과 기갑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방공 및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하고, 이를 운용할 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탐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주도권이 전환된 후에는 『아랍』 연맹이 전장정보 수집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즉 전쟁의 주도권은 정보능력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군의 상대적인 기동속도와 작전의 템포는 전쟁의 주도권 장악에 핵심요소이다.『이스라엘』 군은 최초 주도권을 상실한 가운데서 기갑부대의 기동속도와 기세에 의한 신속한 작전템포를 이용하여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탈취한 것이다. 또한 기동속도와 작전의 템포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제병협동과 군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다.『이스라엘』 군은 전차 단독으로 공격하다가 『아랍』 군의 대전차화기 및 보병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실패함으로써 기동속도와 작전템포를 증가시킬 수가 없었다. 또한 『아랍』 군은 제공권을 상실하여 공지합동작전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어서 매번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을 받고 작전에서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운용능력 부족은 기갑전에서 매번 패배하여 계획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섯째,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투력을 집중하여 승리한 것이다.『이스라엘』 군은 『아랍』 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열세하지만 우수한 기동성으로 시간적인 집중을 하므로써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집중한 것이다. 내선의 이점을 살려 이번 전쟁은 『시리아』 측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다음에 〈시나이반도〉 쪽으로 집중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한 내선전략의 성공사례인 것이다. 또한 반격시 〈시나이반도〉 의 중국인농장 일대와 〈골란고원〉 의 북쪽에서 좁은 정면에 1-3개 사단을 집중한 것은 집중과 절약을 교묘하게 적용한 좋은 사례인 것이다.

일곱째, 이 전쟁은 적 군대조직의 심리를 지배하여 승리한 전쟁이다. 『아랍』 측은 『이스라엘』 군의 공군력과 기갑전력이 우수함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방공 및 대전차방어 체계가 방호력을 제공하고 있는 교두보선 밖으로 나가서 작전하면 커다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고려 때문에 방책을 자유롭게 강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역도하하여 〈수에즈시〉 방향으로 배후기동을 하자 『에짚트』군의 제 3군은 총사령부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운하 서쪽방향으로 철수하는 등 군대조직의 심리가 무너져서 패배하게 된 것이다.

여덟째, 『이스라엘』군의 정신전력이 승리의 열쇠가 된 것이다.
전쟁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끼리 의지의 대결인 것이다. 『이스라엘』군은「다얀」국방상이 일찌기 강조한 '정신적 의지력에 의한 공격' 개념과 「라빈」장군의 "인간 불도자"개념이 군의 전통이 되어[124], 이번 전쟁시에는 5-6 일간 잠을 자지 않고 거의 탈진할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연속해서 작전을 수행 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신전력이 위기를 극복하고 적을 압도하여 승리를 창출하였던 것이다.

아홉째, 이 전쟁도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승리한 전쟁이다. 이 내용은 앞의 6일 전쟁시와 같다.

제 3 절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 도출

1.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 분석 및 평가 결과

앞의 제 2절에서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史例)를 분석 및 평가해 보면 기동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된다.

첫째,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는 모두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하여 경이적으로 승리한 전쟁이었다.「칭기스칸」은 12만 명의 군대로 40여만 명의『호레즘』군을 한번 배후기동 및 기습으로 승리를 결정지었으며,「누르하치」는 1만 명의 팔기군으로 12-13만 명이나 되는 『명(明)』의 연합군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승리한 전쟁이었다. 현대전에 있어서도 '독·불전쟁'의 경우『독일』은『프랑스』,『영국』,『벨지움』,『네델란드』의 4

124) 김희상(1977),『중동전쟁』, 서울 : 일신사, pp.259-260.

개 국을 상대로 열세한 상태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또한 제 3, 4차 중동전에서는『이스라엘』이『에짚트』를 비롯한『아랍』연맹을 상대로 현저하게 열세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으며, 특히 '욤 키푸르(Yom Kippur)' 전쟁에서는 선제 기습을 당하고서도 오히려 역전승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전쟁에서는 영토의 넓이, 인구 수, 기타 자원 및 재화의 다과(多寡)가 전쟁의 승패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에 자원의 우열(優劣)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전쟁수행 방법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전쟁수행 방법 즉 전쟁의 술(術:Art)과 과학(科學:Science)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는 단기전(短期戰)임을 보여 주고 있다.「칭기스칸」의 대『호레즘』전쟁은 약 7-8개월간 수행되었고,「누르하치」의 대『명(明)』전쟁은 4일 만에 종결되었으며, '독·불전쟁' 은 46일간,『이스라엘』의 대『아랍』전쟁은 각각 6일과 20일간 수행된 점은 소모전 전쟁 형태에서 수년간 장기 지구전으로 수행된 것과 매우 대조적이고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기동전 사례는 살상과 파괴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기동전은 우선 전쟁이 단기간에 종결되기 때문에 살상과 파괴가 소모전 형태의 전쟁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동전은 물리적인 파괴에 의한 자원의 소모보다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살상과 파괴율이 낮은 것이다. 그리하여, 피·아 국민의 고통과 참화(慘禍)가 감소되고, 원한과 보복의 악순환이 방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동전은 아군만이 아니라 적군도 살상과 파괴율이 낮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동전인 것이다.

넷째,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에서 승리한 국가의 군대는 기동성이 우수한 소수의 정예군을 건설하여 쉽게 편조(編組)하여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칭기스칸」의 '천호제(千戶制)' 군대와「누르하치」의 '팔기군(八旗軍)' 군대는 공통적으로 1,000 명 단위의 전원 기마병(騎馬兵)이었고, 이를 상

급 지휘관의 전략 또는 작전개념에 따라 쉽게 집중 또는 전환시킬 수 있도록 운용상의 융통성이 매우 높은 군대였다. 『독일』 군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기갑군·군단·사단의 개념으로 전차를 집중하여 대규모 기갑부대로 편성하고, 이를 보병 지원용으로 운용하기보다 독립적으로 기동성을 발휘할 주축부대로 운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사단단위로 다른 군이나 군단에 쉽게 편조하여 운용하였던 것이다.『이스라엘』 군은 기갑부대 중심의 여단단위로 제병협동작전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이 여단을 남부와 북부 사령부에서 예하 사단급에 쉽게 편조하여 집중 및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를 갖추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도로 높은 수준의 기동전을 수행하는 국가의 군대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매우 기동성 있고,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부대구조와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기동전에서 승리의 주요소는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있다.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기동전을 수행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비록 수적으로 우세한 군대라도 전세를 자기 의도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적에게 끌려갈 때에는 수적 우세가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한다. 적의 다양하고도 예상치 못한 방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부대가 소요되고, 또 분산시켜 운용하여야 하므로 결정적 시간과 장소에서 상대적 우세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전쟁이든 승리의 주요소는 주도권 장악에 있으며, 특히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서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여섯째, 기동전 승리의 기초는 정보능력에 있다.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에서 승리한 군대는 공통적으로 적보다 우수한 정보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휘관들의 정보에 대한 관심과 이를 수집, 분석, 평가, 전파 및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보다 능숙하고 또 시간적으로 빠르게 활용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동이 용이한 통로, 지형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 적의 의도, 능력, 강·약점 등을 잘 알고, 이를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일곱째, 기동전의 수단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이다. 기동성을 발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대의 기동속도이다. 그러므로 기동전은 다른 말로 속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칭기스칸」 군대와「누르하치」 군대는

현대 기갑 및 기계화 부대보다도 더 빠른 기동속도를 발휘하였다. 이들 군대는 말을 타고서 야지기동을 하는데 60-70km를 4-6 시간에 주파하였다. 2차 대전 당시『독일』군에서 기동속도가 가장 빠른 부대였다는 「롬멜」장군이 지휘한 제 7기갑사단의 15일간 평균 기동속도는 1일 약 22 km인데, 중동전에서『이스라엘』군은 1일 평균 50km가 넘는 기동 속도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125]

이와 같이 기동전의 승리는 부대의 기동속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부대의 기동 속도가 저하되면 전선이 교착상태에 이르러 소모전 형태의 전쟁으로 변한다.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고 기동속도가 유지되면 전쟁이 단기간에 종결되고, 살상과 파괴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쟁에서의 기동속도는 단기전 그리고 살상 및 파괴율의 전쟁결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여덟째, 기동전은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전력의 상대적인 우세를 획득하여 승리하는 전쟁이다. 기동전의 특성인 빠른 기동속도는 가용한 전력의 시간적 집중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성과 통합성을 달성함으로써 결정적인 전투에 통합전력을 발휘하게 하여 상대적인 우세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비록 열세한 전력이라 하더라도 기동속도의 차이가 시차별 집중을 달성하게 함으로써 적의 분산된 전력을 각개 격파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에서 전승의 공통적인 요소가, 전체적으로는 열세한 전력이지만 적보다 빠른 속도로 시간적 집중을 달성하여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는 항상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집중함으로써, 적을 각개 격파하여 승리하였던 것이다.

아홉째, 기동전은 기습을 달성하여 전세의 균형을 전복시켜 승리하는 전쟁이다.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이기는 비결 중에 바로 이 기습은 적의 조직심리[126]에 충격을 주어 전세의 균형을 일시에 전복시키기 때문

---

125) 육군대학(1985), "기동의 정량적 고찰", 『군사과학자료 제111호』, 대전 : 육군대학, pp.2-3.

126) 국어사전에 "심리(心理)"는 '마음의 움직임이나 상태', '그 때 그 때 외계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이나 동물의 의식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음. "조직심리"는 군대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일반적인 군중심리와 차별되는 위계조직인 군대조직 내에서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변화하는 집단심리의 상태라는 의미로 본 연구자가 사용하는 용어임. (이기문 감수(2010), 『동아 새 국어사전』, 서울 : 두산 동아(주), p.1625.)

이다. 이러한 기습은 적의 약점에 아군의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집중함으로써 달성되며,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일 경우에는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동전의 사례에서는 항상 기습을 달성하여 승리한 것이었다. 제 4차 중동전쟁의 경우에는 초기에『이스라엘』이 기습을 당했지만,『아랍』연맹이 초기 기습효과를 확대할 속도와 기세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얻은『이스라엘』이 조기에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고, 이어서『이스라엘』이 반격을 할 때에는『아랍』연맹의 약점에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집중하여 기습을 달성하고 기세로써 그 효과를 확대하여 승리를 쟁취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동전에서 승리하는 데에는 기습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열째, 기동전은 맹렬한 기세(氣勢)로 적을 압도(壓倒)하여 승리하는 전쟁이다. 기동전은 적의 최초 방어선의 좁은 정면이 돌파되면, 기동속도와 함께 전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댐이 붕괴되었거나 해일이 일어난 것처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태인 것과 같으므로, 적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군의 작전템포는 더욱 빨라지고, 부대의 사기는 충천(衝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동전은 기동속도와 함께 기세로 적을 압도하여 승리하는 전쟁인 것이다.

열 한 번째, 기동전은 적의 조직심리를 마비시키고 사기를 붕괴시켜 승리하는 전쟁이다. 군대는 인간으로 구성된 집단이면서 계급적 위계체계이며 명령과 복종의 규율이 엄격한 조직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동물과 다르게 존엄한 가치를 추구한다. 이러한 인간이 생명이 위태로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하면 대부분 동물적 본능에 따라 생존에 매달리게 된다. 이러한 환경은 논리적인 사고보다 감성에 좌우되며, 개인이 아닌 집단의 경우에는 군중심리에 개인의 의사가 지배당하게 된다. 전쟁에서 인간은 생존의 본능이 작용하여 살기 위해 적과 싸우게 되고, 전황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갖가지 부정적인 심리가 전장을 지배하게 된다. 위계 조직인 군대는 전쟁에서 고위 사령관의 심리가 부하들의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동전은 신속한 기동속도와 기세로서 적의 조직심리에 충격을 주어 혼란과 공포와 공황을 일으키고, 적의 사령관으로 하여금 대응

방책이 없어 쩔쩔매게 만들어 마비되게 만들고, 적 장병의 사기를 붕괴시켜 군대 조직이 붕괴되도록 만들어 승리하는 것이다.

열 두 번째, 기동전은 적의 조직체계를 마비시켜 승리하는 전쟁이다. 인체에서 두뇌의 기능과 신경조직이 마비되면 모든 신체기능이 온전하게 기능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대도 주요 사령부의 지휘소와 통신조직이 마비되면 상·하부대간 상황보고와 명령의 전파가 제대로 될 수 없어 작전행동이 의도한 바대로 실천될 수 없는 것이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장군의 지휘가 깃발이나 징과 북 등의 신호에 의하거나 또는 전령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데,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습을 당하였을 때에는 주요 장군이 직접 살상당하거나 또는 주변의 신호를 담당하는 부하들이 살상당함으로써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조직적인 군사행동이 이루어 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칭기스칸」과「누르하치」군대의 예상하지 못한 속도 있는 작전과 기습으로 주요 고위 장수들이 대량 살상되고, 신호수들이 혼비백산한 상황에서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전 군이 대혼란에 빠진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독·불전쟁과『이스라엘』의 대『아랍』전쟁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어『프랑스』와『아랍』연맹 국가들의 최고 사령부에서는 전장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었고, 예하 부대가 이미 대혼란에 빠져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버렸던 것이다.

군사조직의 지휘체계가 마비되면 비록 우세한 병력수라고 하더라도 오합지중인 것이다. 기동전은 이와 같이 상상을 초월한 속도 있는 작전과 기습으로 적군의 지휘체계를 마비시켜 승리하는 전쟁인 것이다.

열 세 번째, 기동전은 적보다 더 강한 정신전력의 바탕위에서 승리를 창조한다. 전쟁은 어디까지나 적대하는 양측의 의지의 대결이다. 기동전에서는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사람의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스런 상황을 극복하여야 하며, 유동적인 상황에서 최악의 조건을 극복하여야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 때에 정신전력이 더 뛰어난 군대가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는 것이다.

「칭기스칸」과 「누르하치」군대는 사냥과 약탈과 전쟁이 바로 삶의

방식이었으므로 생존이 걸려 있는 장병들의 전투의지는 왕의 권력과 국가의 위신을 위하여 전쟁에 내몰린 장병들의 저항의지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독일』군 장병들의 책임감과 전투의지는 『영국』과 『프랑스』군 장병들보다 더욱 투철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이스라엘』 군 장병들의 경우에는 그 전쟁 자체가 민족의 생존을 위한 것이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이긴 것이다.

그러므로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경우에, 기동전 수행은 적을 능가하는 정신전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를 분석 및 평가한 결과 기동전 수행에 필요한 13 가지 공통되는 요소 및 특성들을 발췌하였다.

2.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분석을 통한 핵심요소 선정

앞 절의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 분석 및 평가에서 발췌한 13 가지 요소 및 특성들은 기동전 수행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이들 요소 및 특성에는 기동전 수행의 목적과 결과 그리고 수단 및 방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1) 기동전 수행의 목적과 결과

이들 가운데 “첫째” 항에 기술된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전쟁” 이라는 사항은 기동전 수행의 목적에 해당된다. 이는 “왜, 기동전을 수행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인 것이다.

기동전을 수행하는 목적은 전쟁에서 인본주의에 바탕한 인간존중의 사상을 실천하여 사람을 많이 살상하지 않음으로써 원한과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인 전쟁을 수행하여 피·아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며,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앞의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의 분석 및 평가에서 발췌한 요소 및 특성 중 “둘째” 항의 단기전(短期戰)과 “셋째” 항의 낮은 살상 및 파괴율은 기동전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특징적인 요소이다. 즉, 기동전을 수행하는 방

법대로 싸운다면 전선이 교착되지 않고, 우수한 기동성이 유지되므로 전쟁은 단기간 내에 종결되고, 또한 피·아간에 살상과 파괴율도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넷째" 항의 기동성 있는 소수 정예군의 편성과 이를 융통성 있게 편조 운용하는 특성은 기동전 수행의 수단이다. 기동전 수행의 수단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영토의 넓이와 자원의 수량 및 화력의 파괴력이 아니라,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인 것이다. 이러한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동성 있는 소수 정예군을 편성하고, 이를 상황에 부합되도록 융통성 있게 편조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동전수행의 수단과 결과는 이 논문의 제 3장 제1절 1항에 이미 기술한 "기동전의 정의(定義)"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적을 마비시켜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 중에서도 '술(術:Art)'적인 요소보다도 '과학(科學:Science)'적인 요소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기동전을 수행하여 승리하는 데 지배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을 찾고자 하는 것이며, 이 법칙을 전장에서 응용하는 것은 술적인 측면으로서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자 한다.

2) 기동전 수행에 필요한 핵심요소 선정

앞의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분석 및 평가에서 발췌한 요소 및 특성 가운데 "다섯째" 항 이후의 요소가 기동전 수행에서 발견된 보편적인 법칙 즉 과학적인 요소인 것이다. 앞에서 발췌한 13 가지 요소 및 특성 가운데 기동전 수행의 목적과 수단 및 결과에 해당되는 4 가지 요소를 제외하고, 9개 요소중 "다섯째" 항의 '주도권 장악' 은 가장 주된 요소로서 나머지 8개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기동전 수행에 필요한 핵심요소는 적보다 강한 정신전력을 바탕으로 정보능력, 속도 발휘, 우세(집중)달성, 기습달성, 기세유지, 조직체계 마비 및 조직 심리 마비를 이룩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승리한다는 9 개 요소이다.

3. 기동전수행에 필수적인 핵심요소 도출

이 논문의 제3장 제1절의 2항과 3항에서 주요 전략사상가와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동전수행의 7개 핵심요소를 선정한 바 있다. 즉,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는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속도 발휘, 우세(집중) 획득, 기습 달성, 기세 유지, 조직체계 마비, 조직심리 마비 그리고 주도권 장악의 7개 요소이다.

이 7개 요소는 앞의 2항에서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로부터 선정한 9개 요소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2 가지 요소는 정보능력과 정신전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 2 가지 요소도 주요 전략사상가와 선행연구자들도 제시한 요소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적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마비시켜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고자 하는 기동전의 방법에서 과학적인 법칙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즉 적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마비시키는 방법상의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신전력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요소는 소모전 이론자들도 강조하는 요소이다. 주요 사령관들의 지혜와 전략의 부족을 장병들의 희생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신력을 강조한다. 정신전력이 기동전에서 중요한 이유는 기동전이 소모전보다 더한 전장의 마찰을 극복하여야 하며, 적의 기동전이나 심리전으로 인하여 역으로 마비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동전에서는 상대를 마비시켜 승리하고자 하므로, 상대의 정부와 사령관의 의지를 목표로 조직체계와 조직심리를 마비시키고자 한다. 전장의 특성과 군대조직의 특성상 사령관의 심리가 교란되고 마비되어 의지가 꺾이는 순간부터 부하 장병들의 사기가 붕괴된다. 기동전에서 정신전력의 위험성이 바로 이 논리에 있는 것이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은 사상과 주의(主義)에 따라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지휘관들의 리더십에 따라 변화가 심한 것이 정신전력이다. 그래서 주요 전략사상가와 선행연구자들도 이 정신전력을 핵심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능력은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요소는 적을 마비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요소가 아니라, 주도권 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요소들을 적용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요소이지만, 주요소이며, 다른 요소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도권 장악의 기초를 제공하는 요소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2차 세계대전시 적용되었던『독일』군《전격전》의 3대 요결(要訣) 은 3S 즉 기습, 속도, 우세라고 하였다.

그리고,「레오나드」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하여 기동전 사고에는 최소한 세 가지 특징적인 수단 즉, 선제기습, 강점회피, 중심(重心) 타격이 있다"[127]라고 하여 나름대로 기동전수행의 요결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강점회피의 의미는 적의 강점에 대한 공격을 피하고 오히려 약점 을 공격해야 한다는 논리로서 이는 본래의 '집중을 통한 우세획득' 논리 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중심타격은 "적의 중심은 '힘의 원천(source of strength)' 이 아니라, 적의 '결정적인 취약점(critical vulnerability)'을 말 한다"[128]라고 하여 결국은 적의 중심타격이 적의 결정적인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으로 강점회피와 연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레오나드」는 " 기동전은 적 사고체계를 타격하기 위해서 심리적 중심으로 속도를 지향하게 된다"[129]라고 함으로써 물리적인 중심과 심리적인 중심을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심리적 중심은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 중 '조직심리 마비' 요소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결과적으로 그가 주장하는 기동전의 3대 요결이 앞서 제시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동전을 또 다른 표현으로《마비전(痲痺戰)》이라고도 한다. 이는 「풀러」의 '기동속도에 의한 마비이론' 이후 사용되는 용어이며, 앞서 제시한 것처럼 「리델.하트」도 마비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레오나드」도 "전자(기동전)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무모하게 적의 강점을 공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적을 먼저 '마비(paralysis)' 시키는 데 노력한다"[130]라고 하여 사실상 기동전의 비

127) 김상철(2001), 전게서, p.108.
128) 상게서, p.142.
129) 상게서, p.142.
130) 김상철(2001), 전게서,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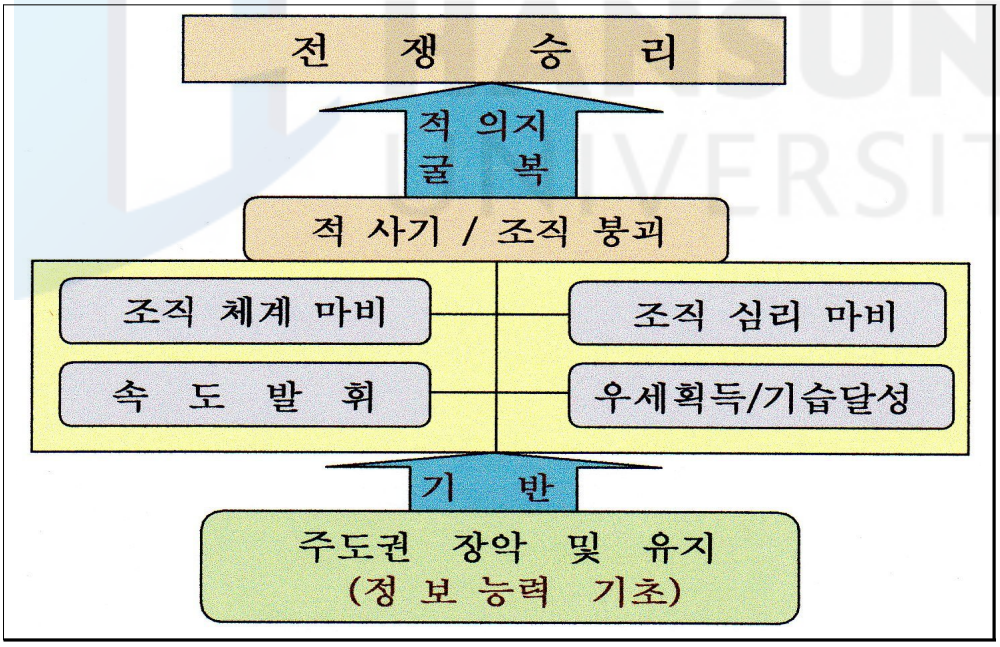
결이 적을 심리적으로 마비시키는 데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7개 요소 가운데 적을 마비시키는 방법 면에서 그 원리와 연계하여 평가해 보면 기세는 속도와 사기가 결합된 요소로서 속도발휘 요소와 원리가 같고 동일한 맥락이므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우세(집중) 획득도 적의 약점에 대한 압도적인 집중으로 기습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또 기습을 통하여 적과의 전력의 균형을 역전시켜 우세획득에 크게 기여하는 상호 보완적 요소이므로 기습의 요소에 통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기동전수행에 필수적인 핵심요소는 속도를 발휘하여, 우세획득과 기습을 달성하고, 적의 조직체계를 마비시키며, 또한 적의 조직심리를 마비시켜 적의 사기를 무너뜨리고, 군대조직을 붕괴시킴으로써 적의 의지를 굴복시켜 승리하도록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 및 유지해 나가는 5개 핵심요소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 요소와의 관계는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6] 기동전 수행의 핵심요소간 관계



* 출처 : 연구자 구성안

즉 기동전은 우수한 정보능력을 기초로 하여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주도권을 장악하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전세를 아군에 유리하도록 이끌어 가며 수행한다. 전력의 운용은 고도의 기동속도를 발휘하여 시간적 집중을 달성함으로써 우세를 획득하고, 이러한 집중이 적의 약점에 지향됨으로써 기습을 달성하며, 부대의 사기와 기동속도가 기세를 형성하여 계속적으로 적을 압도하고, 적의 지휘 및 통신체계 등 조직체계를 마비시킨다. 속도중심의 이러한 전력 운용은 각 요소가 함께 적군의 조직심리를 마비시켜, 적 장병들의 사기를 붕괴시키고, 적 군대 조직을 붕괴시킴으로써 적의 사령관의 의지를 굴복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제 분석된 기동전 수행의 핵심요소별로 그 원리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HANSUNG UNIVERSITY

제 4 장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별 원리 연구

앞의 제3장에서 주요 전략사상가와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동전 수행의 핵심요소와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를 분석 및 평가한 결과로 선정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를 종합하고, 통합하여 기동전수행에 필수적인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요소들은 적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방법이면서, 적을 마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다.

이제 이 핵심요소별로 왜 이 방법이 꼭 필요하며,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탐구해 보자. 기동전수행의 구체적인 방법별로 그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 수행방법이 철학적, 심리학적, 물리학적, 사회과학적 제 이론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우리는 전장 상황에서 군대가 수행하는 물리적인 방법이 적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을 함께 연구하여야 한다. 「리델하트」는 "우리는 물리적 부면을 검토함에 있어서, 결코 심리적 부면까지도 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131]라고 하여, 전쟁에서의 제 현상은 물리적, 정신적 측면을 함께 균형있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레오나드」도 "전쟁이란 인간들 간의 결투이다. 따라서 인간심리를 연구하는 것은 기동전 이론의 핵심요소이다. 사실 전쟁은 '심리학(psychology)'의 한 분과로 연구되어야만 한다"[132]라고 하여 전쟁승리의 법칙을 연구하는 데에는 군대와 무기 및 장비 그리고 물자의 물리적 사용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역사상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군사이론가들은 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량의 살상과 파괴를 하는 방법에 매력을 느꼈다.『손자병법』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그 병법의 오묘한 진수를 깨달아「손자」가 바랬던 전쟁을 수행한 경우는 드물었다. 현대에 이르러 「풀러」와「리델.하트」같은 전략사상가들이 일부 출현하여「손자」의 사상을 이해하여 소모전을 피하고 기동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131) 강창구(1978), 전게서, p.359.
132) 김상철(2001), 전게서, p.180.

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살상과 파괴를 일삼는 일이 허다하다. 그 이유는 전쟁과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진정한 기동전을 수행하려는 학구적인 군인은 드물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수한 정보장비와 장거리 정밀타격무기가 발전되었으므로 쉽게 살상과 파괴로 이끌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기동전을 통하여 승리하는 전쟁과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이 분야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쟁과학과 관련하여《군사작전의 원칙》과《리더십의 원칙》이 사회과학의 분야로 발전되어 있지만, 기동전 수행과 관련한 법칙은 추가로 발전되어야 하며, 또한 기존의 원칙도 그 원리가 더욱 깊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과 관련된 과학(科學:Science)이 잘 발전되었더라도 술(術:Art)적인 운용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과학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었어도 그 지식의 적용은 술에 기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33]라고 한 것처럼, 발전된 전쟁과학을 전장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것은 그 지휘관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전쟁에서 기동전을 수행하여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전시키고, 그 방법별 원리를 탐구하며, 이를 기존의 여러 가지 과학으로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기동전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핵심요소별 원리를 다음 절에 1개 요소씩 구성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핵심요소별 원리를 연구할 때 물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도 병행하여 연구하도록 하였다.

제 1 절 기동전은 주도권을 장악하여 마비

1. 주도권(主導權)의 개요

주도권은 전장에서 아군의 의지대로 전세를 이끌어 가는 능력을 말한다. 전쟁은 적대적 의도를 가진 2개 국가 이상이 수행하므로, 전쟁의 승패에

133) 강창구(1978), 전게서, p.355.

대한 계산과 평가는 상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도권의 계산과 평가도 상대적이다. 일단, 어느 국가가 영토가 넓고, 인구수가 많으며, 자원과 재화가 주변의 다른 나라보다 우세하다면 그 국가가 우선 주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소모전이론을 가진 정부나 전략가의 계산과 평가이다. 세계의 전쟁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이런 대국이 소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례가 허다하다. 이 논문의 앞 장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기동전의 사례는 모두 열세군(소국)이 우세군 (대국)을 상대로 하여 승리하였던 전쟁이었다. 전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 보았을 때,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승리한 주요소는 '주도권 장악 및 유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전쟁에서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어떻게 주도권을 장악 및 유지할 수 있었는가? 특히 제 4차 중동전쟁 (10월 전쟁)의 경우에는 전쟁 초기에 『아랍』 연맹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제기습을 하였지만, 8~9일 째부터는 『이스라엘』 군이 『아랍』 연맹 군으로부터 주도권을 탈취하여 역전승을 하였던 것이다.

2. 주도권 장악의 우선적인 원리는 〈주동(主動)〉 에 있다.

이 〈주동(主動)〉 [134]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 하나는 '의사결정의 자주성(自主性)'이요, 다른 하나는 '선제권(先制權)'이다.

1) 의사결정(意思決定)의 자주성(自主性)

"적보다 앞서 자주적(自主的)으로 나의 의사를 결정하고, 조속히 방침을 확립하는 것은 선제권(先制權)을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주동적(主動的) 인 작전지도를 하기 위한 첫째 요건"[135]이라고 하여 '의사결정의 자주성' 이 주동의 우선적인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지휘관의 의사는 완전히 자유롭고

134) "어떤 일에 주장이 되어 행동함"이라고 정의됨 〔이기문(2010), 전게서, p.2136.〕, 또 "왕성한 기도심(企圖心)을 가지고 자주적극적(自主積極的)으로 행동하여 아군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여 전세를 지배하는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함.(양창식 譯(1977), 『전리란 이런 것이다』, 서울: 한줄기, p.157.〕

135) 강창구 譯(1976),『統帥綱領』, 서울 : 병학사, p.83. 이 책은 구 일본군이 1928년에 제정한 군사기밀서로서 일본이 패전할 때 모두 소각한 병서임. 군단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에게만 배포한 지휘요강이며 작전수행 지침서임. 전 후 일부 장교들이 기억으로 복원함.

자주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예로부터 지휘관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구속된 작전의 경우에 대부분 실패했음은 전사(戰史)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에 임하여 군의 최고 사령관은 전략개념의 정립과 전쟁지역 및 시기의 선정, 주 결전방향의 결정 등에 있어서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나 상황의 추이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적에게 강요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선제권(先制權)의 행사

"적보다 선제(先制)를 획득함은 전승의 첫째 요건이다"[136]라고 하여, 선제는 적보다 먼저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이 의사 결정에 따라 적보다 먼저 작전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전쟁은 피·아간에 의지의 충돌이기 때문에 아군이 적의 주동적 기도를 탈취하지 못하면, 적이 아군의 주동적 기도를 탈취하게 되고, 또한 아군이 행동으로 적을 제압하지 못하면, 적이 아군을 제압한다. 이렇게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선제권을 행사하는 군대는 전쟁전구 내에서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상의 기득권(旣得權)'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과 공간상의 기득권은 산술학(算術學)적이라기 보다는 기하학(幾何學)적인 비율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내에 두 배의 전진을 할 수 있다면, 전투력의 승수(乘數)효과를 고려할 경우 4 배의 전진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보다는 자신의 속도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시간과 공간상의 기득권이 승리의 지배적인 것임을 고려한다면, 부대의 수나 화력의 총합(總合)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137]라고 하여 전쟁에서 기동속도가 바로 시간과 공간상의 기득권을 획득하게 하여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마찰(摩擦)이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장에서 기상과 지형은 군사작전의 마찰요인이다. 그러나 전장에서 공간은 그 자체로 싸우지 않는다. 인간이 그 공간을 이용하여 싸우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은

---

136) 강창구 譯(1976), 전게서, p.84.

137) James.H.Polk, "The Criticality of Time in Combat", *ARMOR*, US ARMY ARMOR SCHOOL, May-June.1988, p.7.

먼저 점령하고 통제하여 이를 이용하는 측에게 기득권을 주어서 유리한 상황에서 싸울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전장에서 시간을 지배하여 공간의 장애를 극복하고 이용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하는 원리인 것이다. 제3장의 기동전 사례에서「누르하치」는 자신이 수차례 싸웠고, 지형지세를 잘 아는 지역을 『명(明)』과의 전쟁지역으로 선정하고, 여기서 팔기군의 빠른 기동성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상의 기득권을 획득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독일』과『이스라엘』군은『프랑스』와『아랍』연맹이 전차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사막과 〈아르덴느〉 삼림지역을 먼저 이용하고, 기갑부대의 뛰어난 기동성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상의 기득권을 획득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선제권이 기습달성과 함께 이루어져 선제기습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명확하게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제 4차 중동전쟁(10월 전쟁) 에서 기동속도와 작전의 템포 면에서『이스라엘』군보다 뒤떨어지는 『아랍』연맹 군이지만 초전에서 선제기습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동(主動)은 아군이 먼저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후에 선제권을 행사하여 작전행동으로 먼저 실행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의도대로 대응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 심리적 요건이 되는 것이다.

3. 주도권의 심리적인 요소는 적극성과 공세정신 및 자신감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이며, 자신감이 있는 군대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이며, 패배감에 사로잡힌 군대와 싸우면 비록 열세군이라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주도권을 빼앗기는 군대는 먼저 대응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항상 '적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대응하여 행동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구조상 적에게 선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격작전 준칙과 방어작전 준칙에 꼭 같은 '전투력 집중'이라는 준칙이 있다.[138] 공격작전시 '전투력 집중'의 준칙은 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138) 육군본부(2005), 『지상군 기본교리』, 대전 : 육군본부, p.3-17.

의 의도대로 방자의 약점에 전투력을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방어작전시 '전투력 집중'의 준칙은 방자가 공자의 전투력집중에 대응하여 그 우세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가용한 전투력을 대응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세적인 군대는 공세적인 군대에 대응하여 항상 선제권을 빼앗긴 채 자신을 지키기에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도권을 빼앗기는 군대는 적을 존경하거나 두려워하며, 적의 행동에 대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사고에 젖어 있는 경향이 있다. 적에 대해서 "지휘관이 의사의 자유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폴레옹이나 대몰트케와 같이 적을 과도하게 존경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경시해서도 안된다"[139]라고 하여, 제 2차 세계대전시 〈북아프리카〉 의 『독일』 군사령관인 「롬멜」 장군을 영국군 장병들이 존경하였듯이, 또는 주변국이 「칭기스칸」 군대를 두려워하였듯이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패배감에 젖어 있는 군대는 주도권을 빼앗긴다. 삼국지에 "죽은 공명(孔明)이 산 중달(仲達)을 치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위(魏)』 나라의 「사마의」 가 『촉(蜀)』 나라의 「제갈공명」 과 싸울 때마다 늘 패배하여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갈공명」 이 죽은 후에 그를 가장하여 만든 허수아비를 보고 싸우지도 않고 군대를 철수시킨 고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3차에 걸친 전쟁에서 늘 패배한 『아랍』 연맹은 4차 중동전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선제기습을 하고서도 교두보확보 후 과감한 전과확대를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의 대응에 전전긍긍 하는 태도는 패배의식으로 인하여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적보다 우수한 정보능력은 기동전수행의 기초이다.

앞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천시(天時)를 알고 지리(地理)를 알면 항상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손자」 의 병법 내용을 제시하였다. 정보는 먼저 적의 능력과 의도를 알게 하여 아군의 전쟁목표 설정과 방책수립의 기초를 제시해 준다. 즉 적국의 전략과 이를 수행할 능력을 알

139) 강창구 譯(1976), 전게서, p.34.

아서 아국의 방책 마련의 기초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만약 무한궤도(caterpillar tracks)를 가지고 있다면 도로에서 대부분 독립된다는 사실은 전략에 훨씬 큰 신축성을 주었고, 그리고 보급의 장악력은 첩보의 장악력과 대체되었다"[140]라는「풀러」의 주장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소모전에서와 같이 누적적인 소모를 보충하기 위한 보급의 양(量)보다는 기동속도의 발휘를 위한 정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모전을 위한 정보에서는 영토의 넓이, 인구수와 관련된 병력의 수, 적의 무기 및 장비의 수와 이를 지원할 물자의 톤수, 적의 공격을 저지시킬 수 있는 유리한 방어지역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리고 전략정보와 작전정보 및 전술정보 가운데 전술정보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 왜냐하면 적의 부대를 격멸하기 위해서는 전투를 수행하는 전술적 수준의 정확한 정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동전은 소모전과 적국의 저항력을 분쇄하는 수단과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정보 또한 다른 것이다.

1) 기동전은 전략정보와 작전정보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기동전은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하고, 이 기동속도로 적을 마비시키고자 한다. 이 때 전략적 기동과 작전적 기동은 전략적·작전적수준의 최소예상선과 최소저항선을 지향하는 전략기동축선[141]과 작전선을 따라 수행된다. 바로 이 전략기동축선과 작전선은 적의 저항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동축선이며, 이 기동축선은 통상 적이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는 지역을 피하여 우회기동 하거나, 적의 배후를 지향하는 종심기동을 수행할 기동축선을 말한다.

따라서 전략적·작전적 기동을 위한 전략기동축선과 작전선을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전략정보와 작전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전략기동축선과 작전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상과 지형을 고려한 기동로에 관한 정보, 적의 전략적·작전적 배비상의 약점에 관한 정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중심(重心)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적의 결정적인 약점에 관한 정보, 적의 신경조직을 마비시키기 위한 지휘체계상의

140) 강창구(1995), 전게서, p.89.
141) 전략기동군이 적을 마비시키기 위해 적의 후방으로 기동하는 전략적 수준의 작전선을 의미함.

노드(node)[142]에 관한 정보, 적을 심리적으로 마비시키는데 필요한 조직심리에 관한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략은 작전과 유혈전투를 최소화하며 승리하는 방책을 요구하고, 작전술은 유혈전투를 최소화하며 승리하는 방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전술적 수준의 전투에 관한 정보보다는 전략적·작전적수준의 기동과 심리전 및 체계노드에 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영국의 군사이론가「심킨」은 "기동이론을 적용시키기 위한 1차적 요인은 '작전적 정보'의 신중한 개념정립과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의 준비이다"[143]라고 하여 기동전에서 작전적 정보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 기갑부대가 "그들의 기동범위와 템포에 어울리는 정보작전수행에 실패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작전적 및 전술적 위험을 무릅썼다"[144]라고 증언함으로써, 『독일』군이 대『쏘련』전쟁에서 전략적·작전적 정보능력이 부족하여 전쟁에 패배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미국』의 군사이론가인「레오나드」는 "적 측방으로 대담한 유린작전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해당부대가 정보를 자체수집하기 위해서 접적 지역까지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145]라고 하여『미국』이『이라크』와 수행한 전쟁인〈사막의 폭풍작전〉에서 500km 이상 측방으로 기동하여 전략적·작전적 기동을 실시함으로써, 예하 전술제대는 작전지역에 관한 정찰을 전혀 실시할 수가 없어 전술적수준의 전장정보준비(IPB)가 필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제 3장에서 제시한 기동전 사례에서도「칭기스칸」군과「누르하치」군 및『이스라엘』군은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전략적·작전적 기동을 실시하여 승리하였으며, 그 상대국들은 그렇지 못하여 패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기동전은 적시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

142) "노드(node)"는 사람, 장소 혹은 물리적인 것을 나타내는 체계의 한 구성요소임. [합동참모본부(2010),『합동개념서(2012-2026년)』, 서울 : 합동참모본부, p.50.]
143) 연제욱(1999), 전게서, p.368.
144) 상게서, p.106.
145) 김상철(2001), 전게서, p.290.

기동전은 작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작전의 템포에 부합되는 적시적인 정보를 요구한다.「풀러」는 "기계화육군이 직면할 또 하나의 문제는 적의 기동을 적시에 보고하는 일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정보에서 이점(利點)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동력이 증가할 수록 이 정보 중요성의 시효가 감소되기 때문이다"[146]라고 하여 기동전의 빠른 작전속도에 맞는 정보의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기동전을 수행하는 아군에 비하여 적군이 소모전을 수행한다면 정보 처리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겠으나, 적군도 기동전을 수행한 다면 적시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다. 정보처리의 적시성은 전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기초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현대전에 있어서 정보처리의 적시성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은 정보의 병리현상이다.「레오나드」는 "미래의 육군은 중요하지도 않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익사당할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어떤 면에서는 정보가 불충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147]라고 하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 내는 정보의 여과과정이 매우 어렵고 복잡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여과과정과 사용하는 측면에서 "군의 전문화, 불안전성, 중앙집권화 그리고 복잡성이 고조되고 그 결과 '정보병리' 현상이 유발됨에 따라서 지휘과정이 크게 지연되었다"[148]라고 하며, 이는 월남전 당시 작전을 계획, 준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날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병리현상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의 '비밀등급'을 상향시켜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과, 통계학의 한계로 인하여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도 포함된다.

기동전을 수행하는 양군(兩軍)이 유동적인 상황하에서 서로 속도 있는 작전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휘관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선제적인 조치가 주

146) 강창구(1995), 전게서, p.116.
147) 김상철(2001), 전게서, p.291.
148) 김구섭 외(2001),『전쟁에서의 지휘』, 서울 : 연경문화사, p.405.

도권을 장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실시간(實時間) 정보가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동전을 위한 정보에서는 전략적·작전적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정보의 적시성이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동전수행을 위해서는 전략적·작전적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체제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풀러」가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항공정찰과 우주공간을 활용하여 위성에 의한 정보수집과 전략적 인간정보 수집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5. 소수의 정예화된 직업군은 주도권 장악의 중요 요소이다.

비록 수적으로 열세한 군대라도 정예화된 직업적 군대는 전투가 전문인 조직이기 때문에 몇 배로 우세한 군대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겠지만, 일당백(一當百) 또는 일기당천(一騎當千)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수적으로 많은 병력의 군대라도 전투기량이 부족한 오합지중(烏合之衆)인 경우에는 정예화된 직업군과 싸우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다.

「칭기스칸」과「누르하치」군대는 생활자체가 전투와 같은 유목민으로 구성되어 싸움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군대이다. 이러한 군대가 오합지중을 동원한『명(明)』과『호레즘』군대와는 질적으로 상대가 안되는 군대인 것이다.『이스라엘』군의 전투기술은『아랍』연맹군의 전투기술과는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제 4차 중동전에서 격추된 항공기와 파괴된 전차의 수를 보면 알 수 있다.『이스라엘』군의 항공기와 전차는 대부분『아랍』연맹군의 대공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에 격추 및 파괴된 것이지만,『아랍』연맹군의 항공기 및 전차는『이스라엘』군과 공중전 및 전차전에서 격추 또는 파괴된 것이다. 이렇게 전투기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에짚트』군 참모총장「샤즐리」장군은 교두보선을 넘어 군의 예비를 투입하는 데 반대하고 주저하였던 것이다.

정예화된 직업군은 전투기량 뿐만 아니라 기동도 잘하고 전술적 운용 능력도 뛰어나며, 모든 조직원들이 개념의 공감을 가지고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잘하고 책임의식도 강하다. 이러한 정예직업군은 비록 열세군이라 하더라도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능숙하게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 외에도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필요한 속도 발휘, 우세 획득, 기습 달성, 기세 유지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절에서 연구하겠다.

제 2 절 기동전은 속도로 마비

1. 기동전은 기동속도로 적을 마비시킨다.

기동전의 수단은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이라고 하였다. 기동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특성은 속도이다. 그래서 '기동의 생명은 속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풀러」는 "기동성은 하나의 심리적 무기이다. 적을 죽이지 말고 단지 기동만 하라. 적을 공포에 몰아넣고, 어리둥절하게 하고, 미치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하고, 적의 후방을 의심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위해 기동하라. 기동의 목적은 적을 마비시키는 데 있고, 마비상태는 직접 속도에 비례한다"[149]라고 하여 기동전은 기동속도로 적을 마비시키는 전쟁의 형태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기동속도가 어떻게 적을 마비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기동속도와 인간의 인식기능의 상호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 속도(速度)는 결국 시간(時間)의 문제이다.

「레오나드」는 "시간은 아마 기동전 이론과 소모전 이론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기동전은 시간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싸움이

149) 제 2장 제 2절 2항 48)번 인용문의 내용을 재인용함.

다." 150)라고 하여 기동전의 핵심요소가 시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속도가 시간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래의 물리학 공식으로부터 알 수 있다.

[표 4-1] 속도에 관한 공식

S(공간거리)= vt(속력 × 시간)151) ⇒ t = S/v
☞ 속력은 단위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가리키는 말임. 속도는 단위시간 동안의 변위임. (변위는 위치의 변화를 말함.)

* 출처 : 연구자 구성안

위의 물리학 공식에서 공간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이동소요 시간이 산출된다. 즉 일정한 공간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소요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속도의 개념이 시간의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제 시간과 인간의 인식작용의 관계를 알아보자. 사람은 어떠한 사태가 갑자기 일어나면 이런 사태가 왜, 어떻게 하여 발생했는지를 금방 알지를 못한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사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즉 사람이 어떤 갑작스런 상황과 사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에는 시간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기동전에서 군대가 신속히 기동하여 시간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어떤 돌발적인 상황과 사태를 일으키면, 적이 무슨 상황과 사태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몰라 어리둥절하게 되고, 다각적인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연후에야 사태의 진상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초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속도를 발휘하여 연속적으로 동시 다발적인 상황과 사태를 일으키면, 적은 전반적인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상황과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안되었으므로 종합적인 상황판단이 되지 않아 합당한 대응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빠른 기동속도는 결국 시간(時間)요소로 전환되어,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상황과 사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므로 적의

150) 김상철(2001), 전게서, p.142.
151) 이투스 과학팀(2011), 『누드 교과서 SE(물리Ⅰ)』, 서울 : 이투스 교육㈜, p.15.

지휘관이 적시적인 상황조치를 할 수 없어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군의 빠른 기동속도는 시간의 문제로 전환되어 인간의 인식작용과 결부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오리무중의 혼란한 상황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즉 기동전은 속도전(速度戰)이고, 시간과의 싸움으로서 시간전(時間戰)이다. 그리하여 기동성(機動性)이 심리적 무기가 되는 것이다.

2) 속도는 적의 정보를 혼란시킨다.

속도에 의한 전쟁은 적의 정보를 혼란시켜 정확한 정보판단을 할 수 없게 하고, 정보가 부족한 적의 사령관은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어 대응조치를 위한 결심을 할 수 없게 된다.

(1) 신속한 기동속도는 적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폭주시킨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군의 신속한 기동속도에 의한 작전은 어리둥절한 적으로 하여금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황과 사태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상급사령부에 보고하여 정보의 홍수를 일으킴으로써, 적의 정보처리에 혼돈과 혼란을 유발하여 정확한 정보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주공지역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부정확한 정보가 짧은 시차로 연속하여 접수될 때에는 정보부서가 혼란하여 사태의 진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적이 소모전 사고에 치우쳐 있다거나, 정보의 병리현상이 내재되어 있을 때에는 엄청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사태의 흐름을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아군의 작전이 이미 다음 단계로 발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 단계에 대한 어떠한 상황조치도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적의 사령관은 아군의 작전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어서 어떠한 상황조치도 할 수 없게 되어 쩔쩔매고, 당황스럽고, 그저 놀라울 뿐이며, 이리하여 사령관의 마음이 교란(攪亂)되는 것이다.

(2) 시간개념의 방책은 적의 예측을 불허한다.

공간중심(空間中心)의 사고와 시간중심(時間中心)의 사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커다란 행동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 공간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소의 코를 꿰고 목으로 연결된 줄을 말뚝에 묶어 달아나지 못하게 하지만, 몽고인들은 시간중심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소와 말의 앞다리 하나를 관절을 꺾어서 줄로 묶어 절뚝거리게 만들어 멀리 달아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공간중심의 사고에 고착된 사람은 시간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공간중심의 전략개념과 방책은 주요한 고지군과 도로망위주로 접근로를 분석하고, 직선단거리 접근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방책을 발전시키므로, 가능한 몇 개의 방책을 예상하고 아군의 군사교리를 알 경우에는 적이 최선의 아군 방책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개념에 바탕을 둔 방책은 동일한 작전지역 내에서도 수없이 많은 방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분·초와 시간단위로 변화되는 아군의 방책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적군의 정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손자」는 "먼저 우직지계를 알고 실천하는 군이 승리하는 바, 이것이 바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원칙이다(故先知迂直之計者勝 此軍爭之法也)"[152]라고 하여 우회기동하면서도 시간적으로 앞선 기동이 승리의 법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기동전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에 바탕을 둔 방책을 발전시키게 되고, 공간중심의 고착된 사고를 가진 적군에게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도깨비와 같은 작전으로 이해되는 것이다.「칭기스칸」군, 「누르하치」군, 『이스라엘』과『독일』군의 기동전이 바로 시간개념에 바탕을 둔 작전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상대국의 군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여 기습을 당하게 되었고,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작전을 이해할 수 없어 제대로 대응한 번 못하고 패전하였던 것이다.

2. 기동전은 선제로 주도권을 쥐게 한다.

이 장의 제 1절에서 주도권의 핵심은 주동(主動)에 있다고 하였다.

---

152) 손무・국방부 編(1956), 전게서, p.176.

주동은 먼저 아군이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적보다 먼저 작전행동으로 돌입하여, 적에게 아군의 의도대로 대응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주동함으로써 선제권(先制權)을 행사하는 것이다.

1) 시간중심의 사고가 선제권의 필수요소이다.

적에게 선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시간의 문제가 적용된다. 즉 아군의 작전행동이 적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서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의도에 대응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선제권이다. 아군이 만약 선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적군이 선제권을 행사하여 아군이 적군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적이 만약 선제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개념에 바탕을 둔 대응행동을 번개같이 하였을 경우에는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적으로부터 주도권을 탈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제3장에서 제시한 제 4차 중동전쟁(10월 전쟁)으로서,『이스라엘』군은 최초『아랍』연맹 군에게 선제기습을 당했지만, 곧바로 시간개념에 바탕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하여 6-7일 만에 주도권을 탈취하여 그 이후 전세를 주도하고 승리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기동전은 시간중심의 사고로써 선제권을 행사하여 주도권을 장악 및 유지하게 하여 승리하는 전쟁 형태인 것이다.

2) 계획의 정신은 시간의 절약에 있다.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사작전의 계획수립부터 시간적으로 앞선 작전행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풀러」는 "선제권은…모든 작전에서 성공의 비결임이 판명될 것이므로, 계획은 극히 간결하고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군사 행동에 있어서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이 모든 계획의 정신이 될 것이다"[153]라고 하여 간명한 계획수립은 물론, 신축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예비계획을 수립해 두었다가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

153) 강창구(1995), 전게서, pp.53-55.

전쟁은 적대적인 양국의 의지의 충돌이며, 적국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전쟁 초기부터 아군의 계획과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부대가 기본계획 외에 예비계획이 없을 경우 신속한 상황조치가 어렵게 되고, 예하부대의 경우 상급부대 지휘관의 의도에 맞는 작전수행이 곤란하여 전체적으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장차작전에 대한 예측과 가정을 기초로 몇 개의 가능한 예비계획과 우발계획을 수립해 둠으로써 계획수립과 명령하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획수립과 명령하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적보다 앞선 작전행동을 보장하여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명령, 보고 및 전령의 정신도 시간절약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기동전에서는 신속한 상황조치가 중요하다.

작전 수행간 선제권을 행사하여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상황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독일』 군의 「롬멜」 장군은 "기동전에서 내가 얻은 첫째 교훈 중의 하나는 작전에서의 기동속도와 지휘관의 신속한 반응이 결정적 요인"[154]이라고 하여 유동적인 전장 상황 속에서 지휘관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조치가 선제를 가능케 하여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하였다.

「손자」가 주장한 병문졸속(兵聞拙速)의 의미와 "1937년 이래 독일군은 신속한 대응행동을 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지상에서 야기되는 각 종 문제를 수시간이 아닌 수분만에 전술적으로 해결하는 훈련을…실시해 왔다"[155]라고 하여 군사작전은 계획보다 신속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적보다 상황조치를 신속하게 하려면 '보이드 주기'의 주기시간(cycle time)을 적보다 단축하여 빠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즉 "보이드 주기인 관측(observation)-판단(orientation)-결정(decision)-행동(action) 주기를 통해…지휘관은 자신의 가속도를 추가하여 공격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156]

---

154) 황규만 譯(1975), 『롬멜전사록』, 서울 : 일조각, p308.

155) A.J.Echevarria Ⅱ, "AUFTRAGSTAKTIK: IN ITS PROPER PERSPECTIVE", *Military Review*,October.1986, p.51.

156) 본 논문 제2장 제3절 3항 참조

라고 하여 지휘관이 상황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군대의 작전 속도에 가속도를 추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아래 물리학 공식에서 가속도가 더 빠르면 힘의 세기가 더 커지듯이 지휘관의 상황조치가 더 신속하면 적에게 주는 충격력이 더 커지므로 선제의 효과로 인한 주도권 장악 및 유지가 더욱 용이한 것이다.

[표 4-2] 힘과 가속도의 관계에 관한 공식

F (힘) = ma (질량 × 가속도) ☞ 단위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한다.[157]

* 출처 : 연구자 구성안

〈독·불 전쟁〉 시 『독일』 군의 전격전에 대해 『프랑스』 군은 항상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조치함으로써, 호기를 놓치고, 선제를 허용하여 주도권을 탈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제권은 시간중심의 사고에 바탕을 두고, 계획이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먼저 과감하게 작전행동으로 실행하며, 작전 수행간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조치를 민첩하게 함으로써 선제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휘관이 전장에 나아가 진두지휘를 일상화하고, 종합적인 상황판단 후 적극적으로 상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간요소를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소모전 이론은 앞서 제시한 것처럼, 더 넓은 영토와 병력을 비롯한 자원의 양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유혈전투를 통한 누적된 소모량을 보충할 수 없도록 살상과 파괴의 방법으로 적을 격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동전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동전 수행을 위한 자원은 고속기동을 할 수 있는 정예화된 직업군과 기동속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1항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속도는 시간 개념으로 전환

157) 이투스 과학팀(2011), 전게서, p.52.

되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여 기동전의 자원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1) 시간기반 전략(Time Based Strategy)의 발전

기동전은 이 시간자원을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에 맞게 유리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의 역할은 작전적 수준의 주요작전과 전술적 수준의 전투를 최소화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 시간 자원을 우선 전략적 수준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풀러」는 "동력화와 기계화의 이점은 그것이 시간을 절약하여 공간을 축소시키는 일이다… 전략적으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158]라고 하여 소모전 이론의 공간자원에 반하여, 기동전 이론의 시간자원을 이점으로 활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간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전략개념이 창출되는 것이다. 요즈음은 세계적인 대기업에서도 이런 개념이 발전되어 "타임베이스 전략(Time Based Strategy)은 조직의 전략적인 기동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159]라고 하여 시간자원을 전략적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확보하도록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2) 기동전은 전략적수준의 심리적 중심으로 속도지향

기동전은 이러한 시간기반 전략에 따라 전략적 기동성을 발휘하고, 적을 심리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하여 전략적수준의 심리적 중심을 지향하여 속도를 발휘한다.「레오나드」는 "기동전은 적 사고체계를 타격하기 위해서 심리적 중심으로 속도를 지향하게 된다" 라고 하고 있다. 적의 전략적 수준의 심리적 중심(重心)은 적국의 정부와 적군의 최고사령관의 전쟁수행 의지이며, 또한 적군의 장병들의 사기이다. 이러한 전략적 기동성으로 적국의 정부기능을 마비시키고, 적군의 최고 사령관의 의지를 굴복시키며, 적군의 장병들의 사기를 붕괴시키는 것이, 적군의 심리적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시『독일』군의 사고는 "기동성을 갖추고 질적 수준이

158) 강창구(1995), 전게서, pp.86-87.
159) 윤은기(1992), 『時 테크』, 서울 : (주)유나이티드 컨설팅그룹, p.104.

높은 소규모 부대에게 다른 부대보다 높은 '10배수 속도범위' 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심 돌파는 적 부대를 물리적으로 와해하고 적 지휘관을 심리적으로 붕괴시킨다"[160]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기반 전략에 따라 전략기동축선으로 전략적 기동성을 발휘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군의 최고 사령관이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 적군의 최고 사령관 마음속에 "이 적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패배감이 지배하게 되고 의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예하 부대의 장병들이 사기가 붕괴되어 어떠한 명령도 시행되지 않으므로 적군의 조직이 붕괴되는 것이다. 〈독·불전쟁〉 시 『프랑스』군 1개 대대가 무장한 상태에서 대대장의 인솔하에 후퇴하던 중 『독일』군 「롬멜」 사단장의 전속부관이 권총을 꺼내들고 대대장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자 그 대대가 그대로 무장해제한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한, 『프랑스』군의 최고 사령관인 「가믈랭」 원수가 〈뮤즈강〉과 〈세당〉이 돌파된 후, 『독일』군의 전격전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도착하여 "이제 당신이 어디서 적을 막을 거요?" 라고 질문하자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최고 사령관직에서 해임된 것은, 적군의 최고 사령관의 의지가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4. 속도로 수적 우세를 무력화하다.

기동전의 결정적인 현상은 속도로서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승리한다는 사실이다. 「풀러」는 "어느 한 시간에, 어느 한 지점에 있는 적은 인원이 24시간 후에 같은 지점에 있는 10배의 인원보다 가끔 훨씬 강력하다"[161]고 하여 준비된 상황에서의 많은 병력수보다 호기에 쓸 수 있는 소수의 병력이 오히려 더 큰 전투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시간상의 기득권을 고려한다면 수적인 문제는 중요하지가 않게 된다"[162]고 밝히고 있어서 속도에 의한 시간상의 이점이 병력수의 이점

160) 연제욱(1999), 전게서, p.97.
161) 강창구(1995), 전게서, p.87.

을 상쇄한다고 하여 전투에 미치는 시간의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레오나드」도 "속도는 작전술에 있어서 핵심요소이다. 이처럼 칭기스칸은 수의 열세를 속도우위로 보완할 수 있었고… 결국 칭기스칸의 공격기세유지의 핵심은 병력의 '수'가 아니라 '속도'였던 것이다"[163]라고「칭기스칸」군의 승리의 요인이 기동속도였다고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독일』군의 경우는 "우수한 조직 및 지휘력으로 기계화부대의 질과 양의 열세를 보완하였다. 영·불 연합군이 전차의 수 및 질 면에서 우수하였으나 이를 집중 운용할 조직을 미발전시켰다"[164]라고 하여 전차를 기갑 군·군단·사단급으로 집중 편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운용함으로써, 기갑부대를 보병지원용으로 분할 운용하였던 영·불 연합군보다 더 우수한 속도를 발휘하였고, 또 이러한 기갑부대를 「구데리안」, 「만슈타인」,「롬멜」장군 같은 역동적인 지휘관들이 지휘하여 엄청난 속도를 발휘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열세군이 우세군에게 승리하는 비결은 속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소수 정예군의 뛰어난 속도로 우세군을 분할시킨 채 각개 격파하고, 전략적·작전적 기동으로 적의 심리적 중심에 충격을 주어 적군의 조직을 일시에 붕괴시킴으로써, 수적인 우세가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제 열세군이 기동전으로 우세군에 승리하는 비결은 속도에 있고, 시간중심의 사고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간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시간요소를 전략적 자원으로 삼아, 시간기반의 전략개념을 수립하고, 이를 과감하게 실행함으로써 전략적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적군의 심리적 중심으로 속도를 지향하고 충격을 가해 일거에 적군의 조직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5. 기세는 속도에 따라 세기가 달라진다.

---

162) James.H.Polk(1988), *op.cit,* p.3.
163) 김상철(2001), 전게서, p.76.
164) 김정오(1990), 전게서, p.71.

이 논문의 제2장 제2절 1항에서「손자」는 급격하게 흐르는 물의 속도가 바위를 떠내려 보내는 것이 기세인데, 그 기세가 험해야 하고, 가파른 산에서 바위가 굴러 내리듯이 갈수록 그 힘이 강력해야 한다고 그의 병법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 이 기세란 운동에너지의 크기인데, 아래의 물리학 공식에서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물체가 갖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림 4-1] 운동에너지와 합벡터에 관한 공식 및 법칙

•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라 한다.

☞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 제곱비례한다.[165]

$$E_k(\text{운동에너지}) = \frac{1}{2}mv^2(\text{질량}\times\text{속도의 제곱})$$

•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 벡터(Vector)이다.

☞벡터 합성(합벡터)은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있다.[166]

* 출처 : 연구자 구성안

전쟁에서 군의 기세는 이동하는 물체의 운동에너지와 같다. 그러므로 군의 기세는 부대의 규모에 비례하고, 기동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치에 따라 총알이 사람을 관통하여 살상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 기술된「손자」의 가르침과 같이 급격한 물살이 바위를 떠내려 보내는 것처럼, 총알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므로 그 속도의 제곱만큼 큰 힘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총알을 사람이 손으로

165) 이투스 과학팀(2011), 전게서, p.173.
166) 김종권외 1명(2010), 『HIGH TOP(고등학교 물리Ⅱ)』, 서울 : 두산 동아, p.12.

던진다면 그 기세는 사람을 관통하지 못한다.

이제 전쟁시 군의 공격기세는 부대 규모보다 그 부대의 기동속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이 전쟁에서 최초 획득한 우세와 기습의 효과를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체없이 맹렬한 속도로 전과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기세는 또한 벡터의 합성과 같다. 평행사변형법의 벡터합성 법칙과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지향되는 2-3개 기갑 및 기계화군단이 사이각을 줄이고 맹렬한 속도로 공격기세를 발휘할 때에는 전략기동축선 또는 작전선 방향으로 엄청난 세기의 힘이 가해지므로, 이러한 기세에는 감히 적이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해일이 일어난 상황이나,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라고 비유하는 것이다.

기세는 이와 같이 전쟁에서 최초 집중과 기습으로 적의 약점을 타격하여 돌파한 후에, 최소 예상·저항선이 되는 전략기동축선 또는 작전선을 따라 적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과 심리적 중심을 지향하여, 맹렬한 속도로 기동하고 엄청난 기세로 진격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공포와 공황의 상황으로 몰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동전은 맹렬한 속도로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를 형성하여, 최초 우세와 기습의 효과를 계속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6. 기세는 사기(士氣)의 세기이다.

기(氣)는 생명력이며, 삶의 에너지이다. 사람의 기는 인기(人氣)와 정기(精氣)이고, 부대와 조직의 기는 사기(士氣)이다. 「손자」는 "전군은 사기가 꺾일 수 있으며… 사기는 아침에 왕성하나, 낮에는 해이해 지고, 저녁에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고로 용병의 대가는 적의 사기가 왕성할 때를 피하고, 해이해 졌을 때 공격하니 이것이 바로 사기를 장악하는 방법이다(故三軍可奪氣. 是故朝氣銳 晝氣惰 暮氣歸. 故善用兵者 避其銳氣 擊其惰氣 此治氣者也)"[167]라고 하여 적의 사기를 장악하는 용병을 하도록 강조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군의 사기는 왕성하도록 관리하고, 적의 사기가 떨어진 시기를 고려하여 공세를 펼쳐야 한다. 종심 깊은 배후기동으로 적으로 하여금 의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혼란스럽게 하며, 정면을 변경하여 피로와 고통을 겪게 하고, 적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여 생존의 본능을 느끼게 유도해 감으로써 물리적으로 적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전장의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장병은 상황이 다소 어려워도 높은 사기를 유지한다.「롬멜」장군은 처음으로 전투에 임하는 부대는 절대로 중요한 작전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작은 전투를 몇 번 치루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장병들이 높은 사기를 가지도록 하였던 것이다. 맹렬한 공격기세로 적진을 향하여 진격하는 군대는 충천하는 사기로 공격기세에 승수효과를 발휘한다.

사기가 왕성한 군대는 지칠 줄 모르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승리의 환상에 젖어 더욱 가속도를 내기 때문에 공격기세에 승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충천하는 아군의 사기는 더욱 해일과 같은 기세로 적을 향하여 나아가므로 적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여 조직을 붕괴시킨다. 「칭기스칸」 군의『호레즘』군에 대한 맹추격과「누르하치」군의『명(明)』군에 대한 무자비한 돌진, 그리고,『독일』군과『이스라엘』군이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맹진격한 사례는 기세로 승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제 3 절 기동전은 우세와 기습으로 마비

1. 열세군은 상대적 우세를 획득한다.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할 경우에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우세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안은 상대적인 우세를 획득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 우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을 전체적으로 분산시킨 다음에 아군의 집중에 대응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고착시키고, 아군은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집중하여야 한다.

---

167) 손무・국방부 編(1956) 전게서, pp.180-181.

「손자」는 그의 병법에서 “적은 의도가 드러나게 하고, 아군의 형체는 노출되지 않으면, 아군은 집중하고 적은 분산되어 마침내 아군은 적의 10배가 되는 병력으로 공격하는 셈이 되므로 아군은 많고 적이 적은 형세가 된다 (故形人而我無形, 則我專而敵分, 我專爲一敵分爲十, 是以十攻其一也, 則我衆而敵寡)”라고 하여 아군의 계산된 분산이 적으로 하여금 분산을 강요하고, 그런 후에 아군의 의도된 신속한 집중으로 우세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리델하트」는 “전쟁의 원칙은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로 압축하면 집중이라는 것이다”[168]라고 하여 집중을 통하여 우세를 획득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핵심 비결임을 강조하였다.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만과 소수의 부대로 견제공격을 실시하여 적의 주력을 고착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에 분산되어 있는 아군의 전력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시간적으로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간적 집중은 동시에 모든 전력을 통합하여 발휘함으로써 달성된다. 즉 민첩성, 동시성, 통합성이 시간적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 이 가운데 민첩성은 신속성과 같은 개념으로 아군이 주도권을 잡고 또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이다. 이러한 신속성 (민첩성)은 적의 약점에 대하여 신속한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2. 적의 결정적 약점에 대한 집중으로 우세를 획득한다.

진정한 집중은 단순하게 어떤 시간과 장소에 압도적인 병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약점에 대한 집중이다.「클라우제비츠」는 중심(重心)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중심은 힘의 중심점(Center of Gravity) 을 말한다. 그러나 「레오나드」는 “적의 중심은 적의 '힘의 원천(source of strength)'이 아니라, 적의 '결정적인 취약점(critical vulnerability)'을 말한다. 적의 중심이 파괴되거나 무력화될 경우…적 전투력이 마비되어야 한다”[169]라고 강조하면서, 적의 중심은 일시에 적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취약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8) 강창구(1978), 전게서, p.367.
169) 김상철(2001), 전게서, pp.50-51.

이를 평가해 보면 적의 중심은 '힘의 원천'이 타당하지만, 힘의 원천은 적의 강점으로서 이에 직접적으로 아군의 전력을 집중하기 보다는, 적의 힘의 원천을 간접적으로 충격하여 일시에 전복시키고 마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을 충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손자」도 "진격함에 적이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적의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이다(進而不可禦者 衝其虛也)"[170]라고 하여 적의 약점에 집중하여 공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기동하여 집중하기 위해서는 적의 집중을 방해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아군이 상대적인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신속한 기동속도는 전력의 시간적 집중을 가능하게 하고, 집중은 적에 비하여 상대적인 우세를 획득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우세로 적의 결정적인 약점에 충격을 가하여 중심을 무너뜨리고, 일시에 마비시켜야 한다.

3. 기동전은 기습으로 적을 마비시킨다.

기습은 적의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적의 결정적인 약점에 아군의 전력을 집중하여 충격을 줌으로써 달성된다.「손자」는 "적의 방비가 없을 때에 공격하고, 적이 예상하지 못한 때와 장소에 나아가는 기습이 승리의 비결이다 (攻其無備, 出其不意, 此兵家之勝)"라고 하여 기습이 불의(不意)와 무비(無備)의 두가지 조건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 가지는 심리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이고,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대비를 소홀히 한 상태인 것이다. 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받았으므로 그 충격이 더욱 크고, 후자는 예상한 사항이라도 대비가 소홀하므로 충격은 작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평가해 보면 기습은 적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강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습은 인간의 마음요소 가운데, 불가능, 방심, 오판, 고정관념, 편견, 막연한 기대, 조치불실, 무감각, 만성, 정형화된 사고, 무지 등 부정적인 요소로 인하여 파생된 현상을 충격함으로써 적

170) 손무・국방부 編(1956), 전게서, p.146

을 당황하게 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전략사상가들도 "기습은 심리적 분야에 속하고 물질적 분야보다도 훨씬 곤란한 다양한 제 조건의 계산에 의거한다"[171], "정신적 기습은 심리적 및 물리적 수준에서 물질적 기습보다 우위에 있다"[172]라고 하여 정신적인 기습이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기습으로서 물리적인 기습보다 훨씬 충격이 크다고 인정하고 있다.

기습은 이렇게 적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강타하므로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피·아간의 전력비를 일시에 전복시키는 특성이 있다. 이 피해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규모의 병력으로 기습작전을 감행했을 때 효율 면에서 2 배의 전투능력을 발휘하였고, 공자와 방자간의 병력손실 비율이 5:1로 공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다"[173]고 하여 기습달성이 5 배의 전력차이를 일시에 전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습은 피침자 측에 너무 큰 충격을 주어서 우세한 적의 전력을 일시에 전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싸워서 기습을 달성할 경우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레오나드」는 "선제기습은 가장 경제적인 승리의 수단을 제공한다…이것은 기동전 이론의 가장 강력한 표현의 수단이 된다"[174]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4. 기습은 적의 정서를 충격하여 지적(知的)활동을 마비시킨다.

기습은 인간의 심리에 작용하여 마비시키고, 우세한 적의 전력을 일시에 전복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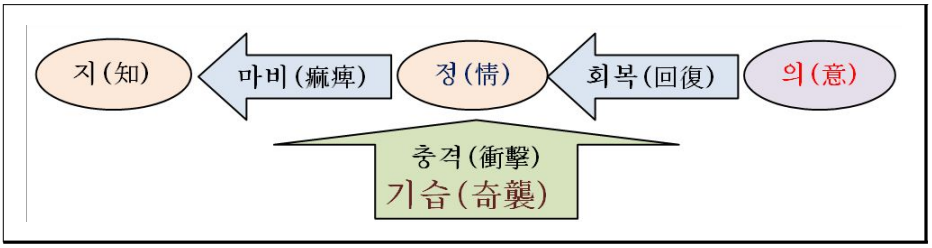
아래 [그림 4-2]에서 보는 바처럼, 기습은 인간 정신의 지(知), 정(情), 의(意) 3요소 가운데 정서(情緖)에 충격을 주어 깜짝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공포심을 일으켜 안절부절하게 하여 인간의 지(知)적인 작용을 마비시켜 버리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격언에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솥뚜껑보고도 놀란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사태에 충격을 받는 것은 정(情)적인 요소인 정서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

171) 강창구(1978), 전게서, p.355.
172) 연제욱(1999), 전게서, p.340.
173) 조영철 譯(1984),『기습』, 서울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p.355.
174) 김상철(2001), 전게서, pp.116-117.

사람이 놀라게 되면 당황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쩔쩔매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知)적 활동인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창의적인 사고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바로 이런 상태가 지적활동이 마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4-2] 기습과 인간 정신요소와의 관계



* 출처 : 연구자 구성안

이런 충격이 개인이 아닌 집단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집단 구성원들이 놀라 공포에 휩싸여 인간의 본능인 생존의 욕구와 얽혀 어쩔 줄을 몰라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가히 짐작이 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공포의 단계를 넘어서 공황의 단계로 진입한 상황인데, 이 공황은 그 전개 과정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며 이 가운데 군사작전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2단계의 불안에 의한 공황이라고 한다.

즉 “이 만연한 불안이 어떤 하나의 동기 또는 자극물이라는 임계철선을 만나게 되면 조직적인 통제를 잃게 되고 오로지 생존의 불빛만을 찾아 사방으로 날뛰는 광분의 상태로 돌입하게 되며 이때 공황의 효과는 극대치를 기록”[175]하게 된다고 하며, 군의 지휘관은 전장에서의 이러한 장병들의 심리상태를 잘 이해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습은 이렇게 적의 정서에 충격을 주어서 지적인 활동을 마비시킴으로써 어떠한 대응조치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패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가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기습을 달성하

175) 이재윤(2006),『군사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경기 파주: 집문당, p.191.

고 전력의 우세를 전복시켜 승리하는 비결인 것이다. 이와 같은 기습에는 수적 우세가 큰 의미가 없음을 이 원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5. 적에게 대응조치할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전쟁 초기에 획득된 상대적 우세와 기습의 이점도 적으로 하여금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였을 경우에는 상실하게 된다. 앞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과 사람의 인식작용의 관계상 적에게 시간을 허용하면 적의 사령관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상황조치를 하게 되며, 기습 또한 최초의 충격에서 깨어날 시간이 허용되면 적이 제정신을 차리고 안정을 취하여 논리적인 사고로써 대응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속한 기동에 의한 시간적 집중으로 아군이 획득한 우세도 적이 대응전력을 집중하여 아군의 상대적 우세를 상쇄하면 집중은 실패하는 것이며, 기습 또한 적으로 하여금 최초의 충격에서 깨어나 합당한 대응조치를 하면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세와 기습이 단시간에 달성되어야 할 시간의 문제이며, 시간상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면 어떠한 노력도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전쟁에서는 최초에 달성된 우세와 기습의 효과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제 4 절 기동전은 조직체계를 마비

1. 적의 지휘통제 체계를 마비시킨다.

모든 조직은 유기체와 같아서 인체의 기능체계와 같다. 본 연구자는 대대장 근무시절에 한 병사가 목뼈가 부러져 인공호흡을 하면서 통합 병원으로 옮겨 장기간 입원시킨 경험이 있다. 이 병사는 척추의 신경이 모두 마비되어 의식은 멀쩡하지만 호흡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배설물은 받

아 내고, 수족을 못쓰므로 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군사작전도 이와 같이 두뇌를 멍청하게 하든지, 신경조직을 마비시켜 수족을 못쓰게 하든지, 인체의 어느 급소를 가격하거나, 눈을 멀게 하는 방법처럼 용병을 한다면 싸울 필요도 없이 이길 것이다.

군대의 두뇌는 최고사령부의 사령관과 지휘소이며, 그 신경조직은 정보통신체계이다. 그러므로 적의 지휘소를 조기에 타격 및 습격하여 적의 사령관을 사살하거나, 지휘소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파괴하든지, 주요 정보통신소를 타격한다면 적의 지휘 및 통신체계가 마비되어 그 예하부대가 전혀 작전행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6일 전쟁시 초일에 『에짚트』군의 최고사령부를 폭격한 사례나,「누르하치」군이 돌진하여『명(明)』군의 주요 장수들을 살상하고, 신호수들을 처치하여 적군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킨 것은 전쟁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었다.〈조·일 전쟁〉에서「이순신」장군이 거북선을 『왜』군의 대장선을 향하여 돌격시켜 순식간에 적의 대장을 사살하자 적병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대패한 사례도 바로 적의 지휘체계를 마비시켜 승리한 좋은 사례라고 할 것이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로 이루어져 상·하급제대 간에 지휘통신체계로 신경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면 커다란 저항 없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2. 적의 정보체계와 군수지원체계를 마비시킨다.

전쟁에서 적의 눈을 멀게하고, 귀를 막아 놓는다면, 적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마비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적의 군수지원 체제를 마비시켜 적의 장병들이 먹지도, 입지도, 연료도, 탄약도, 무기 및 장비의 보급도 할 수 없다면 지속적인 작전이 불가능 할 것이다.

기동전에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고속기동으로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적보다 우수한 정보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기동전에서는 전략적·작전적수준의 정보전 수행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군의 전략적·작전적 정보능력은 적을 훨씬 능가하게 하고, 적의 정보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대전에서 군수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다. 군의 기계화와 첨단 과학화에 따라 군수지원이 없이는 우수한 성능의 무기 및 장비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전쟁사례에서 「칭기스칸」 군은 치중시설의 후속 없이 싸울 수 있게 경량화 내지 적지에서 조달하였으며, 「누르하치」 군은 보급의 부담이 없도록 전장을 자기 지역에 선정하였고, 『이스라엘』 군은 근접정비 및 수리체제를 잘 갖추어 파괴된 전차를 전장에서 50% 이상 수리하고, 적 전차를 노획하여 전쟁의 중반부터는 오히려 적보다 전차 수가 역전하는 현상을 낳았던 것이다.

이렇게 아군의 군수지원체제는 다각적으로 확립하고, 전쟁에서 적의 병참선을 차단함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적의 군수지원체계를 마비시켜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모전 사고를 가진 자들은 적의 군수시설이나 수송수단, 교량, 철도, 터널 등을 화력으로 타격하여 적의 군수지원체계를 마비시키려 하지만, 기동전 사고를 가진 자들은 기동에 의하여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지휘통제체계를 마비시켜 적의 군수지원 체계를 마비시키려는 사고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제 5 절 기동전은 조직심리를 마비

1. 인간의 힘의 기반은 정신력

《대종교》의 경전인 『삼일신고(三一神誥)』에 이르기를 "사람과 만물이 다 같이 세 가지 참함을 받나니 이는 성품(性)과 목숨(命)과 정기 (精)라. 사람은 그것을 옹글게 받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느니라"[176]라고 하였으며, 또한 "뭇 사람들은 아득한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가달이 뿌리박나니 이는 마음(心)과 기운(氣)과 몸(身)이니라"[177]라고 하여 참된 인

176) 대종교총본사(2002), "삼일신고", 『대종교경전』, 서울 : 대종교출판사, p.55.
177) 상게서, p.58.

간의 본래 모습은 치우침이 없는 본성(性)과 생명력(命)과 정기(精)를 타고 나는데, 거듭 태어남으로서 거짓된 마음(心)과 기운(氣)과 몸(身)을 가지고 각자 차별 있게 태어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으뜸 밝은 이」는 한얼님과 덕(大德)을 합하여 막힘이 없이 다 통하고, 「다음 밝은 이」는 한얼님과 슬기(大慧)를 합하여 미혹(迷惑)함이 없이 다 알고,「아랫 밝은 이」는 한얼님과 힘(大力)을 합하여 이지러짐이 없이 보전하는 것"[178]이라고 하여 인간이 수련을 통하여 닦아, 덕(德)과 지혜(智慧)와 힘(精力)을 고루 쌓음으로서 본래의 참인간으로 나아간다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삼육(三育) 즉 덕을 기르고(德育), 지혜를 기르며(智育), 체력을 기르는(體育) 교육을 통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인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의 마음에는 감정(感情)과 지혜(智慧)와 의지(意志)의 영역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요소 가운데 의지, 신념, 용기, 인내, 감투정신 등은 의지(意志)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힘은 타고나는 생명력(氣)과 정력(精) 즉 이를 합하여 정기(精氣)라 하는데, 이러한 정기에 기반을 두고 의지, 신념, 용기, 인내, 감투정신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정신적인 창조물이며, 만물의 영장(靈長)으로서, 인간의 힘의 기반은 결국 정신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2. 정신전력의 기반이 강력한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

인간의 힘이 정신력에 바탕을 두고 나오므로 정신전력의 기반이 강력한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군의 의지는 지휘관의 의지이고, 군의 승패는 주로 지휘관의 의지로 지배된다… 전쟁에 있어서 하나의 신념은 1백 가지 지식을 능가한다. 생사(生死)의 단계에서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근본바탕은 신념이지 지식이 아니다"[179]라고 한 것처럼 전쟁에서 지휘관의 의지가 부하 장병들의 감투정신을 일깨우고, 신비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여 승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위대한 장군의 지휘통솔력이다.

178) 대종교총본사(2002), 전게서 , p.85.
179) 강창구(1976), 전게서, pp.5-7.

〈조·일 전쟁〉 시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을 하루 앞두고 부하 장병들에게 행한 훈시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수 있고 (必死則生), 살려고 적당히 싸우면 죽을 것이다(必生則死)”[180]라고 하여 장병들에게 죽음을 무릎쓰고 싸우게 하여 대승한 사례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군의 「모세.다얀」 장군도 “정신적 의지력에 의한 공격개념”을 강조하여 제 3차 중동전쟁(6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것이 전쟁시 『이스라엘』 군의 불면불휴(不眠不休)의 전통이 되어 제 4차 중동전쟁(10월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기동전은 소모전과 달리 엄청난 악조건을 극복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동하기에 어려움을 주는 기상과 지형의 악조건을 극복하여야 하므로 강인한 정신력을 필요로 한다. 「칭기스칸」 군대가 장사를 하는 캐러밴들조차 가로지르지 못하고 수백km를 우회하는 〈키질쿰〉 사막을 횡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산산맥도 넘어서 3,500km 나 되는 원거리를 기동하였다. 『이스라엘』 군이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막과 암석 지대의 애로를 극복하여 기동하고, 제 4차 중동전에서 〈수에즈운하〉 를 역도하 할 때에는 특별히 제작된 긴 부교를 전차 수대가 끌고 좁은 도로를 가로질러 운하로 운반한 다음에, 『에짚트』 군의 역습과 집중 화력의 공격으로 수백 명의 장병을 희생시키면서 부교를 가설하여 도하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최악의 조건을 극복하면서 부대가 기동하려면 장병들의 죽음을 무릅쓴 정신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는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군대와 국가의 위신과 정치인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그 정신전력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열세군(소국)이 우세군(대국)을 상대로 하여 싸울 경우는, 대부분 소국이 주변 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므로, 장병들의 정신전력의 기반이 더욱 강한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칭기스칸」 과 「누르하치」 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도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적 보다 더욱 강력한 정신전력의 기반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

180) 임원빈(2005), 『이순신 병법을 논하다』, 서울 : 신서원, p.245.

『독일』도 제 1차 세계대전 결과〔베르사이유〕조약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전쟁으로 치달은 것이므로 생존을 위한 전쟁의 성격이 짙은 까닭에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도 영·불 연합군의 입장과는 달랐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기동전의 수단은 영토와 자원의 우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이다.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동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이 휴식하거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기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기동전에서의 기동은 대부분 정면기동이 아니라 원거리 우회기동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다.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쟁의 목적이 생존과 국익의 증진에만 있기보다는 세계 평화유지와 국민의 자유 확대 또는 보편적 인권의 존중 등 좀 더 고차원적인 목적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목적의 전쟁에서는 본능적인 생존을 위한 정신전력보다는 인류의 차원 높은 정신적 가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쟁을 위해서는 장병들에게 애국심, 자유와 평등, 인권 신장 및 환경개선 등 좀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위한 전쟁의 당위성에 대한 정신적인 공감과 신념이 없이는 기동전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선진국으로서의 전쟁은 국력의 신장과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의 제고에 따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분쟁에 참여해야 할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또한 국내 정치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들의 여론형성과 지지를 위해서도 차원 높은 목적을 위한 전쟁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확산이 꼭 필요한 것이다. 『베트남』의 공산화 방지를 위한 파병이나,『이라크』국민의 자유 확대를 위한 전쟁참여 등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내 나라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분쟁에 우리의 군대를 보내 고귀한 장병들의 생명을 희생시킬 때에는 그만한 정신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파병되는 장병들도 그 만한 가치가 공감이 되어야 그들의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정신전력의 기반이 확고한 장병들은 적의 심리전이나, 적의 기동전에 따

른 심리적 마비의 위험이 그 만큼 감소되어 악조건 하에서도 부대의 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3. 기동전은 적의 조직심리의 마비를 노린다.

기동전은 기동속도로 적의 조직심리의 마비를 추구하는 전쟁이다. 기동전수행의 수단은 적군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이라고 하였다. 기동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속도인데, 이 물리적인 군대의 기동 속도가 인간의 인식작용과 관련하여 전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군의 조직심리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풀러」는 이 장의 제 2절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기동전은 기동 속도로 적의 조직심리의 마비를 노린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장의 제 2절에서 기동속도가 시간의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시간과 인간의 인식작용의 상호관계로 인하여, 고속기동으로 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사태의 진전에 따라 적군의 상황인식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여, 종합적인 상황파악도 안되고 그에 따라 아무런 상황조치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이러한 당황스런 상황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아직도 덜 깬 상태에서, 계속하여 맹렬한 기동속도로 해일과 같은 공격기세를 유지하고 전과를 확대하면 적의 후방이 그야말로 대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지휘통신체계와 군수지원체계가 마비되며, 부정확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있는 첩보를 종합하여 유용한 정보로 산출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체계가 마비되어 버리는 사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하부대가 전장에서 발생하는 군중심리의 영향으로 의심과 공포 및 공황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군중심리에 관한 세계적인 대가인「귀스타브. 르.봉」은 "군중은 의식의 개성이 소멸하는 경향, 무의식의 개성이 우위를 점하는 경향, 감정과 생각이 암시에 걸리고 감염됨으로써 동일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경향, 암시된 생각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을 지녔음이 밝혀졌다"[181]고 하여, 군대는 최고 단계

[181] 김성균 譯(2008),『군중심리』, 경기 고양 : 이레미디어, p.53.

의 조직화된 군중으로서 죽음의 공포와 고통이 연속되는 전장 상황에서는 군중심리가 지배하여 장병들이 본능과 무의식 및 암시에 따라 집단행동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적이 예상하지 못한 기동속도로 후방 깊숙이 진격할 때에는 적의 장병들이 의심과 불신, 혼란과 불안 및 공포가 전장을 지배하고 이러한 집단 정서가 장병들에게 감염되어 공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적군의 사기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손자」는 전군의 사기가 꺾일 수 있으며, 적 사령관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 (三軍可奪氣 將軍可奪心)고 하였고,「리델하트」는 "마비상태는 적의 조직붕괴 및 정신면에서의 조직붕괴와 동등한 것인 사기붕괴에 의하여 발생한다"[182]라고 제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적의 사기가 붕괴되고, 적의 최고 사령관의 전쟁의지가 꺾이게 되며, 적군의 조직심리가 마비되어 군대조직이 붕괴되는 것이다. 앞서 소모전은 유혈전투를 통하여 적군의 자원을 점차 소모시켜 누적된 소모로 인하여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적의 정부와 적군의 사령관의 전쟁의지를 굴복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동전은 기동속도로서 적의 후방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적의 사기를 붕괴시키며, 적의 사령관의 전쟁의지를 꺾어서 조직심리를 마비시킴으로써 적의 군대조직을 일시에 붕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수적으로 우세한 적의 군대라도 아군의 소수 정예군으로 적이 상상할 수 없는 고속기동으로 적군의 심리적인 중심을 향하여 속도를 발휘함으로써, 적군의 조직심리를 마비시켜 일시에 붕괴시킨다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기동전으로 승리하는 원리이자 비결인 것이다.

4. 속도전과 함께 심리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182) 강창구(1978), 전게서, p.369.

「손자」가 주장했던 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략과 심리전이다. 그리하여,「손자」는 "아군은 질서가 정연한 가운데 적의 혼란함을 기다리고, 아군은 고요하고 적이 소란할 때 대적함은 전장의 심리를 장악하는 방법이다(以治待亂 以靜待譁, 此治心者也)"[183]라고 하여 전략사상가로서 처음으로 전쟁의 심리적인 측면을 병법에 적용하였다. 오늘날처럼 심리학이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전쟁의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칭기스칸」군도 "제 1단계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파괴활동을 전개하여 적으로 하여금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다"[184]라고 증언하여 13세기에 이미 몽고군이 심리전을 병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군이 아르헨티나에 대해 Mascom으로 전략적·작전적 심리전을 실시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185]라고 하여 영국이 국가전략수준에서 심리전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기동전에서는 기동속도로 적의 조직심리를 마비시킨다고 하였는데, 이는 물리적 기동이 결국 적의 심리를 목표로 하여 변화를 일으켜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물리적인 기동과 화력 등 수단만이 아니라 심리전으로 적의 심리를 교란시키고, 의심과 혼란을 부추기고, 사기를 떨어뜨리며, 적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군사학도라면 〈초·한전쟁(楚·漢戰爭)〉에서「장량」의 옥퉁수 소리로「항우」군을 붕괴시킨 일화는 상식에 속하며, 현대 〈한국전쟁〉에서도 중공군이 피리와 꽹과리 및 징 등을 가지고 와서 아군의 진지 후방에서 심리전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략적·작전적·전술적수준의 심리전 수행방법을 잘 발전시켜 기동전이 추구하는 심리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183) 손무・국방부 編(1956), 전게서, p.183.
184) 이원국 譯(1987), "칭기스칸과 13세기판 Air-Land Battle", 『군사과학자료 제 129호』, 대전: 육군대학, p.44.
185) 민평식 譯(1983), 『포클랜드 전쟁』, 서울 : 병학사, p.266.

제 5 장 기동전수행의 원리

제 1 절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별 원리의 종합

1. 물리적 기동이 어떻게 조직심리를 마비시키는가?

전쟁의 목적은 적국의 의지를 굴복시켜 아국의 의지를 강요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에서 정치의 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쟁을 통하여 적국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국의 저항력을 분쇄하여야 한다. 적국의 저항력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힘을 제공하는 것이 군사력이다.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국의 군사력을 분쇄하여야 하는 것이다.

전쟁의 목적은 소모전 이론과 기동전 이론이 동일하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국의 저항력을 분쇄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 기동전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보다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적을 굴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풀러」와「리델하트」가 주장한 것처럼, 적국의 정부기능과 적군의 사령관을 기동속도에 의해 마비(痲痺)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가 주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이라는 수단으로 어떻게 적을 마비시키며, 또 그 원리는 무엇인가?”이다. 더구나 아군의 기동속도가 적을 마비시키는 원리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비상태는 물리적인 마비와 심리적인 마비가 있다. 물리적인 마비는 인체의 신경조직이 마비되어 심폐기능이 정지되거나, 수족을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현상이며, 심리적인 마비는 물리적인 마비에 의하거나, 또는 어떤 심리적인 충격에 의하여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거나 또는 큰 충격을 받은 인간이 실성하거나 멍청해져버린 현상과 같은 것이다. 전쟁에서는 이런 물리적 마비와 심리적 마비가 어떻게 일어날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한 과제이다.

2. 기동전은 속도를 적의 심리적 중심으로 지향한다.

앞 장에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별로 그 원리를 알아보았다. 기동전수행의 각 핵심요소는 아군의 물리적 행동으로 전장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적의 조직심리에 부정적이고 불리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 아군의 물리적 행동은 모두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하며, 기동성의 본질인 속도를 활용하여 적의 조직심리에 교란을 일으키고, 공포심과 공황을 유발하며 급기야 적의 사기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여기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별로 그 원리를 종합하고 분석해 들어가면, 속도로서 적의 조직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주도권은 아군의 의사의 자주성이 먼저 결의되고 그에 따라 적보다 기동을 통해 행동을 먼저 행하여 적으로 하여금 의사의 자주성이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게 하여 아군의 의도대로 작전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즉 물리적, 심리적 행동과 의사가 시간적으로 먼저 결정되고 수행된다는 것이다.

속도는 시간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적의 인식기능에 마비를 일으키는 것이며, 계획수립부터 작전수행 간 상황조치에 이르기 까지 적과의 시간경쟁에서 이겨야 적의 조직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수준에서 시간을 전략적 자원으로 삼고, 전략적 기동속도로서 적의 전략적 심리의 중심으로 지향하여 사기를 붕괴시키고, 적 사령관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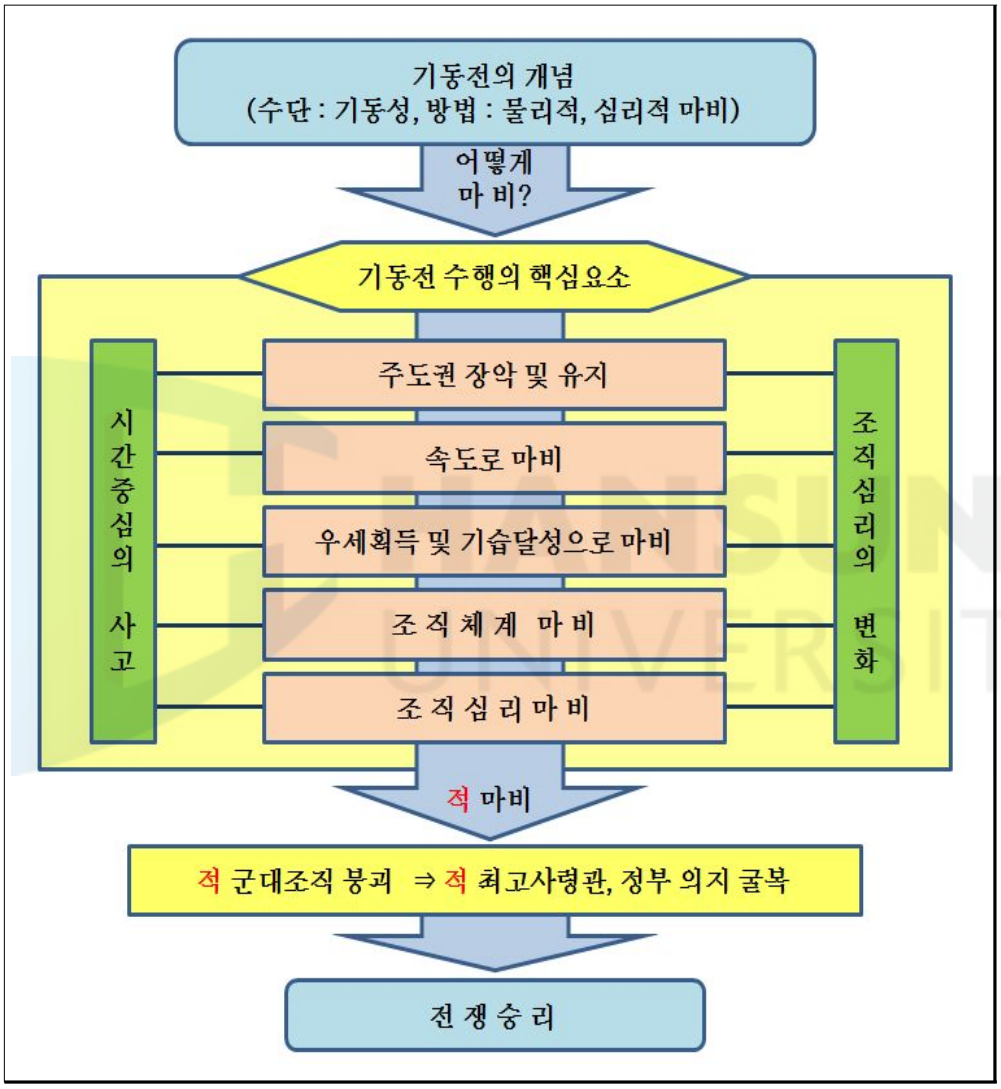
이러한 속도는 전략적·작전적 기세유지의 원동력이 되어 해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며, 여기에 아군의 충천하는 사기가 더해지면 그 기세는 승수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상대적인 우세획득도 열세한 전력을 시간적으로 집중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며, 기습도 이러한 우세가 적의 약점에 지향되어 압도적인 우세로 적에게 공포감을 유발하고, 또한 기습의 충격으로 전력이 전복되고, 적의 사령관과 장병들의 지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한 조직체계도 아군의 고도의 속도로 인하여 적의 지휘 및 정보체계

와 병참선이 차단되는 등 군수지원체계가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상의 각 핵심요소가 모두 속도를 바탕으로 하는 물리적 행동이 적의 조직심리에 영향을 미쳐 마비되고 붕괴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심리전이 병행된다면 심리로서 심리를 마비시키는 효과가 더욱 상승작용을 하여 적의 마비를 촉진할 것이다 심리전에서도 선제적인 심리전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림 5-1] 기동전 수행의 핵심요소별 원리의 종합



* 출처 : 연구자 구성안

이상의 각 핵심요소별 원리를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속도가 적의 조직심리에 미치는 영향으로 압축이 되며, 이는 다시 시간중심의 사고에 바탕을 두고 시행하는 아군의 물리적 행동이 적의 조직심리에 변화를 일으키고 마비시킨다는 해답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서 열세군이 승리하는 비결은 속도로서 적의 조직심리를 마비시키므로 수적인 열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 2 절 기동전수행의 원리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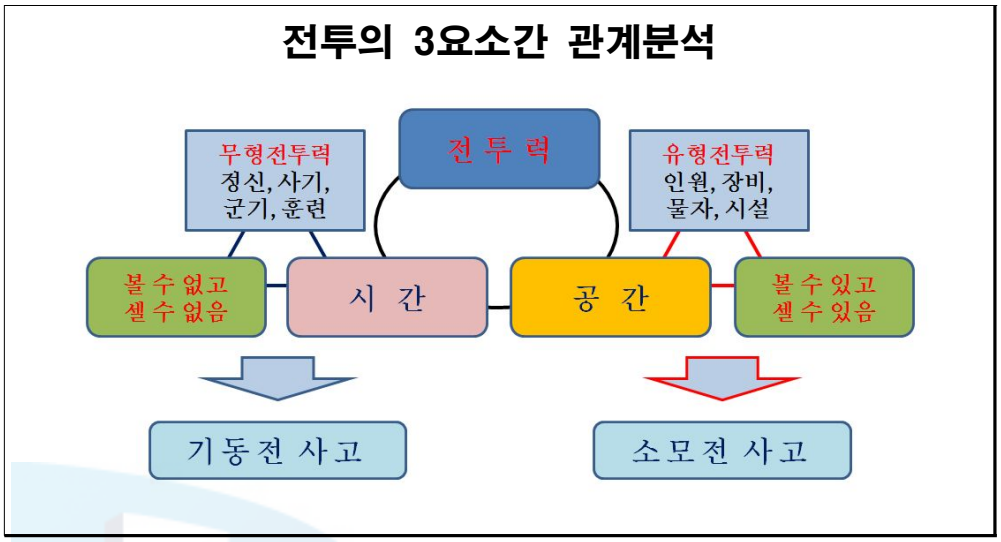
기동전을 수행하여 승리하는 요인은 시간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적의 조직심리에 변화를 일으켜 마비시키는 데 있다. 기동전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하여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보다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려는 방법을 사용하는 전쟁의 형태이다. 즉 기동전은 물리적인 기동속도를 적군의 조직심리를 목표로 지향하여 적을 심리적으로 마비시킴으로써, 군대조직을 붕괴시켜 승리하고자 한다.

물리적으로 속도는 시간의 개념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로 도출된 5개요소가 신속한 기동속도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즉, 주도권장악, 속도, 우세획득 및 기습 달성, 조직체계 마비 및 조직심리 마비의 요소가 모두 적보다 빠른 속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은 시간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해야 할 요소인 것이다. 그리고 이 5개 핵심요소는 모두 전쟁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요소와 집단으로서의 군대 조직심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기동전에서 승리하는 원리와 비결은 전쟁에서 시간과 조직 심리의 함수관계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전장에서 전투는 시간과 공간 및 전투력의 3개 요소가 조합되어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을 전투의 3 요소라고 한다. 즉 전투란 적대하는 쌍방이 어떠한 공간에서 자기의 전투력을 시간적으로 운용하여 상대의 저항력을 분쇄하는 투쟁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적국의 의지를 굴복시키려고 저항력을 분쇄하는 수단과 방법 면에서 소모전 이론과 기동전 이론이 추구하는 개념의 차이를 이 전투의 3 요소와 연계하여 분석해 보면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전쟁이론과 전투의 3 요소간 관계



* 출처 : 연구자 구성안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모전 이론은 눈에 잘 보이고, 쉽게 계량화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유형 전투력의 많고, 적음에 기준을 두고 전투력을 운용하여 승리를 쟁취하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동전 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계량화하기도 어려운 시간과 무형 전투력의 상호관계 속에서 전투력을 운용하여 승리를 쟁취하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고의 관점과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양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공간은 눈에 보이고, 또 넓이와 부피를 계량화하여 측량할 수 있다. 또한 공간은 정태적(靜態的)이므로 변화가 심하지 않아 공간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정형화된 사고를 가지기 쉽다. 그러므로 보통의 인간들에게도 공간의 문제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시간은 그 흐름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형체가 없으므로 시간의 양에 대한 개념

이 일정하지 않다. 또한 시간은 시시각각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잠시도 머물지 않으므로 동태적(動態的)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변화에 능동적이고, 속도에 관심을 가지며,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농경 정착민은 공간중심의 사고를, 유목민들은 시간중심의 사고를 가진다. 따라서 역사상 유목민과 농경 정착민들과의 전쟁에서는 유목민이 승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는 바로 그 사고의 차이에서 파생되는 변화에 대한 적응속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차이는 필연코 소모전 이론과 기동전 이론의 커다란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기동전 이론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면에서의 원리와 비결은 시간과 조직심리의 함수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표 5-1] 기동전 승리의 원리 공식

● 기동전의 승리는 시간중심의 사고로 전력을 운용하여 적의 조직심리에 변화를 일으켜 마비시키는 데 있다. ☞ **기동전 승리 = 시간 × 조직심리 의 함수관계**

* 출처 : 연구자 구성안

시간요소와 무형전투력 즉 정신적, 심리적인 요소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계량화하기 어려우므로 사람들이 그 실체를 파악하고,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눈과 수량으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상상력과 통찰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상력과 통찰력이 뛰어나지 못한 보통의 인간들은 시간과 조직심리의 함수관계에서 운용되는 전쟁의 양상을 상상하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더구나, 소모전 이론에 고착되고 정형화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마저도 어려운 일로서 아마도 우주인들이 벌이는 신비적인 일로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로 간주될 것이다.

종합하여 보건대, 기동전에서 승리하는 원리와 비결은 시간을 지배하는 군사작전으로 공간의 장애를 극복하고 이용하여 적의 심리적 중심을 무너뜨리고 조직심리를 마비시킴으로써 적의 군대조직을 붕괴시켜 승리하는 전쟁수행방법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기 위해 기동전수행의 원리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 논제를 연구하기 위한 문제는 첫째로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전쟁이론이 무엇이며, 둘째로 기동전이론이 어떠한 것인가?, 셋째로 기동전을 수행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과 범위는 먼저 기동전의 개념과 핵심요소 및 원리에 관하여 주요 전략사상가와 선행 연구자들의 이론을 고찰하고, 세계전쟁사상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기동전으로 승리한 몇 가지 사례(史例)를 선별하고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주요 전략사상가와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와 대표적인 기동전 사례 분석 결과 선정된 핵심요소들을 종합하고 통합하여, 기동전수행에 필수적인 핵심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핵심요소들에 대해 주요 전략사상가들의 이론과 견해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철학적, 심리학적, 물리학적,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입증하여 기동전수행의 원리를 찾아 내도록 노력하였다.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열세군이 우세군을 상대로 하여 승리하는 전쟁이론은 기동전 이론임이 명백해졌다.

기동전수행의 목적은 소모전과 같이 적국의 전쟁의지를 굴복시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기동전의 수단과 방법은 소모전 이론과 전혀 다르다.

즉, 기동전 이론은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하여 적국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그 저항력을 분쇄하는 방법으로는, 적군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보다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전략을 구현하여, 유혈전투를 최소화하고 살상과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는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기동성을 수단으로 주도권을 장악 및 유지하여 전쟁을 아군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

므로써 단기간 내에 커다란 희생없이 종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력의 운용은 고도의 기동속도를 발휘하여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시간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세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러한 집중이 적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을 충격함으로써 기습을 달성하여 적군의 우세를 일시에 전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쟁 초기에 달성한 이러한 우세와 기습의 효과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진격속도에 바탕을 둔 해일과 같은 공격기세로 적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또 적군의 지휘통신, 정보 및 군수지원 체계 등 각종 조직체계를 마비시키고, 우수한 기동성으로 적의 심리적 중심을 향해 속도를 지향하고 심리전을 조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적군의 조직심리를 마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동전수행의 핵심요소별 원리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기동전 승리의 원리는 시간과 조직심리의 함수관계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동전 수행의 핵심요소인 주도권의 장악, 속도, 상대적 우세획득 및 기습달성, 조직체계 마비 등이 모두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 기동성의 본질인 속도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속도의 문제는 바로 시간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시된 모든 핵심요소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전장에서의 적군의 조직심리에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여 적군의 저항의지를 마비시키는 데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모전에서 처럼 눈에 잘 보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유형전력에 기초를 두고, 더 넓은 적의 영토를 탈취하고, 적의 유형전력을 누적적으로 소모시킴으로써 적국의 의지를 굴복시키려는 전쟁은 당연히 회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동전 이론은 시간중심의 사고에 바탕을 둔 군사작전으로 공간의 장애를 극복하고 이용함으로써 적군의 조직심리를 마비시켜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비(痲痺)의 원리라고 결론 맺을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시대의 상황과 군대의 규모와 전쟁공간의

광역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전쟁이론이 발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전쟁은 소모전의 양상과 기동전의 양상으로 대분되어, 전쟁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을 다르게 추구함으로써 전략개념의 발전과 선택에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은 주변국에 비하여 약소국일 뿐만 아니라 군대 또한 열세군이므로 국가주권의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는 소국이 대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이 2015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군 단독의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한반도의 전략환경에 부합되는 자주적인 전쟁수행방법에 바탕을 둔 군사교리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군사력 건설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선정한 문제를 연구한 결과 전쟁에서 열세군(소국)이 우세군(대국)을 상대로 하여 승리하는 전쟁이론은 기동전이론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 이유는 전쟁이 본래 정치의 수단으로서 폭력의 사용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 하더라도, 전쟁에서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을 회복하여 인본주의에 바탕한 인간존중의 사상을 구현함으로써, 엄청난 살상과 파괴를 통해 원한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비용이 덜 사용되는 경제적 전쟁을 수행하여 피·아 국민들의 사회악과 고통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변국에 비해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으며,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모전을 수행하게 되면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바,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동전 이론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동전수행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기동전략개념 정립과 전략기획을 하고, 기동작전의 원칙을 정립하여 자주적인 군사교리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교리를 수행하기 위한 소수의 정예화된 기동군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동전을 능숙하게 지휘할 직업적 장교단의 리더십과 지휘문화를 조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국내에 세계적인 전략사상가 또는 군사이론가가 부재하다시피 하여 읽고 배워야 할 수준 높은 저서나 연구서, 그리고 연구논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계획하여 수행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독일군이나 이스라엘군과 같이 자국이 처한 전략환경에 부합되는 전쟁이론 및 군사교리에 관하여 깊이 연구하고, 광범위한 토의와 공감을 거쳐 현재와 미래의 군사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군사적 전통과 문화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동전 이론에 관한 외국의 저명한 전략사상가와 군사이론가들의 저서와 연구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기동전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군사사상적 배경이나 세계의 주요 전략이 유래하는 전략사상적 기반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동전이나 전격전은 보통 작전적 수준에서의 군사작전에 관한 이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전략 및 군사전략적 수준에서 기동전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동전과 소모전 및 유격전 이론들은 전쟁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전략사상의 차원으로 이해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기동전 수행개념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한국적 전략환경에서 기동전 전략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전쟁수행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며, 이를 토대로 하는 한국군의 자주적인 전략개념 수립 및 군사교리 발전과 군사력건설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았다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 행 본

강창구 譯(1995), 『전격전의 기초이론』, 서울 : 병학사.
_____(1978),『전략론』,서울 : 병학사.
_____(1991),『전쟁론』,서울 : 병학사.
_____(1976),『統帥綱領』,서울 : 병학사.
고정아 譯(1999),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 서울: 세종서적(주).
공군본부(2009), 『작전 용어 사전』, 대전 : 공군본부.
국방부 編(1956),『兵法新講』, 서울 : 국방부.
김광석 編(1993),『用兵術語硏究』, 서울 : 병학사.
김구섭 외(2001),『전쟁에서의 지휘』, 서울 : 연경문화사.
김기동(1997),『손자의 병법과 사상 연구』, 서울 : 현암사.
김상철 譯(2001) ,『기동전 대해부』, 대전 : 문경출판사.
김성균 譯(2008),『군중심리』, 경기 고양 : 이레미디어.
김정오 譯(1990),『기계화부대장』,서울 : 한원사.
김종권외 (2010),『HIGH TOP (고등학교 물리Ⅱ)』, 서울 : 두산 동아.
김종래(2002),『유목민 이야기』, 서울: 꿈엔들.
김진항 譯(2000),『전략은 어떻게 만들어 지나?』, 서울 : 연경문화사.
김태식 譯(2004), 『부대지휘』, 대전: 육군대학.
김희상(1977), 『중동전쟁』, 서울 : 일신사
나창주(1981),『毛澤東의 生涯와 鬪爭』, 서울 : 태양사
대종교총본사(2002),『大倧敎經典』, 서울 : 대종교출판사.
민평식 譯(1983), 『포클랜드 전쟁』, 서울 : 병학사.
박근형 譯(2007), 『욤 키푸르 1973』, 서울 : 플레닛미디어.
박정이 譯(1997), 『임무형전술의 어제와 오늘』, 서울 : 백암.
손일현 譯(1992), 『강대국의 대전략』,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양창식 譯(1977), 『전리란 이런 것이다』,서울: 한줄기.

예관수 編(1964), 『군사학 대사전』, 서울 : 국방부.
연제욱 譯(1999), 『기동전』, 서울 : 책세상.
_____(1997),『러시아 군의 기동전』, 전남 장성: 육군 기계화 학교.
오강남 譯(1995), 『도덕경』, 서울 : 현암사.
온창일(2004), 『전략론』, 서울 : 집문당.
온창일 외(2006), 『군사사상사』, 서울 : 황금알.
육군본부(2005), 『지상군 기본교리』, 대전 : 육군본부.
육군사관학교(1982), 『세계전쟁사』, 서울 : 일신사.
_____(2007), 『세계전쟁사 부도』, 서울 : 황금알.
윤은기(1992), 『時 테크』, 서울 : (주)유나이티드 컨설팅 그룹.
이기문(2010),『동아 새 국어사전』, 서울: 두산 동아(주).
이동욱 譯(2006),『과학기술과 전쟁』, 서울: 황금알.
이승호 譯(1999),『기동전의 이론과 실제』,서울 : 열린교육사
_____(1995),『전격전의 원리 연구』,광주 : 진흥.
이재윤(2006),『군사심리학의 이론과 실제』,경기 파주 : 집문당.
이투스 과학팀(2011), 『누드 교과서 SE(물리Ⅰ)』,서울 : 이투스 교육㈜.
임원빈(2005), 『이순신 병법을 논하다』, 서울 : 신서원.
임해성 譯(2006), 『전략의 본질』, 서울 : 비즈니스 맵.
정영목 譯(2005),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서울: 사계절.
정토웅 譯(2006), 『전쟁과 리더십』, 서울 : 황금알
조영철 譯(1984),『기습』, 서울 : 국방부.
주은식 譯(1998), 『리델하트 사상이 현대사에 미친 영향』, 서울 : 홍문당.
_____(1994), 『리델하트 군사사상 연구』, 서울 : 진명문화사.
_____(1999), 『전략론』, 서울: 책세상.
_____(1994), 『전쟁의 이론과 해석』, 서울: 한원.
진중근 譯(2007),『전격전의 전설』, 서울 : 일조각.
최병갑 編(1984), 『전략사상의 새로운 방향』, 서울: 국방대학원.
합동참모본부(2010),『합동개념서(2012 - 2026년)』, 서울 : 합동참모본부.
_____(2009),『합동기본교리』, 서울 : 합동참모본부.
현진영 編(1985), 『전략상 기습론, 병서연구 제 15집』, 대전:육군본부.
황규만 譯(1975),『롬멜전사록』, 서울 : 일조각.

2) 연구논문

김덕현(1986), “劣勢軍이 優勢軍에게 勝利한 戰例”, 『군사과학자료 제121호』, 대전 : 육군대학
노양규(1989), “마비전 전략사상의 현대적 고찰(Ⅰ)”,『군사평론 제277호』, 대전 : 육군대학.
_____(1989), “마비전 전략사상의 현대적 고찰(Ⅱ)”,『군사평론 제278호』, 대전 : 육군대학.
_____(2010), “미군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_____(1988), “풀러(J.F.C.Fuller)의 마비전 사상”,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민병덕(1988), “기동전의 현대적 발전”,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기련(1989), “지상군 기동방식의 현대적 전개”,『군사평론 제279호』, 대전: 육군대학.
육군대학(1985), “기동의 정량적 고찰”,『군사과학자료 제111호』, 대전 : 육군대학.
_____(1998), “기동전”,『군사평론 제337호』, 대전 : 육군대학.
_____(1998), “전투의 기본원리”,『군사평론 제333호』, 대전 : 육군대학.
_____(1998), “전리입문”,『군사평론 제331호』, 대전 : 육군대학.
윤동우(1991), “군사교리와 부대구조의 상관성에 관한 비교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원국 譯(1988), “임무형명령과 지휘분권화 연구”,『군사과학자료 제143호』, 대전 : 육군대학.
_____(1987), “칭기스칸과 13세기판 AIRLAND BATTLE”,『군사과학자료 제 129호』, 대전 : 육군대학.
이원호(1991), “기동전수행을 위한 작전술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국외문헌

1) 단행본

Fuller.J.F.C., *The Conduct of War 1788~1961*, New Jersey : Rutgers Univ. Press, 1961.

2) 연구논문

Echevarria II.Antulio J., "AUFTRAGSTAKTIK : IN ITS PROPERPER SPECTIVE, *Military Review*,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October. 1986.

Pittard. Dana J.H., "GENGHIS KHAN AND 13TH-CENTURY AIR-LA ND BATTLE", *Military Review*, US ARMY COMMAND AND GE NERAL STAFF COLLEGE, July. 1986.

Polk. James.H., "The Criticality of Time in Combat", *Armor*, US ARMY ARMOR SCHOOL, May-June. 1988.

HANSUNG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Principle of the Conducting Maneuver Warfare

Jeon, Eui-sik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Int'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inciples of maneuver warfare in order to understand how an inferior force triumphs over a superior force in wa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ree questions are examined:

First, what is the warfare theory by which an inferior force triumphs over a superior force? Second, what is maneuver warfare? Third, what are the principles of maneuver warfare?

This paper starts by investigating key factors and principles of maneuver warfare presented by major strategic thinkers and preceding researchers. Also, from the world military history, several exemplary cases of maneuver warfare are analyzed to identify common factors for victory. In addition, principles for successful maneuver warfare are investigated in accordance with each key factor and proved through scientific theories and laws. The methodology utilized in this paper compares and contrasts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y results with

existing philosophical, psychological, and scientific theories and laws.

The results of this sy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ollowing the introduction examines the theories of influential strategists including Sun Zi's "Art of War", J.F.C. Fuller's Paraysis Warfare, H. Guderian's Blitzkrieg, and B.H. Liddell Hart's "Indirect Approach" strategy. Then the study investigates theories of preceding scholars including Richard E. Simpkin, Richard R. Leonhard, John. Boyd, and Richard D. Hooker as well as domestic scholars such as Yang-Gyu Noh.

It begins by defining maneuver warfare : "maneuver warfare is a form of conventional warfare that defeats the enemy mentally leading to a swift victory with minimum casualty by taking advantage of one's superior maneuveravility as a means to paralyze the enemy phisically and psychologically". In addition, it selects the ability to take initiative, speed, dominance, surprise attack, momentum, paralysis of organization structure, and paralysis of organizational psyche as the seven key factors in conducting maneuver warfare. It also adds mental strength and intelligence capability as two additional factors based on the study of five case studies of maneuver warfare. Next, it integrates these factors to extract five key factors in using maneuverability as a means to paralyze the enemy, that is, a means well-suited for the concept of maneuver warfare. Those five factors are the ability to take initiative, speed, ability to accomplish superiority and carry out surprise attack, paralysis of organization structure, and paralysis of organizational psyche.

The ability to take an initiative requires carrying out autonomous decisions and executing operations that implement those decisions ahead of the enemy. In other words, it is to force the enemy to follow the course of action intended by friendly forces by executing

preemptive decisions and operations. Securing this ability is based on intelligence capability superior to that of the enemy and requires timely provision of strategic/operational intelligence during maneuver warfare.

In the battlefield, speed is converted into the concept of time. Swiftly executed operations can create a rapid change of situation so that the enemy may not only cause its headquaters to inaccurately understand the real state of battlefield in the fiood of misleading intelligence, but also cause the enemy to lose grasp of the situation due to the unexpected tide of events and become incapable of taking appropriate actions, deranging the enemy commander. The speed of strategic and operational task forces advancing deep into the enemy's rear generates a sinergy effect in raising morale of friendly forces and developing an insurmountable momentum, which instills fear and panic within the enemy, breaking down their morale. The speed of maneuver targeting the psychological center of gravity can break down the morale of the enemy troops and the willingness of the enemy commander.

Strategic force ratio can be reversed through obtaining relative superiority and accomplishing successful surprise attack by utilizing speed to concentrate on the enemy's critical weakness. Surprise attack disturbs the enemy's psyche, paralyzing the rationality and judgement of the enemy and thus rendering the enemy unable to respond and tips the balance on the strategy scale. Using physiology as an example, the paralysis of various enemy structures such as command and control system and logistics support system, through high-speed maneuvers and efficient operation of fire power, neutralizes the enemy's command and reporting system, rendering the enemy powerless even with superiority in numbers.

In the battlefield, the military force is the mass at the highest

level of organization. Mob psychology can be expressed in a form of mass behavior in accordance to instinct, unconsciousness, and intimation, and mass behavior is governed by emotion rather than by reason. With the initiative, if friendly forces blitz toward the enemy's psychological center of gravity at the battlefield, paralyze the enemy structure, and accomplish surprise attacks, enemy forces become subject to mass psychology, falling into a state of panic, as the fight-or-flight reaction kicks into effect. If the highest level of psychological warfare towards the enemy's psychological center of gravity is conducted simul- taneously, it would paralyze the enemy's organizational psychology destroying their morale as well as military organizations.

Finally, the overarching principle governing maneuver warfare is determined through synthesizing the results of the principles for each key factor.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rinciple is to phisically and psychologically paralyze the enemy by executing blitzkrieg operations that affect enemy's organizational psychology based on the time-centered thinking.

Therefore, the principle of winning maneuver warfare is that of paralysis warfare, which needs to be solved by the funtion of time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In conclusion, the military should establish autonomous military strategy and doctrine based on maneuver warfare theory in the future and develop the military force capable of executing maneuver warfare.